

# 각 시대의 대쟁투

## 성경 공부 지침서

### 각 시대의 대쟁투 성경 공부 지침서

(C) 2003. 이 책의 저작권은  
멀린 비어맨과 계시록 출판사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배포 가능 조건

저희는 이 지침서를 당신이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나중에 책임을  
묻게 되시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조건 하에 저작권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PDF 파일로 저장되거나, 인쇄해 다른  
이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이용과 내용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으며, 본 저작권 문구도 모든 사본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문답 및 편찬 멀린 비어맨

삽화 - © 라스 저스틴

본 해설은 E.G. 화이트의 저서  
각 시대의 대쟁투의 내용을 요약하였음

문답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소유이며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허가를 받고 사용하였음.

이 지침서의 해설은 저서 각 시대의  
대쟁투로 부터 발췌하였음.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원문을 읽어볼 것을  
권장함.

### 목차

1. 죄악의 시작
2. 인간과 사탄 사이의 적의
3. 악령의 정체
4. 사단의 함정
5. 최초의 큰 기만
6. 죽은 사람들이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가?
7. 절박한 최후의 위기
8. 믿음의 기준이 되는 성경
9. 최후의 경고
10. 환난의 때
11.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12. 지상의 황폐
13. 대쟁투의 종막

### 부록

위협당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 서문

이 책은 당신에게 죄와 그로 인한 황폐함이 존재한다고 말하기 위해 쓰여지지 않았다. 그 사실은 증명하일 수 있다. 선과 악, 삶과 죽음의 해소되지 않은 대쟁투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로서 당신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았는가:

이 대쟁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어떤 율법이 관련되어 있나?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 것인가?  
언제 끝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는 속지 않을 수 있나?  
내 마음을 위한 쟁투에서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  
죽은자와 교통할 수 있는가?  
나라는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종말이 다가 왔음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고통, 고난, 불의,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은 있는가?

용기를 가지라! 보다 나은 존재가 되고 진실을 알고자하는 욕망을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과 같은 지식을 숨기지 않으셨다.

당신은 이 각 시대의 대쟁투 성경 공부 지침서를 통해 성경으로의 위대한 여정으로 초대받았다. 위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면서, 당신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당신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지을 것들에 대해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 1 강 죄악의 시작

(1) 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신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13)*

죄악의 시작은 그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죄의  
시작과 죄의 최종적인 처분, 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완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성경에 무엇보다 분명히 알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전혀 책임이 없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정부에는 반역을 일으킬 조건이  
될 만한 아무런 결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강제적으로 거두어 버린 일이 없다는 것 등이다.

(2) 성경은 죄를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는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1서 3:4 개역한글)*

죄는 하나의 무단 침입자이다. 그것이 나타나게 된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으면 죄는 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죄에 대한 유일의 정의는 “죄는 불법이라”(요일 3:4)는 말이다.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이다.

(3) 하나님의 정부의 네 가지 기본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시편 89:14)*

그리스도와 천지 창조 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주에 평화와 기쁨이 있었다. 모든 것은 창조주의 뜻에 완전히 조화되었다.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 큰 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봉사, 곧 주님의 성품을 이지적(理智的)으로 이해하므로 생기는 경배를 드리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인 충성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주님께 자발적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신다.

(4)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며 죄를 만든것은 누구인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14:12)*

죄는 그리스도 다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특권을 받고 하늘 주민들 중에서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가진 자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5) 하나님은 루스벨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에스겔 28:15)*

루스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온 하늘 군대의 존경을 받으며 자기의 고상한 능력을 활용하여 다른 이를 복되게 하고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다.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하는 욕망을 품게 되었다.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의

사랑과 충성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시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경배를 자기가 받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군주 루스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영예를 탐한 나머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행사할 수 있는 큰 권세를 동경하였다.

(7)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악된 반란의 결과는 무엇인가?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23)*

온 하늘은 창조주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기뻐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존경을 받으시는 동안 모든 것이 평안하고 기뻐했다. 그런데 이제 한 분쟁의 음성이 나타나서 하늘의 조화를 깨뜨렸다. 창조주의 계획에 반대되는 자기 찬양, 자기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여기는 자들의 마음에 불행에 대한 예감을 불러일으켰다.

하늘의 회의는 루스벨에게 간청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에게 창조주의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심을 알려 주고, 그분의 율법의 신성하고 변치 않는 특성을 제시해 주셨다. 하늘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 그러므로 루스벨이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창조주의 성호를 모독하는 일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파멸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는 반항심을 일으킬 뿐이었다.

루스벨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욱 마음이 굳어졌다.

8) 루스벨의 자만은 어떤 욕망을 가지게 만들었는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사야 14:13-14)*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광에 대한 자존심이 최상권을 잡고자 하는 욕망을 자라나게 하였다. 루스벨은 자신이 받은 높은 영예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창조주께 감사하는 생각을 갖지 아니하였다. 그는 총명하고 칭찬받는 위치에서 영광을 받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열망하였다. 그는 천군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 천사들은 그의 명령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였고 그는 그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영광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되시는 하늘의 군주로 인정받고 있었다.

하나님의 모든 회의에 그리스도께서는 참석하였으나 루스벨은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 강한 천사는 “왜 그리스도께서는 최상권을 가져야 하며 루스벨보다 더 높임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의심하였다.

(9) 루스벨은 기만의 음모를 꾸밈으로써 어떤 평판을 얻게 되었는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44)

루스벨은 하나님 면전에 있는 자기 위치를 떠나 천사들 사이에 불평의 정신을 퍼뜨리고자 나갔다. 그는 얼마동안 자기의 참 목적을 감추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활동했다. 그는 하늘 거민들을 통제하는 법칙이 필요없는 구속을 과하는 것이라고 암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불만을 자극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천사들의 본성은 성결하므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최상의 영광을 주심으로써 자기를 불공평하게 취급하셨다고 주장함으로써 동정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자기가 더욱 큰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하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여 그것으로써 그들을 더욱 고상한 생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0) 우리에게도 그러하시듯,  
하나님께서서는 루스벨을 대할 때 어떤  
성품을 보이셨는가?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로마서 2:4)*

자비심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께서서는 그가 처음에 불만의  
정신에 빠졌을 때, 심지어 그가 충성된  
천사들 앞에서 거짓 주장을 하였을  
때까지도 그를 그 높은 지위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랫동안 하늘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 회개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되풀이해서 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자 오직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하셨다.

본래 하늘에는 불만의 정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루스벨 자신도  
처음에는 자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몰랐고 자기의 심정의 실상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루스벨은  
자기의 불만이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기가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장이 정당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그는 그런 사실을  
온 하늘 앞에 인정해야 할 것을  
자각하였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하였을

것 같으면 그 자신과 많은 천사들이 구원을 얻었을 것이다. 그는 당시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아직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가 비록 덮는 그룹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했다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창조주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따라 지정된 위치에 있기를 만족히 여겼을 것 같으면 그는 본래의 직분에 회복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는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창조주를 대항하는 대쟁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1) 사단의 반란 때, 얼마나 많은 수의 천사가 기만에 넘어갔는가?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요한계시록 12:4)*

그는 자기 휘하에 있는 천사들의 동조를 얻기 위하여 그의 탁월한 정신력을 기만하는 일에 기울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경고하고 권면하신 사실까지도 자기의 반역 활동에 이용하기 위하여 왜곡시켰다. 사단은 자기를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자신과 가장 밀접히 연합되어 있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는 하나님께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그의 지위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의

자유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하늘 주민앞에서 낮추려고 계획하였다는 엉뚱한 거짓말과 노골적인 기만을 퍼뜨리며 하나님의 아들을 비난하였다. 그는 자기와 충실한 천사들 사이에 근거없는 논쟁을 일으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자기편으로 전향하여 완전히 가담하지 않는 모든 자를 향하여 하늘 주민들의 유익에 냉담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충성된자들에게 전가시켰다. 그는 또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불공평한 처사를 공격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잘못 나타내고자 힘썼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교활한 논증을 전개함으로 천사들을 미혹하려 하였다. 그는 단순한 모든 것을 신비한 방법으로 가리고 교묘하게 왜곡시킴으로 가장 분명한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그의 높은 지위는 그의 말을 한층 더 힘있게 하였으므로 그에게 가담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 반기를 드는 자들이 많아졌다.

(12)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왜 사단이 그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도록 하셨는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잠언 10:9)*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불평의 정신이 실제적인 모반 행위로 나타나기까지 사단의 활동이 진척되도록 허용하셨다. 그들의 본성과 진상이 모든 자들에게 분명히 드러나기까지 그의 계획이 충분히 실현될 필요가 있었다.

루스벨은 기름부음을 받은 그룹으로서 크게 높임을 받아왔고 천사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나님의 정부는 하늘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들을 포함하였다. 그러므로 사단은 만일 그가 천사들을 반역에 가담시킬 수만 있으면 모든 세계들도 자기편에 가담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꾀변과 허위를 다하여 교묘하게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였다. 그의 기만의 능력은 매우 놀라웠다. 그는 거짓의 가면으로 자신을 가장함으로써 유리한 위치에서게 되었다. 그러므로 충성된 천사들까지도 그의 본성을 충분히 분별하지 못하고 그의 사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없었다.

(13)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반란 이후에 그를 즉시 멸망시키지 아니하셨는가?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 하심이라. (욥기 37:23)*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사단이 하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린 후에도 그를 즉시 멸망시키지 아니하셨다. 오직 사랑의 봉사만이 하나님께 가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에 기초해야 한다. 하늘과 그 밖의 모든 다른 세계의 주민들은 아직 죄의 본질과 그 결과에 대하여 깨달을 단계가 못 되었으므로 사단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은혜임을 깨달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만일 사단이 즉시로 멸망을 받으면 그들은 사랑으로보다는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단의 감화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반역의 정신도 여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므로 죄악이 충분히 성숙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영원히 온 우주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사단의 비난의 진상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이 영구히 의문시되지 않을 위치에 놓여질 수 있도록 사단이 그의 주장들을 완전히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사단의 반역은 장차 올 모든 시대를 통하여 온 우주에 하나의 교훈, 곧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하여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사단의 지배와 그것이 인류와 천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보여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와 그분의 율법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의 복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었다. 그리하여 무서운 반역의 경험에 따른 역사는 온 우주의 모든 거룩한 주민을 영원히 보호해 주는 방편이 되어 그들을 범법의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고 범죄와 그 고통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14) 사단의 반란으로 인해 어떤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이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7-9)

하늘에서 투쟁이 끝날 때까지 그 큰 찬탈자는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하여 주장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동조자들과 함께 복된 하늘에서 추방당하는 선고를 받자 그 반역의 괴수는 대담하게 창조주의 율법을 멸시하는 말을 공언하였다. 그리고 그는 천사들은 지배받을 필요가 없으며 언제나 그들을 바르게 지도해 줄 그들 각자의 의지를 따르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율법을 폐지하여 천사들을 그 속박에서 해방시켜 하늘의 군대들에게 더욱 높고 영광스러운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선언하였다.

사단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의 반역의 책임을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만일 그들이 견책을 받지 않았을 것 같으면 결코 반역을 일으키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단과 그 무리는 불충성하는 일에 대담하고 완고해진 나머지 하나님 정부를 전복하려고 헛되이 노력하였다. 반역의 괴수와 그의 모든 동조자들은 불손하게도 그들은 압제의 세력에 죄없는 희생자들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다.

(15) 천국에서 쫓겨난 이후, 사단은 그의 왕국을 어디에 건설하고자 하는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찢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9)*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그 동일한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반역을 선동한다. 사단은 일찍이 천사들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방침을 인류에게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금도 그의 정신은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사단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제약을 깨뜨리고자 노력하고 법을 범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해 주고자 애쓰고 있다. 죄를 책망하는 일은 여전히 증오와 반항을 일으키고 있다.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이 사람의 양심을 각성시킬 때 사단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의롭게 여기게 하고 그들의 죄악적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게 한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고치는 대신에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들어낸 것인양 그에게 분노를 나타낸다. 이것이 의인 아벨의 시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죄를 책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나타낸 정신이다.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한 것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냄으로 하나님을 마치 가혹하고 포악한 분으로 여기게 하여 사람들을 범죄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의 반역에 휘말려 들어가서 범죄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부당한 속박이 인류를 타락케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6)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나님으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을 자녀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6-7)*

(17)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자비를 어떻게 보이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6)*

하나님께서서는 사단을 하늘에서  
추방시킴으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보좌의 영광을 보존하셨다.  
그러나 인류가 이 반역 정신에 감염되어  
죄를 범하였을 때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어 죽게하심으로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다.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다. 십자가는 루스벨이  
택한 죄악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부에 그 책임을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실증하는 큰 논증이다.

(18) 예수님께서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할때  
악한 이들은 사단의 모략으로 어떤 말을  
했는가?

*저희가 다시 소리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마가복음 15:13)*

구주께서 지상에서 봉사 생애를  
하시는 동안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전개된 투쟁이 대기만자의 품성을  
드러냈다. 그가 세상의 구주께 자행한

잔인한 공격만큼 천사들과 충성된 온 우주 거민들의 애정을 사단에게서 효과적으로 근절시킨 것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요구한 도전적인 모독, 그를 산꼭대기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간 참람되고 오만한 일, 악의를 품고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권유한 일, 끊임없는 모략으로 주님을 여기저기 따라다니면서 책잡고자 한 일, 제사장과 백성들을 선동하여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게 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부르짖게 한 일, 이 모든 것은 온 우주의 경악과 의분을 자아내게 했다.

이제 사단의 죄는 아무런 핑계할 여지없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의 올바른 본성을 드러냈다. 만일 그가 하늘 거민을 지배할 권세를 얻었을 것 같으면 자기의 권세 아래 있는 인류를 지배한 것과 똑같은 정신으로 하늘 거민들을 지배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났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함으로 자유와 높임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그 일이 속박과 타락을 초래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19)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전 우주에 어떤 성품을 드러내고자 하셨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18)*

하나님께서서는 반역의 정신에 대하여 혐오감을 나타내셨다. 온 하늘은 하나님의 공의가 사단을 정죄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다 같이 나타났음을 보았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없고 그 형벌이 경감될 수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모든 자가 창조주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그는 죄에 빠진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 밖에 있으므로 자기의 정당한 포로가 되었다고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실은 도무지 꺾을 수 없는 논증이 되었다.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분께서 율법의 형벌을 받으시므로 인류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고 겸손과 회개의 생애로써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하신 것처럼, 이겨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시다.

(20) 그리스도의 임무는 무엇이었는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마태복음 5:17)*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을 맛보신 것은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주님께서는 또한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율법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하는바 그분께서 오신 것은 이 세상의 거민들이 율법을 것처럼 존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

만일 율법의 요구가 취소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을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불변성을 입증한다. 무한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을 강권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치르게 한 희생, 곧 이 속죄의 계획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희생은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정부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온 우주에 실증해 준다.

(21) 대 쟁투가 끝날때, 모든 창조물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10-11)

마지막 심판이 집행될 때 죄가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온 세상의 심판장께서 사단을 향하여 “네가 어찌하여 내게 반역하고 내 나라의 백성들을 내게서 빼앗아 갔느냐?”고 심문하실 때 죄의 창시자는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입은 닫혀질 것이고 모든 반역의 군사들은 오직 유구 무언해질 것이다.

(22) 사단의 멸망을 선포한 외침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30)*

갈바리의 십자가는 율법의 불변성을 말해 주는 한편,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한다. 구주께서 임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사단의 멸망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오랫동안 계속하여 온 대쟁투는 이제 판가름이 나고 죄악의 최종적 도말이 확정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히 2:14) 멸하기 위하여 무덤의 문을 통과하셨다.

(23) 사단과, 자만과 불의로 가득찬 이들은 궁극적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라기 4:1)*

루스벨은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욕망으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사 14:13, 14)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네가 죄악이 많고 ... 불의하므로 ... 내가 ...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겔 28:18, 19).

(24) 대 쟁투가 끝날때, 구원받은 이들과 온 우주에겐 어떤 약속이 이뤄지게 되는가?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나훔 1:9)*

온 우주는 죄의 본질과 결과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 천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하는듯하던 죄의 최종적 박멸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옹호하고 그분의 명예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다시는 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나 1:9)고 말한다.

사단이 속박의 멍에라고 비난하여 온  
하나님의 율법은 자유의 율법으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시련과 연단을 받은  
피조물들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이루어진 품성을  
그들 앞에 완전히 드러내신 하나님께  
다시는 충성심을 변치 아니할 것이다.

나는 자만으로 인해 루스벨의 마음에 처음  
죄악이 생기게 되었음을 이해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든 파멸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셨으면 모든 창조물은  
두려움으로 복종하게 되었음을 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일어나는 고통을  
경험했다. 나는 그들의 복종을 통해 사랑,  
공정함, 그리고 자비를 볼 수 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지혜의 하나님께서 죄가 악의 계획을  
계속해나가도록 함으로 온 우주가 그  
끔찍한 결과와 사탄의 본성을 알 수 있도록  
하셨음을 이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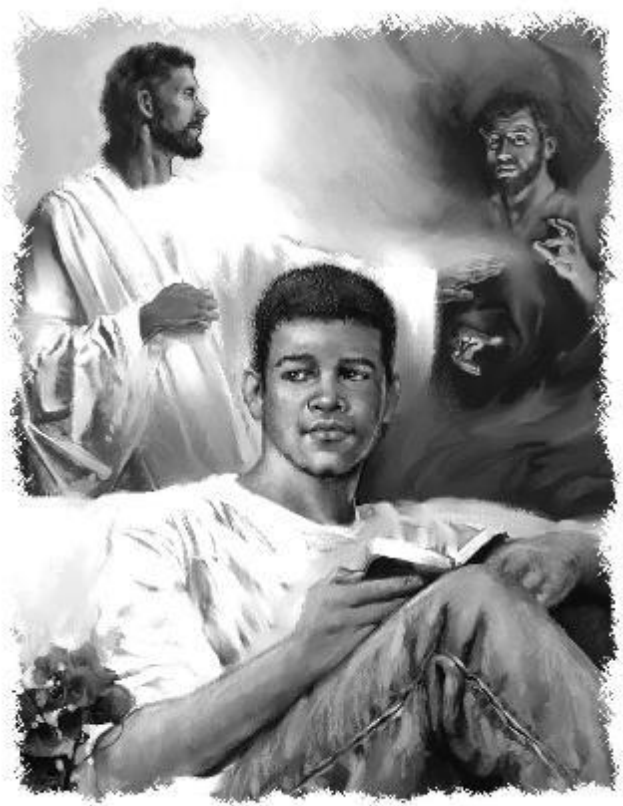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보이신 위대한 자비를  
선포하고자 한다. 나는 이 선물로 인해  
율법의 기준에 맞게 되었음에 기쁘다.

그분의 지혜로우시며 공의롭고 모든 믿는  
자들을 공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illegible]



## 2 장

### 인류와 사단 사이의 적의

(1) 타락한 인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약속을 하셨는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यो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15)*

인류의 타락 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리신 이 선고는 동시에 하나의  
예언이었다. 그것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미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참가할 대쟁투를 미리 보여준다.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 원수가 되게  
하리”라고 선언하신다. 이 원수 관계는  
선천적으로 되지 않는다.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으므로 그의 본성은 악해졌다.  
그리하여 그는 사단과 조화되고 불목하지 않게 되었다. 죄인과 죄의 창시자인 사단과는 본질상으로 아무런 원수 관계가 존재치 않는다. 둘 다 반역으로 악해졌다.

그 배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행위를 모방하게 하여 동조와 후원을 얻기 전에는 결코 안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자들은 결사적으로 연합하기로 하였다. 만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지 않으셨을 것 같으면 사단과 인류는 동맹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대항하였을 것이다. 인류는 사단과 원수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연합하였을 것이다.

(2) 아담과 하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셨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7)*

(3) 이 땅에 파멸을 불러오고 모든 인류를 타락시킨 반항의 행위는 무엇인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6)*

(4) 유혹은 무엇인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야고보서 1:2-3)

(5) 모든 유혹을 만든 이는 누구인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누가복음 4:13)

사단은 천사들을 반역에 가담시켰던 것처럼 인류를 범죄하도록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는 싸움에 협력하게 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단 자신과 타락한 천사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없었다. 다른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달랐을지라도 그들이 우주의 통치자의 권위를 반대하는 일에는 완전히 연합하였다. 그러나 사단이 그와 여자와 그리고 그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라는 선언을 듣자 그는 인간의 본성을 타락시키려는 그의 노력이 방해받을 것과 인류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의 세력을 저항할 수 있게 될 것을 알았다.

(6) 인간은 누구의 모습을 본따 만들어졌으며 인류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동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27)

인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사단의 증오심이 불타올랐다.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무너뜨리고 더럽힘으로 그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전복시키고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고자 열망한다. 그는 하늘에 슬픔이 있게 하고 땅은 재난과 황폐로 충만해지게 만들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악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결과로 생긴 것이라고 지적한다.

(7)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는 어떤 귀한 약속을 받을 수 있는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4)*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혼속에 주입시키시는 은혜이다. 이와 같이 회개케 하는 은혜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없었으면 인류는 계속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혀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종노릇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심령에 있는 새로운 원칙이 지금껏 평화롭던 곳에 투쟁을 일으킨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찬탈자요 폭군인 사단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누구든지 죄를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욕을 정복한 증거를 나타내면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원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8) 그리스도께서 삶에서 보이신 어떤 신성한 성품으로 인해 성스럽지 못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그분을 십자가형에 처할 정도의 증오를 가지게 되었는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1서 3:5)*

그리스도의 영과 사단의 영 사이에 존재하는 적의는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그분께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외적 상태의 부족을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결과 성결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증오심을 일으켰다. 그분의 극기와 결백한 헌신의 생애는 거만하고 방종한 자들에게 그침없는 견책이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적의를 일으켰다. 사단과 악한 천사들은 악한 사람들과 합세했다. 모든 반역의 세력은 진리의 투사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자 꾀하였다.

(9)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써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처우를 받게 되는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12)*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주님께 나타냈던 것과 똑같은 적의가 나타난다. 죄의 가증한 성질을 깨닫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유혹을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사단과 그 부하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진리의 순결한 원칙에 대한 증오, 그 원칙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박해와 비난은 죄와 죄인들이 존속하는 한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사단의 종들은 서로 조화될 수 없다. 십자가에 대한 공격은 그치지 않았다.

(10) 사단의 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두 단계를 우리는 따라야 하는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7)*

사단은 그의 온 군대를 동원하여 전투에 그의 힘을 다 쏟고 있다. 그런데도 그가 더 큰 저항을 받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것처럼 깊이 졸고 냉담한 상태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실제적 연결이 거의 없고 그분의 영이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확고하고 단호하게 죄를 저항하지 않는다. 그들은 죄가 어느 정도로 악하고 가증한 것임을 알지 못하므로 암흑의 왕의 특성과 세력에 대하여 눈이 멀어 있다.

그들은 사단과 그 사업에 대하여 별로 적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단의 세력과 그의 악랄함에 대하여 너무도 무지하고 사단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하여 어느정도 전선을 확장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된다. 그들은 그들의 원수가 그 악한 천사들을 임의로 부리며 잘 짜여진 계획과 교묘한 행동으로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고자 그리스도와 싸우고 있는 강한 장군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으로 공언하는 사람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까지도 이따금 강단에서 말하는 이외는 사단에 대하여 말하는 일이 참으로 드물다. 그들은 사단이 끊임없이 활동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 증거들을 못보고 지나간다. 그들은 사단의 교활함에 대한 많은 경고들을 등한히 여긴다. 그들은 사단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서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11) 사단은 계속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4)

사람들이 그의 간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 방심하지 않는 원수는 끊임없이 그들의 뒤를 밟고 있다. 그는 모든 집, 각 도시의 거리, 교회, 의회,

재판정에 들어가서 혼란을 일으키고  
속이고 유혹함으로써 도처에서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의 육체와  
심령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증오와 경쟁과 투쟁과 혼란과  
살인의 씨를 뿌린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써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과  
분리시키는 장벽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들을 정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지된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하고자 모험함으로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받았다. 그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타락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확고한 추종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사단의 종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과 죄를  
간직하고 핑계하려는 정신이 있다. 그러나  
거듭난 마음에는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저항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경건치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택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를 시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사단은 자신을 숨기고  
속임수의 휘장으로 감쪽같이 그들의  
눈을 가리운다. 그들은 그런 교제가  
그들에게 해를 주리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끊임없이 품성과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세상과 동화됨으로  
그들은 더욱더 눈이 멀어간다.

(12)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의 습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가?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잠언 4:14)*

세상의 습관을 따를 것 같으면 교회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세상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죄와 친숙해지면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저항이 적어진다. 사단의 종들과 교제하는 길을 택하는 자는 미구에 그들의 지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왕의 궁정에서 당한 것처럼 우리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스스로 자신을 시험을 받는 처지에 두게 되면 우리는 조만간에 넘어질 것이다.

(13) 우리는 누구를 따르지 말고, 존경하지 말아야 하는가?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잠언 24:1)*

유혹자는 흔히 자기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거의 의심받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가장 성공적으로 활동한다. 교육을 많이 받고 재능 있는 사람은 흔히 존경과 찬양을 받되 마치 그러한 자격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의 부족을 보충해 주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재능과 교양

자체는 하늘의 선물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경건의 대용이 될 때,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기보다 그분께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할 때 그것들은 저주와 함정이 된다.

예모 있고 고상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어느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잘못이 없다. 그런 특성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단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참 종교를 위하여 좋은 감화를 끼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악을 위한 세력이 된다.

세련된 지성과 쾌활한 태도를 가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도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사단의 손에서 단지 세련된 기구의 역할을 한다. 그의 영향력과 모본에 나타난 교묘하고 기만적인 특성은 무식하고 교양없는 자들보다 더욱 많은 위험을 하나님의 사업에 끼친다.

(14) 지혜와 영적 성장의 유일한 원천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1)*

열렬한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심으로 솔로몬은 세상의 경이와 칭찬의 대상이 된 지혜를 얻었다. 그러나 그가 그의 능력의 근원이신 분을 떠나서

자신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는 유혹의 포로가 되었다. 그리하여 가장 지혜로운 그 왕에게 주어졌던 놀라운 능력은 그를 영혼의 원수에게 봉사하는 효과적인 기구로 전락시켰을 뿐이었다.

(15) 사단은 대 쟁투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8)*

아담의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큰 원수는 억압하고 파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 그는 이제 교회를 대항하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 잔인한 원수와 싸워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모본자를 유사하게 닮아가면 갈수록 그는 더욱 분명히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악한 자의 기만을 폭로하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제시하고자 애쓰는 모든 사람은, 많은 눈물과 시련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했노라고 말하는 바울의 간증에 동참할 수 있다.

(16) 악마의 의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11)*

사단은 가장 맹렬하고 교묘한 시험으로 그리스도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싸움을 물리치셨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싸움들을 싸우셨다. 그리스도의 승리들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가능케 해준다.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정복당할 수 없다. 유혹자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그는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더럽힐 수는 없다. 그는 번민케 할 수는 있으나 죄에 물들게 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단을 대항하는 싸움을 용감하게 싸우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17)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더럽혀짐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시편 119:9)*

(18)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13)*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사단에  
대한 증오를 심어 주셔서 감사하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얻기 위해 기도하며,  
그분의 은총으로 인해, 나는 악의 진보에  
저항하기로 결심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내가 이기지 못하는 고난은 주시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위해  
기도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알며  
나는 이를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견뎌내겠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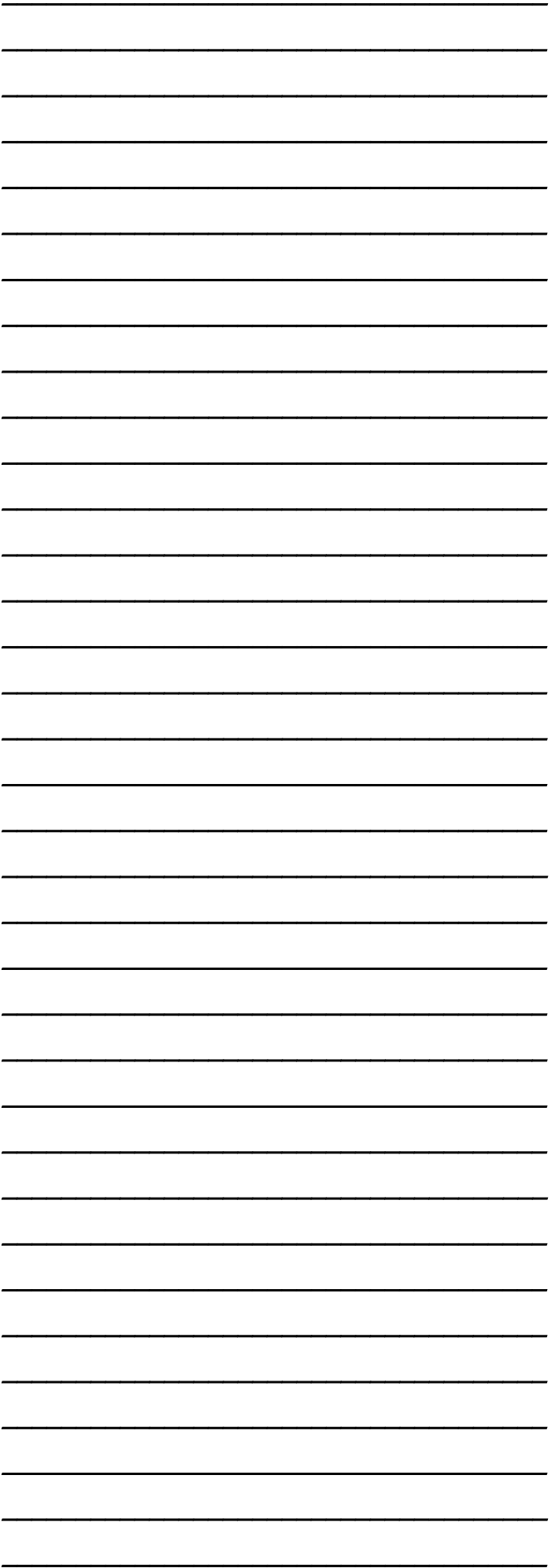
---

---

---

---

---





### 3 장 악령의 정체

(1) 대 쟁투에서 악이 발휘하고있는 힘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12)*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관계, 하나님의 천사들의 봉사, 악령 활동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며 인류 역사와 불가분히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악령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히 1:14)을 입은 천사들을 죽은 자의 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들이 육체를 떠난 죽은 자의 영이 아님을 분명히 증명해 준다.

2) 대 쟁투가 시작되기 전, 모든 천사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요한계시록 5:11)

(3) 성경은 타락한 천사를 어떤 말을  
사용해 칭하고 있는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19)

(4) 이 타락한 천사들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피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9)

(5) 천사와 비교해 인간은 어떤 수준으로  
만들어졌는가?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8:5)

천사들은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벌써  
있었다. 땅의 기초가 놓일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욥 38:7)기 때문이다.

또한 인류가 타락한 후에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천사가 파견되었는데, 그때는 아직 한 사람도 죽기 전의 일이었다. 천사는 그 본성이 사람보다 우수하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저(사람)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시 8:5)라고 말한다.

(6)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의 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요한계시록 5:11)*

성경은 하늘 거민의 수와 그 능력과 영광에 대하여 또한 그들과 하나님의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또한 속죄 사업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려 준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또 선지자는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라고 말한다. 만왕의 왕 앞에서 시위하는, “능력이 있”는 천사들은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고 그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시 103:19-21; 계 5:11) 자들이다. “선지자 다니엘은 천천 만만의 천사들을 보았다”(단 7:1). 사도 바울은 그들을 “천만 천사”(히 12:22)라고 하였다.

(7) 얼마나 많은 수의 천사들이 악의 길을 택하였는가?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요한계시록 12:4)

(8) 천사는 어떤 물리적인 외형을 하고  
있는가?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 같이 빠르더라. (에스겔  
1:13-14)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겔 1:14)다. 그들은 광휘  
찬란한 전광(電光)처럼 빠르다. 구주의  
무덤에 나타난 천사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으며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마 28:3, 4) 되었다.

9) 이 구문에서 설명하는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천사 하나의 능력은 어떠한가?

이 밤에 여호와와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열왕기하 19:35)

거만한 앗수르 사람 산헤립이  
하나님을 훼방하고 조롱하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위협할 때  
“밤에 여호와와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을 친지라.”  
산헤립의 군대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앗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왕하 19:35;  
대하 32:21)갔다.

(10)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는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히브리서 1:14)*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는다. 천사는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의인 롯을 맹렬한 불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또한 주림과 피곤으로 광야에서  
죽게 된 엘리야에게,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작은 도성에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엘리사에게 천사가 왔다. 이방 궁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을 때의 다니엘에게, 헤롯의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빌립보의 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밤중에 해상에서 폭풍을  
만난 바울과 그 동행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자  
고넬료에게, 이방인 사자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고자 베드로에게  
천사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와 같이  
천사들은 각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봉사해 왔다.

(11) 천사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해주는가?

*여호와와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시편 34:7)*

보호하는 한 천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다. 그 하늘의 보호자들은 의인을 악한 자의 세력에서 지켜 준다. 이 사실은 사단 자신도 시인했다. 그는 “웁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웁 1:9, 10)라고 한 말은 그 사실을 말해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데 사용하시는 존재가 시편 기자의 말에 나타나 있다. “여호와와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시 34:7). 구주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에 관하여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마 18:10)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봉사하도록 지정된 천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암흑의 왕의 부단한 악의와 기만력의 습격을 받고 악의 세력과 싸울지라도 하늘의 천사들의 끊임없는 보호가 보증되어 있다. 필요 없이 그런 보증이 주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보호의 약속을 하신 것은 그들이 강한

악의 세력과 대결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무수하게 많고, 굳세고, 지칠 줄 모르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의 악의와 세력을 깨닫지 못하거나 유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해질 수 없다.

(12) 성스러운 천사들을 악마로 바꾼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베드로후서 2:4)*

태초에 죄 없이 창조된 악령들은 그 본성과 권능과 영광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 봉사하는 자들과 같았다. 그러나 그들이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에 단합하여 있다. 그들은 사단의 반역에 가담하여 그와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들의 동맹과 정부, 여러 가지 계급, 그들의 지혜와 교활,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파괴하기 위한 악의들을 알고 있다.

(13) 인류를 속이고 조종하기 위한 악마의 수단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요한계시록 16:14)*

구약의 역사는 악령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하여 이따금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 만큼 악령들이 가장 악랄하게 활동한 적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속하는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므로 사단은 자기에게 세계를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결심하였다.

(14)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마음을 허용하면, 악의 무리는 어디에 거하게 되는가?

*저물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마태복음 8:16)*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신약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보통 질병으로 고통하는 것과는 달랐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악령의 실제적 존재와 활동을 인정하셨다.

악령의 수효와 위력과 악의에 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비가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알려 주는 뚜렷한 예증은 거라사의 사귀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성경의 이야기에 나타나 있다. 그 가련한 미치광이들은 모든 속박을 던져 버리고 몸을 비틀고 입에 거품을 물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학하고 가까이 접근하는 모든 사람을 위협했다. 흑암의

왕은 피투성이가 된 그들의 상한 몸과 그들의 혼란한 마음을 기쁘게 바라보았다.

(15) 가다라 마을 출신 사람 속에는 얼마나 많은 악마들이 있었는가?W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나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가복음 5:9)*

로마 군대에서는 한 군단이 3천 내지 5천명으로 되어 있었다. 사단의 군대 역시 이와 같은 단체가 되어 진군한다. 그리고 그 사귀들이 속한 군대는 로마의 한 군단의 인원만큼 큰 단체였다.

(16) 악의 무리가 도망가도록 만드는 힘을 가진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가?

*칠십 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가복음 10:17)*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귀들은 그들의 포로들에게서 떠나가고 그 사람들은 조용하고 온순하고 정신이 똑똑하게 되어 구주의 발 아래 앉았다. 또한 그 지방 사람들이 사단의 속박을 깨뜨리고 그에게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당신의 위력을 보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다. 비록 예수님께서서는 그 곳을 떠나셨지마는 이처럼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의 공훈을 전파하기 위하여 거기에 남아 있었다.

(17) 의도적으로 사단이 깃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엘루마의 직업은 무엇인가?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사도행전 13:8)*

사귀들린 사람들은 심하게 고통하였으나 예외로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었다. 초자연적 능력을 얻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사단의 영향을 의도적으로 받았다. 그들이 사귀와 싸우지 아니할 것이 당연하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점치는 귀신에 접한 자들이다. 마술쟁이 시몬, 박수 엘루마,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의 뒤를 따른 여종 등이 여기에 속한다(행 8:9, 13:8, 16:6 참조).

(18) 이제는 사단이라 불리우는 루스벨의 물리적인 외형에 대해 이 구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에스겔 28:17)*

자신의 술책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보다 대기만자 사단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 그는 더욱 잘 자신의 정체와 목적을 숨김으로 다만 조소와 비난의 대상으로서만 사람들에게 주목되도록 자신을 나타내 왔다. 그는 자기가 반수

반인(半獸半人)의 기형적이며 흉칙스러운 것으로 표현되는 것을 기뻐한다. 그는 스스로가 지혜롭고 지성적인 사람으로 자처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름이 웃음과 조롱거리로 사용되는 말을 듣고서 기뻐한다.

(19) 기만을 막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 성경은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11)*

*네가 진리의 말씀에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15)*

“그런 존재가 참으로 존재하는가?”하는 말을 어디서나 듣는 것은 그가 참으로 교묘하게 가면을 잘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종교계에서도 가장 분명한 성경의 증언과 전연 반대되는 이론이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사실은 바로 그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흉악한 역사에 대한 많은 실례를 열거하고 그의 은밀한 세력을 우리에게 폭로해 주고 그의 공격에 대하여 우리를 경계하게 하는 것은 그의 영향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이 가장 쉽게 사단에게 지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 우리가 악의 무리에 공격을 당할 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약속을 붙들 수 있는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시편 97:10)*

우리가 만일 초월하신 구주의 능력으로 구원과 보호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사단과 그 부하들의 세력과 악의에 놀라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우리는 집에 빗장을 채우고 자물쇠를 잠금으로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매우 주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힘과 수단으로써는 그 공격에 저항할 수 없는 악한 천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지라도 거기에 대하여 생각하는 일은 별반 없다. 만일 사단에게 맡겨진다면 그는 우리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며 생명과 재산을 파괴할 것이다. 그들의 유일한 기쁨은 불행과 파멸에 있다.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사단의 유혹에 굴복하여 마침내 악령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상태는 무서운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언제나 그분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다. 능력이 뛰어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파견된다. 악한 자는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보호의 벽을 깨뜨릴 수 없다.

나는 성경을 통해 나 또한 선과 악의 우주적인 싸움에 말려들어있음을 안다. 나는 악마적인 힘이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나를 파멸시키기 위한 타락한 천사임을 이해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전달자들을 보내서, 이 대 쟁투에서 내가 필요한 일들을 다루고 보호를 제공해 주심에 감사하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사단과 그의 악한 무리들과 대적할만한 지능, 힘, 혹은 능력이 없음을 안다. 나는 이러한 악의 힘을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는 권능으로 이길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 날에 어둠의 힘이 나를 속이기 위해 기적적인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일 것을 안다. 나는 여기에 속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인도해주시길 기도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

---

---

---

---



## 4 장 사단의 함정

(1) 이 대 쟁투에서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요한계시록 20:3)*

거의 6천년간에 걸쳐 계속되어 온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미구에 끝나게 된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고 사람들을 그의 사슬에 굳게 매어 두기 위하여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구주의 중보 사업이 끝나고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않게 될 때까지 사람들을 암흑과 완고한

상태에 붙들어두는 것이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다.

(2) 사단의 기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두 가지 지시를 받았는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7)*

사단은 자기의 권세를 거절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없을 때, 세상과 교회에 냉담한 상태가 팽배해 있을 때 별반 주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들을 자기 손에서 잃어버릴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영원한 사물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부르짖을 때에는 사단이 벌써 와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다투고 성령의 감화를 소멸시키고자 노력한다.

3) 우리가 육욕을 극복하려면, 성경은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16)*

사단은 다시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 암흑에 싸여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매우 근심하는 것을 본다. 그는 냉담과 부주의와 태만의 결박을 풀어 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들이 열렬하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그는 더욱 새로운 열성으로 자신의 술책을 적용한다. 사단은 사람들이 식욕과 그밖의 자만의 상태에서 방종하도록 유혹한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의 지각을 마비시켜 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바로 그 사실을 듣지 못하게 한다.

(4) 사단이 우리가 영원한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 교란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가지 수단은 무엇인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마가복음 4:19)*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다 쓴다.

(5)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이들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로마서 16:17)*

경건한채하면서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고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의 품성의 결함이나 믿음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을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해 왔다. 그런 자들은 사단의 오른팔에 해당되는 조수들이다.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에게 진정한 경배를 드릴 때 언제나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왜곡되게 나타낼 것이다. 그들은 가장 열렬하고 진실하고 극기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마치 기만당하였거나 혹은 기만하는 자로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진실하고 고상한 행위의 동기를 그릇 전하여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릇된 암시를 주고 의혹을 일으키는 것이 그들의 사업이다. 그들은 여러 가지 술책을 써서 순결하고 의로운 것을 더럽고 기만적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6) 성경은 이 기만자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졌느냐 (마태복음 7:16)*

그러나 아무도 그들에게 속을 필요는 없다. 그들이 누구의 자식이며 누구의 본을 따르고 있으며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마 7:16)라. 그들의 행동은 악독한 무고자(誣告者),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계 12:10)인 사단의 행동과 유사하다.

대기만자는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오류, 곧 그가 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취미와 적성에 맞도록 준비한 여러 가지 이단설을 전하는 많은 부하들을 가지고 있다. 사단은 교회 안에 불성실하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들여보내어 그들에게 의심과 불신을 권유하는 한편,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되기를 원하며 그 사업과 함께 전진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어떤 원칙들만 시인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생각을 성경의 교리처럼 소개하게 된다.

(7) 진실을 받아드린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32)*

사람이 어떻게 믿든지 그것이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는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 하나이다. 사단은, 사랑 가운데서 받아들여진 바 되면 진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자의 심령을 성결하게 하여 준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 교리, 지어낸 말, 다른 복음 등으로 대치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들은 거짓 교사들과 싸워왔다. 그들은 그 사람들을 단순히 덕한자들로써 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치명적인 거짓을 가르치는 자로서 싸워왔다.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바울은 확고하고 두려움 없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을 규탄하였다. 이 거룩한 진리의 옹호자들은 믿는 신조가 바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사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8) 그들의 신념에 맞추어 성경을 곡해하는 이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16)*

일반 그리스도교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성경 말씀에 대한 애매하고 이상한 해석과 종교적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모순된 이론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며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큰 원수가 하는 소행이다. 그리스도교계의 여러 교회에 존재하는 불화와 분열은 주로 좋아하는 이론을 지지하기 위하여 성경을 곡해하는 일반적 습관에 기인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주의 깊이 연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새롭고 기이한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연구한다.

(9)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바꾸고자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경고는 무엇인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18-19)*

어떤 사람들은 그릇된 교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옹호하기 위하여 성경의 어떤 절을 그 전후 관계없이 끊어내거나 한 절 중 절반만을 인용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는 그 나머지 부분이 전혀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 줄 것이다. 그들은 뱀과 같이 교활하게 전혀 관련이 없는 성경절들을 그릇 인용하여 그들의 육신적 욕망에 맞도록 조절한다. 또한 상상력이 풍부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의 표상과 상징을 자기들의 상상력에 일치하도록 해석하여 성경 자체가 성경의 해석자인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억설을 성경의 가르침인 양 설명한다.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경건하고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정신으로 하지 아니하면 가장 어려운 구절은 물론이요 가장 쉽고 단순한

구절일지라도 그 진정한 의미를 곡해할 수 있다.

(10) 정직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와 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시편 19:7)*

성경은 창조주의 뜻을 알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지도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주셨다. 천사들과 그리스도 자신까지 장차 속히 올 사건들을 알려 주시기 위하여 다니엘과 요한에게 오셨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중요한 것들은 신비에 싸인 채 남겨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정직한 진리 탐구자들이 당황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시되지 않았다. 주님께서서는 선지자 하박국을 통하여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하라”(합 2:2)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한 마음으로 연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밝혀져 있다. 진정으로 정직한 모든 사람은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 97:11)셨다.

(11)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식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궤궤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고린도전서 3:19)*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적 연구는  
저주가 되어 왔다. 하나님께서는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의 발견과 발전으로 세상에  
빛의 홍수가 쏟아지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나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들일지라도 그들의 연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지도되지 않으면 과학과  
기술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미로에 빠진다.

(12) 세속적인 과학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디모데전서 6:20)*

물질적 사물이거나 영적  
사물이거나를 막론하고 인간의 지식은  
부분적이며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과학적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시킬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이론과 가설을 과학적  
사실처럼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딤후 6:20)으로 시험되어야 할  
것처럼 생각한다. 그들은 창조주와 그분의  
사업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 법칙으로 그것들을 설명할 수 없고  
성경 역사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기록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자들은 너무도

흔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나머지 무한한 능력을 자연에 돌린다. 그리하여 그들의 닳줄이 끊겨지므로 그들은 불신의 암초에 부딪칠 수밖에 없게 된다.

(13) 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33)*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마귀에게 미혹당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창조주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자 노력해 왔다. 인간의 철학은 영원토록 결코 계시될 수 없는 오묘를 찾아내고 설명하려고 시도해 오고 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관하여 알려 주신 것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해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여호와와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깨닫고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고자 의도하지도 않으시는 것에 관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찾아내고자 하고 추측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의 걸작이다. 그와 같이 하여 루스벨은 하늘에서 그의 지위를 잃어버렸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은밀한 목적을 자기에게 알려 주지

않으셨다 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높은  
지위에 관하여 계시된 것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 그는 자기 휘하에 있는  
천사들에게 동일한 불만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을 타락시켰다. 오늘날도 그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정신을  
넣어 줌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무시해 버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14) 강한 기만을 믿게 되는 위험에  
빠져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10-12)*

분명하고 예리한 성경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양심을 진정시켜 줄 즐거운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적인  
것이 아니고 극기와 견비를 더욱 적게  
요구하는 교리를 제시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큰 호감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육적 욕망을 위하여  
지력을 저하시킨다. 그들은 뉘우치는  
마음과 열렬한 기도로써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으리 만큼 영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미혹에서 지킬  
길이 없다. 사단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채워 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진리 대신 거짓 것을 쥐어 준다. 세상과 일치되기 위한 편의와 방편을 연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모든 자들은 종교적 진리 대신에 지독한 이단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고의적으로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오류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어떤 종류의 속임수를 공포감으로 바라보는 자도 다른 기만을 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큰 기만자의 활동 중 가장 성공적인 것은 강신술의 기만적인 교훈과 이적들이다. 그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의심을 받지 않는 곳에 그물을 친다. 만일 사람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성경 연구에 몰두한다면 그들은 거짓 교리를 받아들일 만큼 어두움에 빠져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거절할 때 그들은 속임수의 포로가 된다.

(15) 우리는 무엇을 피하도록 지시받았는가?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7:13)*

오늘날 그리스도교계의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릇된 교리와 기상천외의 사상들은 무수하게 많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정표를 제하여 버림으로 생기는 해독은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단 하나의 진리만을 버리고 그 일을 그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의 원칙들을 하나씩 차례로 버리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고 만다.

인기 있는 신학의 오류들이 성경을 믿을 뻔했던 많은 사람들을 회의론자가 되게 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정의와 공훈과 자비의 관념에 반대되는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그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나타날 때에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

(16) 인간의 전통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의 위험은 무엇인가?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마가복음 7:9)*

이것이 사단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보다 사단이 더 바라는 것은 없다. 사단은 회의주의자들의 큰 군대의 선두에서 사람들을 속여 자기의 편에 가담시키게 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날은 의심하는 일이 유행하고 있다. 성경이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저자인 하나님께 대한 것과 같은 이유로 불신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많다. 성경의 요구에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전복하고자 노력한다. 그들은 단순히 성경에서, 혹은 설교에서 무슨

결점을 찾아내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강단에서 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인다.

의무 태만에 대한 구실을 만들고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무신론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만과 나태에서 회의론의 원칙을 채택한다. 그들은 노력과 극기를 요구하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드러낼 수 없을 만큼 안일을 좋아한 나머지 성경을 비평함으로 탁월한 지혜가 있다는 명성을 얻고자 목적한다. 성경에는 하늘의 지혜를 받지 아니한 유한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으므로 그들은 이 점을 들어 비평의 기회를 삼는다.

불신과 회의와 무신론 편에 서는 것을 일종의 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솔직한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자부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음이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기를 즐긴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논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먼저 비평하고 그릇된 편에서 이론을 전개한다. 그들은 그런 모양으로 새 사냥꾼의 그물에 그들 스스로가 걸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공개적으로 불신을 나타냈으므로 그들의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불경건한 자들과 연합하고 스스로 하늘의 문을 닫아 버린다.

(17) 성령님의 도우심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13)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거룩한 특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주셨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위대한 진리는 밝히 제시되어 있다. 진정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각 사람은 스스로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들의 신앙의 터가 될 확고한 기초를 주셨다.

(18) 이 구절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다고 말하는가?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시편 118:8)

그러나 유한한 사람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능히 온전히 알”(요 11:7) 수 없다. 우리는 참람된 손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을 가리고 계신 휘장을 들어올려서는 안 된다. 우리를 취급하시는 것과 그분께서 일하시는 동기를 이해하는 정도 만큼 우리는 무한한 능력과 연합된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깨달을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의와 지혜로써 명령하시므로 우리는 불만을 갖거나 불신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할 정도만

당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므로 그 이상의 것은 전능하신  
그분의 손과 사랑이 많으신 그분의  
마음에 맡겨야 한다.

(19) 이 구절은 죄와 불신의 위험한  
결과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는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히브리서  
3:12-13)*

하나님께서서는 믿음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를 주시는 한편 불신에 대한 구실은  
결코 완전히 제거해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의심을 걸어둘 갈고리를 찾는 자는 모두  
그것을 찾을 것이다.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코 빛을  
찾지 못할 것이다.

(20) 육신의 정신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적인 반응은 무엇인가?

*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31)*

하나님께 대한 불신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결과이다. 그러나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취되며, 그것을 마음에 간직함으로써만 왕성해질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없다. 불신 역시 조장함으로써 강해진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탱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마음에 간직하는 대신에 그들 스스로를 의심하고 트집잡는 일에 몰두할 것 같으면 그들의 의심은 계속하여 더욱 굳어져감을 깨닫게 될 것이다.

(21)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7)*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을 의심하고 그분의 은혜의 보증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감화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는 대신에 도리어 그분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멀리 그리고 넓은 범위까지 어두운 가지들을 뺏고, 다른 나무에 비칠 햇빛을 막아 버리므로 그 나무들을 찬 그늘 아래서 시들어 말라죽게 하는 열매없는

나무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평생 업적은 그들에 대한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증거로써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틀림없이 수확을 거두고야 말 의혹과 불신의 씨를 뿌리고 있다.

(22) 교리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17)*

의심에서 벗어나기를 진정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취할 유일한 길이 있다. 그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관하여 의심하고 트집잡는 대신에 이미 그들에게 비추어진 빛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은 더욱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분명히 깨달은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은 현재 의문을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3) 더욱 강인한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두가지 행위가 필요한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17)*

*곧 그 아이의 아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마가복음 9:24)*

(24) 구하는 이들에겐 무엇이 주어지는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7)

사단은 진리와 너무나 흡사한  
모조물을 제시하므로 진리가 요구하는  
극기와 희생을 좋아하지 않고 속임수에  
빠지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속인다.  
그러나 비록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진리를 알고자 정직하게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사단이  
자신의 권세 아래 붙들어 둘 수 없다.  
그리스도는 진리이며,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요 1:9)이시다.  
진리의 영은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내신 바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마 7:7),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17)는 선언이 내려 있다.

(25)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유혹을  
겪도록 놔두시는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욥기 23:10)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에 대하여 꾸미고 있는 음모를 별로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늘에 좌정해 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런 간계들을 모두 제압해 버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심한 시련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그들이 받는 번민과 고통을 기뻐하시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그들의 최후 승리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서이다. 그분께서는 시종 여일하게 당신 자신의 영광으로 그들을 유혹에서 보호하실 수는 없으시다. 왜냐하면 시련의 참 목적은 모든 악의 유혹을 대적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26) 유혹을 저항하기위한 의지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6)*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버리며, 믿음으로 그분의 허락을 굳게 붙잡는다면 악인들이나 마귀들도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공공연한 것이든지 은밀한 것이든지 모든 유혹과 모든 반대 세력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눅 4:6)  
성공적인 저항이 가능하다.

(27) 우리는 왜 악의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19)*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 암흑의 군대보다 더욱 강하다는 것과 만일 자기가 공공연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면 상대방이 대항하고 그를 저항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의 군사들을 그들의 견고한 요새에서 유인하여 뱀과 동시에 복병을 두어 자기의 진지에 들어오는 모든 자를 멸망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할 때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28)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두 가지 것을 주셨는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26:41)*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는 하루나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혹자의 간계와 그를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 있다. 사단은 성경절을 인용하여 거기에 자기의 해석을 붙이는데 전문가이다. 그는 그런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바라고 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단의 간계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계하는 동시에 믿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나는 사단의 목표는 세상을 기만하는 것임과, 그는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안다. 나는 내가 지혜와 진리를 구하면 나는 그것을 얻을 것이며, 그의 기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사단이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믿는 이라 칭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이용한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린다: “주님, 사단의 영향을 물리치기 위한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경고를 지속적으로 따르고, 돈의 유혹에 빠져 그분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악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심과, 내가 견디지 못할 고난은 주시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주심에 감사한다. 나는 믿음과 그분의 은총을 통해, 나는 고난을 극복하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illegible]



## 5 장 최초의 큰 기만

인간 역사의 초기부터 사단은 우리 인류를 속이기 위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그는 지상의 거민들을 자기편에 가담시켜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하여 싸우게 하고자 열망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이 사실은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이 압제적이며 피조물들의 복리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늘에서 역설해 온 주장을 끊임없이 거스르는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더욱이 그 무죄한 부부를 위하여 마련된 아름다운 가정을 바라볼 때 사단의 질투는 불타올랐다. 그는 그들을 타락시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그들을 자신의 세력 아래 예속시켜 세상의 소유권을 얻어 이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결심하였다.

(1)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에 즉각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복종한느 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16)*

아담과 하와는 이미 이 위험한 원수에 대하여 경고를 받아왔으므로 만일 사단이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나타냈다면 그는 즉시 거절당하였을 것이었다. 그러나 사단은 그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적을 숨기고 암암리에 활동했다. 그는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던 뱀을 그의 매개물로 이용하여 하와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 3:1).

만일 하와가 그 유혹자와 말을 교환하지 않았다면 그는 안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감히 그 유혹자와 이야기하고자 함으로 그의 간계에 빠져버렸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법으로 정복을 당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의심하고 이론을 제기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대신에 사단의 간계가 숨겨 있는데 불과한 사람의 이론을 받아들인다.

(2) 아담과 하와는 어떤 큰 기만에 빠지게 되었는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4)*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3:2-5). 그는 그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전보다 더욱 큰 지혜를 소유하게 되어 그 존재가 더욱 고상한 상태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와가 유혹에 넘어지고 그의 영향을 받아 아담도 죄를 짓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는 전혀 반대되는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창조주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유를 속박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큰 지혜와 높은 위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상했다.

(3) 그들의 범죄로 인해 즉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사야 59:2)*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창세기 3:22-23)

#### (4) 죄는 무엇인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1서 3:4)

#### (5) 죄의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23)

그러나 범죄한 후 아담이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임을 깨달았을까? 그는 사단이 더욱 고상한 상태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확신케 했던 그대로 된 것을 발견했는가? 만일 죄를 범함으로 크게 좋은 일이 생겼다면 사단은 인류의 은인임이 입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고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이 될 수 없음을 발견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범한 죄의 형벌로 그가 취함을 입었던 흠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9). “너희 눈이 밝”으리라고 한 사단의 말은 오직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만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악이 무엇임을 알고 범죄의 쓴 열매를 맛보았다.

에덴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 열매는 생명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하였을 것 같으면 그는 끊임없이 자유롭게 그 나무에 접근하여 영원히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자 그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길이 끊어져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선고는 완전한 생명의 파멸을 알려 준다.

(6) 영생을 얻기 위한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인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10)*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멸(不滅)은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 아담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그의 후손에게 전해줄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희생으로 불멸을 그들의 손에 닿는 곳에 두지 아니하셨을 것 같으면 타락한 인류에게 소망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불멸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요 3:36)리라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이 무한히 귀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롬 2:7)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 (7) 죄인의 영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7)*

아담에게 불순종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고 약속한 유일의 존재는 큰 기만자뿐이었다. 그리고 에덴동산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와에게 말한 뱀의 선언은 영혼 불멸에 관한 최초의 설교였다. 그러나 오로지 사단의 권위에 기초를 둔 이 주장이 그리스도교계의 강단에서 반향되고, 마치 우리의 첫 조상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과 똑같이 인류의 대다수가 그것을 즐겨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겔 18:20)고 선언하셨지마는 범죄한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사단의 말을 이처럼 쉽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이처럼 불신하는 사람들의

이상한 반항에 대하여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8) 하나님께서는 죄와 죄인의 불멸을 어떻게 막으셨는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24)*

만일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었다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따라서 죄도 사라지지 않고  
영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룹 천사와  
불꽃 검이 “생명나무의 길”(창 3:24)을  
지켰으므로 아담의 가족 중 한 사람도 그  
장벽을 통과하여 생명을 주는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죽지  
않을 죄인은 한 사람도 없다.

(9) 최후의 심판 이후 악한 이의 몸과  
영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28)*

(10) 주님께서 구원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에스겔 33:11)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9)

인류의 타락 후 사단은 그의  
사자들에게 사람의 선천적 불멸성에 대한  
신조를 가르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이 오류를  
받아들이도록 미혹당한 사람들이 죄인이  
영원한 불행 중에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인도하였다. 대리자들을 통하여  
활동하고 있는 암흑의 왕은 하나님을  
보복심이 많은 폭군처럼 나타내되,  
그분께서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지옥에 던져넣고 그들에게 언제나  
그분의 분노를 느끼게 해주고 그들이  
영원한 불꽃 속에서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 몸부림치는 동안 그들의  
창조주는 만족한 마음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신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사단은 자기의 특성을  
인류의 창조주시며 은인이신 하나님께  
돌린다. 잔인성은 사단의 본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최초의 큰  
반역으로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러웠다. 사단

자신은 인류를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멸망시키는 원수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자기의 희생물로 확실하게 장악한 다음에 자기가 초래케 한 그 파멸을 보고 기뻐 날뛰고 있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온 인류를 자신의 그물 안으로 끌어 넣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아담의 자손은 하나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11)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과 하나님의 정부를 설명하는 네 가지 특성은 무엇인가?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셀라) (시편 89:4)*

오늘날도 사단은 옛날 우리의 첫 조상들을 정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주께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정부의 지혜와 그분의 율법의 공의로움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오늘날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자기들의 극악성과 반역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그들 자신들보다 더욱 나쁘게 나타낸다. 큰 기만자는 자기 자신의 성격에 있는 무서운 잔인성을 하나님 아버지께 전가시키고 자기가 그런 불공평한 통치자에게 복종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추방되어 매우 그릇된 대우를 받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애쓰고 있다. 그는 여호와의

가혹한 명령에 속박되는 것보다 자기의 관대한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세상에 선전한다. 이와 같이 그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여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게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12) 공정한 심판이 이뤄지고 나면 악인은 무엇만 남게 되는가?

*또 너희가 악인을 뱉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4:3)*

죽은 악인들이 영원히 불타고 있는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과 사람이 짧은 일생에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 내내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교리는 사랑과 자비의 감정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심지어 공의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에도 얼마나 모순되는가. 그러나 이 교리는 널리 유포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교의 신경(信經)이 되고 있다.

(13) 사단은 어떻게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가?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므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에스겔 28:18)*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고통을  
목격하고 기뻐하시고 그분께서 지옥의  
불속에 던진 자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의 소리를 듣기를 즐거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될 것인가?  
그 처참한 부르짖음이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의 귀에 음악으로 들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악인들에게 과해지는 끝없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와 평화를  
파괴한 악으로서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 그것은 얼마나 두려운  
모독인가! 마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가 그 고통을 영원히 계속시키시는  
이유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 신학자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 불쌍한 희생자들은  
자비의 희망없이 끊임없는 고통으로 미친  
것처럼 되어 저주와 참람된 말로 분노를  
쏟아 놓으므로 그들의 죄의 무게를  
영원히 더하고 있다.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죄가 계속하여 증가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영원 지옥설로 말미암아 초래되어온  
악은 사람의 마음으로 능히 헤아릴 수  
없다.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고 동정이  
넘치는 성경의 가르침이 미신으로  
어두워지고 공포로 가리워졌다.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에 물들여 놓은 거짓된  
색깔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자비로운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심지어 증오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인가?  
강단에서의 가르침을 통하여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무서운

견해는 수천, 아니 수백만의 회의론자와 무신론자들을 만들어 내었다.

(14) 이 구절은 거짓된 교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4:8)*

영원 지옥설은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 마시우고 있는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짓 교리 중 하나이다(계 14:8, 17:2 참조).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들이 이런 이단설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단에서 그것을 전한다는 것은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버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가르쳤다는 이유로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바벨론에 선고된 정죄를 받게 된다. 우리는 바벨론의 가증한 독주를 마시게 된다.

(15)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이들과 죄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12)*

또한 영원 지옥설을 반대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과 반대되는 오류에 빠져 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므로 그분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영원한 지옥 불에 던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영혼이 근본적으로 불멸이라고 믿고 있으므로 인류는 최종적으로 모두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두려운 경고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고자 위협하는 것이며 글자 그대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죄인이 비록 이기적 쾌락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할지라도 최후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리는 하나님의 자비만 생각하고 그분의 공의를 무시하기 때문에 육신적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악인들로 하여금 죄악을 범하기에 담대하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벌하실 것에 대하여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증거를 주셨다. 그분께서 무한히 자비하시므로 죄인에게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신다고 스스로 안심하는 자들은 갈바리의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한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신 것은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모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죄인과 같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외면당하셨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의

심장은 터지고 그분의 생명은 부서졌다.  
이 모든 희생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처럼 큰 희생으로써  
마련된 속죄에 동참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누구나 자기 자신이 그 죄책을 지고  
범죄의 형벌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16) 구원을 얻기 위해선 어떤 필수  
요건을 달성해야 하는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6-7)*

이 허락은 오직 목마른 자들에  
한해서만 주어진 허락이다. 오직  
생명수의 필요성을 깨닫고 모든 다른  
것들을 상실하고서까지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공급될 것이다.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이겨야 한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사 3:10, 11)고 말씀하신다.  
현인은 “죄인이 백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녕히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전 8:12, 13)라고 말한다. 그리고 바울은 죄인에 대하여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롬 2:5, 6, 9)라고 증거한다.

(17) 하나님께서는 반항과 죄에 대해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라<sup>7</sup>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6-7)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시편 145:20)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품성과 죄를 취급하시는 당신의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정부의 권위와 능력은 반역을 진압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보응하는 징벌을 나타내는 모든일도 자비롭고 오래 참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의 품성에 완전히 부합될 것이다.

(18)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에게 어떤 간청을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이사야 1:18)*

하나님께서서는 어떤 사람의 의지나 판단도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노예적인 굴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께서 사랑을 받으실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를 충분히 깨달은 후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특성들에 대하여 올바르게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분께 이끌려가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구주께서 가르치시고 친히 모본을 보이신 사랑과 자비와 친절의 원리는 하나님의 품성과 의지의 사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외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으셨다고 주장하셨다.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구주의 교훈과 완전히 일치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온 우주의 유익을 위하여 또한 당신의 심판을 받는 대상자의 유익을 위하여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부의 율법과 당신의 품성과 공의로움에 일치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들로 사람들 주위에 둘러 주시고  
당신의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자비의 노력으로 그들을 따라오게 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무효로 만들고 그분의  
자비를 거절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서도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멸시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증히 여기시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고함을 오래 참으신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야 할  
결정적 시간이 올 것이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당신의 편에 묶어  
두실까? 그들이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강요하실 수 있겠는가?

(19) 악한 이들이 주님의 존재를  
경험하면 어떤 말을 울부짖게 되는가?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요한계시록 6:16)*

사단을 지도자로 삼고 그의 세력에  
의하여 지배되어 온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교만과 허위와 방탕과 잔혹이 그들의  
품성으로 굳어졌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 세상에서 그들이 멸시하고  
증오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겠는가? 진리는 거짓말하는 자에게

결코 듣기 좋은 것이 될 수 없다. 온유는 자부심과 교만으로 더불어 화합할 수 없다. 순결과 부패는 서로 용납되지 않는다. 이타적 사랑은 이기적인 사람에게 아무런 매력이 없다. 완전히 세속적이요 이기적인 관심에 몰두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늘이 어떤 기쁨을 줄 수 있겠는가?

회개의 기회를 무시한 악인들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허비한 자들이 갑자기 하늘로 옮겨져 언제나 그곳에 있는 고상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상태를 목격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얼굴에서 기쁜 빛이 흐르고, 하나님과 어린양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곡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부단한 빛의 줄기가 구원 얻은 자들에게 비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때에 하나님과 진리와 성결에 대한 증오심으로 충만해 있는 자들이 하늘의 무리들과 섞여서 그들의 찬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을까?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양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들에게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여러 해 동안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순결을 좋아하는 마음을 배양하지 않고, 하늘의 방언을 결코 배우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너무 늦었다.

하나님을 반역한 생애가 그들을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늘의 순결과 성결과 평화는 그들에게 괴로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태우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20) 모든 인간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운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포를 하셨는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

마치 홍수 때의 물과 같이  
마지막날의 불은 악인들의 불의가  
도무지 고쳐질 수 없다는 하나님의  
판결을 선포한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의향이 없다. 그들의  
의지는 반역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므로 생명이 끊어졌을 때, 그들의  
생각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다. 범죄에서 순종으로,  
증오에서 사랑으로 돌이키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

(21) 하나님께서 아벨을 살인한 가인을  
살려두심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5)

하나님께서서는 살인자 가인을  
살려두심으로 죄인에게 마음대로 죄악의  
길을 계속해서 걷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예증을 세상에  
보이셨다. 가인의 가르침과 모본의  
영향으로 그의 자손들의 다수가 죄에  
빠지게 되어 마침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창 6:5)이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창 6:5, 11)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에 대한 자비로써  
노아 시대의 악한 거민들을  
제거해버리셨다. 그분께서는 자비로써  
부패한 소돔의 거민들을 멸망시키셨다.  
사단의 기만적 능력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찬성과 칭찬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반역으로 인도한다.  
가인의 시대,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롯의 시대에 그러하였고 또한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역시 그렇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는 것은  
우주에 대한 자비에서이다.

(22) 그리스도의 희생은 어떻게 모든  
회개하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로마서 5:17-20)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온 인류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은 빠짐없이 무덤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구원의 계획으로 모든 사람은 그들의 무덤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23) 악인이 받게될 형벌의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27)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행 24:15). “아담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 그러나 이렇게 부활하는 자들 중에는 뚜렷이 구별되는 두 부류가 있다. “무덤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8, 29).

생명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계 20:6)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범죄의 형벌, 곧 “죄의 삶”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형벌을 받되, 그 기간과 정도는 다르나  
최종적으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자비에  
모순되도록 죄인을 죄 있는 그대로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범함으로 스스로 간직할 자격이 없음을  
입증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취하신다.

(24) 죄를 짓는 영혼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가?

*죄의 삶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23)*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바다 1:16)*

이리하여 죄와 그 결과로 초래된  
불행과 파멸은 모두 종식된다.

시편기자는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 … 나이다”(시  
9:5, 6)고 말한다. 요한은 계시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조금도 음조가  
틀리지 않는 완전히 조화된 훌륭한

찬양의 노래를 듣는다.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들었다(계 5:13 참조). 거기에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영원한 고통 중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참람된 말을 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구원 얻은 자의 찬미 소리와 함께 지옥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혼합되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25) 모든 죽는 이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전도서 9:5)

영혼 불멸설의 근본적 오류는 죽은 후에 의식이 있다는 교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 교리는 영원 지옥에 관한 교리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며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도 반대된다. 일반적 신앙에 의하면 구속함을 받아 하늘에 있는 자들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특별히 그들이 남겨 두고 간 친구들의 생애를 잘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산 자가 당하는 어려움을 아는 것, 그의 사랑하는 자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는 것과, 그들이 당하는 생애의 모든 슬픔, 실망, 고통 등을 보는 것이 어찌 행복이 될 수 있겠는가? 지상에 있는 그들의 친구들 위를 배회하는 자들이 누리는 하늘의 축복이 어느 정도로 즐거움이 되겠는가?

회개하지 않은 자의 영혼은 그 숨이 끊어지자마자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다는 믿음은 얼마나 역겨운 것인가? 그들의 친구들이 준비되지 못한 채 죽어서 영원히 죄와 저주를 받는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무서운 생각으로 발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다윗은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없다고 말한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시 146:4).

(26) 죽은 자는 할수 없고, 산 자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음부가 주께 사례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사야 38:18-19)*

히스기야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그의 생명이 15년간 더 연장되리라는 응답을 받았을 때, 왕은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였다. 그 노래에서 그는 그가 기뻐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부가 주께 사례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 ... 하리이다”(사 38:18, 19). 세상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신학은 죽은 의인이 하늘에서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 불멸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죽음 가운데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랄 수 없었다. 그의 말은 시편 기자의 말과 일치한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시 6:5),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시 115:17).

(27) 다윗 왕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사도행전 2:29)*

다윗이 부활할 때까지 그 무덤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의인이 죽을 때 승천하는 것이 아님을 증거한다.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것은 다만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힘입어 성취된다.

(28) 부활의 날에 망자들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28-29)

(29) 그분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이가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은 재림때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되는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12)

그리고 바울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고전 15:16-18)라고  
말하였다. 만일 4천년동안 의인이 죽을  
때에 즉시 승천하였을 것 같으면, 바울이  
어떻게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부활은 전혀  
필요 없을 것이다.

(30)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그분은 어떤  
약속을 남기셨는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2-3)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떠나시려 할 때 그들이 미구에 당신께로  
올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실을 더욱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 준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18).  
그러나 바울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형제들에게 알려 주고 그때에  
무덤의 속박을 깨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영생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한다.

(31) 의로운 자들과 악한 이들의 그들의  
상을 받기 전에, 우선 어떠 위대하고  
엄숙한 항위가 일어나야 하는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7)

누구든지 그 복된 하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생애가 조사받고  
그들의 품성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통과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는다. 그 심판은 사람이 죽을 때에 받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말에 유의해 보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행 17:31). 여기서 사도는 세계의 심판을 위한 특별한 때, 곧 미래의 어떤 때가 작정되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동일한 기간에 대하여 유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리고 그는 다시 에녹의 말을 인용한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사람을 심판하사 ...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유 6, 14, 15).

만일 죽은 자들이 이미 하늘의 복락을 누리고 있거나, 혹은 지옥의 속에서 부르짖고 있다면 장래의 심판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런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애매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그 문제들은 보통의 두뇌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솔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보급되어 있는 이런 교리에서 지혜와 공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의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거하다가 심판의 때에 그들의 사건을 조사받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 25:21)는 명령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악인들은 고통의 장소에서 끌려나와 온 땅의 심판장에게 “저주를 받을 너희여 나를 떠나 ...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마 25:21, 41)는 선고를 받게 되는가? 아,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에 대한 수치스런 모독이다.

(32) 부활 전까지 죽은 자들은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 12:2)*

사람이 죽을 때 의인은 상급을 받고 악인은 형벌을 받는다는 말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부조들과 선지자들도 그런 증언을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와 사도들도 그런 일에 대하여 암시조차 하지 않았다. 성경은 사람들이 죽는 즉시 승천하지 않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그들은 부활할 때까지 자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살전 4:14; 욥 14:10-12 참조).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어지는 바로 그날에 그 사람의 생각은 없어진다(전 12:6 참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은 침묵 중에 있다. 그들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것은 피곤한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휴식이 아닌가!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길거나 짧거나 간에 단지 일순간에 불과하다.

그들은 자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나 영광스러운 불멸을 입을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고전 15:52-55).

(33) 부활한 의로운 이들은 어떤 승리의 말을 외치게되는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55)*

그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 그들은 그의 생각을 그치게 되었던 그 순간을 생각해 낼 것이다. 그들의 마지막 감정은 죽음의 고통이었고 마지막 생각은 그들이 무덤의 세력 아래 넘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때 제일 처음으로 일어나는 그들의 기쁜 생각은 다음과 같은 승리의 함성 가운데 메아리칠 것이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

*나는 인류 최초의 기만은 “너는 죽지 않게 되리라”는 것임을 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음의 결과는 몸과 영혼의*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생을 위한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을  
받아 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대 쟁투의 증거와, 하나님의 정부를  
권위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득하려고 하는 사단의 노력을 볼 수  
있따.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은 의롭고,  
공정하고, 자비로움을 성경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공정한 상을 받은 이후, 악한 자들은  
지옥불에 의해 파멸되는 것이 하느님의  
자비임을 안다. 그들은 영원히 고통받는  
대신, 몸도 영혼도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죽은 이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음을 안다.  
그들은 감정도, 생각도, 어떤 지각도 없이  
그저 무덤에서 잠자듯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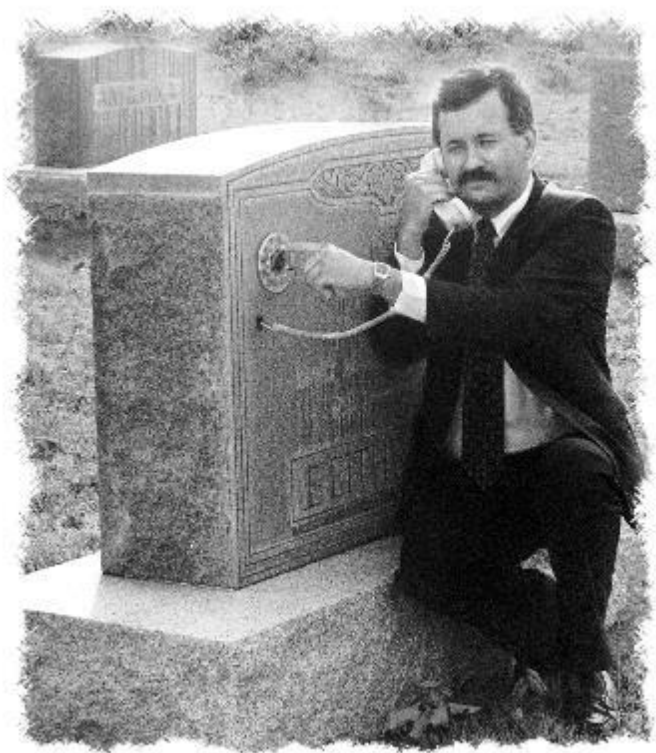
망자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세상의 불의에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나를 안심하게 한다. 그들은 무덤에서  
잠자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충실히 믿는이들 사이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illegible]



## 6 장

### 죽은 사람들이 우리와 교통할 수 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천사들의 봉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귀중한 진리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일반 신학상 오류로 애매해지고 곡해되었다. 영혼 불멸의 교리는 처음에 이교 철학에서 빌어온 것인데 큰 배교의 암흑 시대에 그리스도교와 결합되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분명히 가르친 성경의 진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입은 “부리는 영”을 죽은 자의 영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들은 성경이 하늘의 천사의 존재와

인간의 죽음이 있기 전 인류의 역사와의 천사들의 관련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는다.

(1) 죽은 이들이 무덤에 들어간 이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욥기 7:9)*

죽은 후에 사람에게 의식이 있다는 교리, 특별히 죽은 자의 영이 생존한 자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돌아온다는 신조가 현대 강신술의 길을 열어 놓았다. 만일 죽은 자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 나가는 일이 허락되고 그들이 세상에서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지식을 가질 특권을 받는다면 그들이 현재 살아 있는 자들을 깨우쳐주고 가르치기 위하여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일반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만일 죽은 자들의 영이 세상에 있는 그들의 친구들 위에서 배회하고 있다면, 그들이 친구들과 교통하고 죄악을 경고해 주고 슬픔을 위로해 주도록 허락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죽을 때 사람에게 의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영화롭게 된 영들이 전달하는 거룩한 빛처럼 그들에게 이르러오는 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신성하게 간주되는 하나의 매체가 있는바 사단은 그것을 통하여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한다. 사단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타락한 천사들은 마치 영계에서 온 사자들처럼 나타난다. 악의 왕은 산자와 죽은 자를 교통하게 해준다고 공언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매혹적 감화를 끼친다.

(2) 악의 무리가 가지고 있으며, 세상을 속이고자 사용하는 능력은 무엇인가?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요한계시록 16:14)*

그는 죽은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 그 모조품은 완전하다. 똑같은 모습, 말씨, 음성을 놀랍도록 명확하게 재생해낸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복락을 누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 그들은 위협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 기만적 교리 죽은 자들이 실제로 돌아와서 그들과 교통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일단 믿게 되면 사단은 준비되지 못한 채 무덤으로 간 사람들이 나타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서 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며 거기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그리하여 의인과 악인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는 오류가 널리 유포된다.

영계에서 온 방문자들처럼 가장한 자들이 나타나 때로는 정확히 성취될 경계와 경고를 말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면 그들은 성경을 믿는 믿음을 직접 손상시키는 교리를 제시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 있는 친구들의 복리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가장 위험한 오류를 암암리에 넣어 준다.

그들이 약간의 진리를 말하고, 때로는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도 예언하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 거짓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쉽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가장 신성한 성경의 진리처럼 맹목적으로 믿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되고, 은혜의 성령은 멸시당하고, 언약의 보혈은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 영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심지어 창조주를 그들 자신과 동일한 수준에 둔다. 그리하여 그 큰 반역자는 새로운 변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이 싸움은 하늘에서 시작되어 세상에서 약 6천년간 계속되어 오고 있다.

(3) 이 성경의 예시에서, 악령은 누구를 사칭하고 있는가?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 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상 28:14)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신비한 현상을  
오로지 영매의 속임이나 요술로  
간주하고자 노력한다. 물론 진정한  
것처럼 보이되 실상은 속임수에 해당하는  
것이 많지마는 또한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나는 때도 많다. 근대 강신술의  
효시가 되는 신비한 두드림은 인간의  
속임수나 숨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악한 천사들이 직접 행한 일이었으며  
그들은 그렇게 하여 사람을 멸망시키는  
가장 성공적인 기만 중 하나를 가져오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강신술을 단순히  
인간의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믿음으로  
기만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 능력의 표현을  
목격하게 되면 그들은 기만당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4) 사단의 능력을 나타내는 세 가지  
징후는 무엇인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9-10)

그런 사람들은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행한 이적들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간과해 버린다. 바로의 요술장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기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한 것은 사단의 도움에 의한 것이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전에 이와 유사한 사단의 능력의 표현이 있을 것을 증언한다. 사도 요한도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큰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계 13:13, 14)리라. 여기에 예언된 것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다. 사람들은 사단을 대리하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적에 속을 것이며, 단순한 속임수에 속을 것이 아니다.

#### (5) 사단의 최고의 기만은 무엇인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꾀술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후서 11:13-14)*

속이는 일에 오랜 경험을 가진 암흑의 왕은 온갖 부류와 상황속에 있는 사람들을 교활하게 시험한다. 그는 교양있고 세련된 사람들에게 강신술을 극히 세련된 지적 방면에서 제시함으로 많은 사람을 자신의 울무에 걸려들게 하는데 성공을 거둔다.

강신술이 주는 지혜는 이미 사도 야고보로 말미암아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약 3:15)다. 그러나 그 큰 기만자는 이러한 은닉(隱匿)을 자기의 목적달성에 가장 잘 맞도록 감춘다.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찬란한 하늘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그는 빛나는 천사처럼 극히 매력적인 자태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는 고상한 주제를 제시함으로 사람들의 이성애 호소한다. 그는 황홀한 장면을 나타내는 환상을 좋아한다. 그는 사랑과 자비에 관한 웅변적 묘사를 통하여 사람들의 애정을 이끈다. 그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크게 비약시키도록 자극하고, 그들이 가진 지혜를 자랑하게 하여 결국 그들의 마음으로 영원하신 분을 멸시하게 만든다.

구주를 심히 높은 산으로 인도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화를 보여 줄 수 있었던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감각을 왜곡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험을 제시할 것이다.

(6) 악한 사람이 욕망하는 금기된 지식과 자만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야고보서 3:15)*

사단은 에덴에서 아침으로, 금지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킴으로, 스스로 높고자 하는 야망을 자극시킴으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런 종류의 악을

간직함으로 사단 자신이 타락하게 되었으므로 그는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멸망시키고자 목적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 선악을 알”(창 3:5)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강신술은 “사람이 향상하는 동물이므로 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향상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그리하여 사단은 참된 경배의 대상이 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의와 완전 그리고 사람이 도달하여야 할 참된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의 대신에, 죄와 거짓이 많은 사람 자신의 본성을 경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판단의 유일한 척도 혹은 인격의 표준으로 대체시켰다. 이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이다.

(7) 인간이 유일하게 칭송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렸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6)*

지적 · 영적인 면 모두에서 바라봄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다. 사람의 마음은 숙고하도록 허락된 사물에 점차적으로 적응된다. 그러므로 마음은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동화된다. 사람은 자신이 정한 순결과 양선과 진실의 표준이상으로 향상할 수 없다. 만일 자아를 자신의 최고의 이상으로 삼는다면 그는 자기

이상의 표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점점 더 퇴보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은 사람을  
고상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면 그는 필연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

(8) 방종을 물리치기 위해 인간은  
하나님과 협력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고린도전서 9:5)*

강신술은 교양 있고 지적인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보다 방탕하고 향락적이고  
육욕적인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는 교묘한  
수단을 덜 쓰더라도 그것을 나타낼 수  
있다. 그들은 강신술의 저속하고 야비한  
형태 가운데서 그들의 성향에 일치하는  
것을 발견한다. 사단은 인간성의 모든  
연약한 상태를 연구하여 각 사람이  
범하기 쉬운 죄를 찾아내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쓴다.  
그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일에 있어서도  
과도히 행하게 함으로써 부절제를 통하여  
육체적 · 정신적 · 영적 힘을 약화시키도록  
유혹한다.

그는 정욕의 방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이미 파멸시켰고 지금도  
파멸시키고 있으며 사람의 전반적인  
성격을 짐승처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업을 완성하고자 악령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참된 지식은 사람을 모든 율법에 구애되지 않게 해준다.” “무엇이든지 존재하는 것은 옳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범하는 모든 죄가 무죄다.” 만일 사람들이 이처럼 욕망이 최고의 법이고 자유는 방종이며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고 믿게 된다면 도처에 타락과 부패가 편만할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 충동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을 열렬하게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자제의 고삐는 정욕의 손에 쥐어지고 마음과 정신의 힘은 동물적 성질에 지배된다. 그리하여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기 양양하게 자신의 그물속으로 몰아넣는다.

(9) 강신술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가?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31)*

그러나 아무도 강신술의 거짓 주장에 속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율무를 발견하기에 충분한 빛을 세상에 주셨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강신술의 바로 기초가 되는 이론은 가장 분명한 성경의 진술과 반대된다. 성경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 생각이

소멸되고, 해 아래서 행하는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그들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의 기쁨이나 슬픔도 모른다고 한다.

(10) 강신술이 심각한 문제임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에 관여하는 사람에게 어떤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가?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0:27)*

또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영혼과 교통하노라고 주장하는 모든 일을 분명히 금하셨다. 구약 시대에도 오늘날의 강신술자들과 같이 죽은 자와 교통하노라고 주장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신접한 자”들이 다른 세계에서 온 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을 성경은 “귀신의 영”이라고 말한다(민 25:1-3; 시 106:28; 고전 10:20; 계 16:14 참조).

신접한 자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로 선언되었고, 그것은 죽음의 형벌에 해당되는 것으로 엄하게 금지되었다. 박수라는 이름이 오늘날은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람들이 악한 신과 교통한다는 주장은 암흑 시대의 지어낸 이야기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백명, 여러 천명, 아니 여러 백만명의 신봉을 얻어 과학계와 일반 종교계에 침투해 들어가고,

법조계에서도 호감을 얻고 심지어는 궁정에까지 들어가 있는 이 강신술의 큰 기만은 옛날에 금지되고 정죄되었던 “신접한 자”가 새로운 탈을 쓰고 부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강신술의 정체에 대하여 다른 아무 증거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 영들이 의와 죄를 구별하지 않고,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가장 타락한 사단의 종들을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사람들 중 가장 비열한 자가 하늘에서 높임을 받는다고 주장함으로 사단은 세상을 향하여 말한다. “그대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과 성경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다. 그대들 마음대로 살라. 하늘은 그대들이 영원히 살 곳이다.” 강신술의 교사들은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히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말 2:17)고 실제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 ... 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사 5:20)라고 말한다.

(11) 강신술에 관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성경인 이유는 무엇인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17)*

사도들의 모양으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이 속이는 영들은 사도들이

세상에 있을 때 성령의 지도로 기록한 바와는 전혀 반대되는 말들을 한다. 그 영들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부인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하늘가는 길을 보여 주는 빛을 꺼버린다. 사단은 성경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거나 인류 역사의 초기에는 혹시 적당하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성경을 경시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버려야 할 것이라는 확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기 위하여 기이한 이적을 행한다. 강신술은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는 그것을 통하여 그가 하고자 하는 바를 세상 사람들에게 믿게 할 수 있다. 사단은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할 성경을 마음대로 그가 원하는 곳에 숨겨 놓고 세상의 구주를 보통 사람에 불과하게 만들어 버린다. 마치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파수병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시키는 대로 그분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처럼 강신술의 신봉자들 역시 우리 구주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이적적인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나타내려고 노력한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뒤에 숨겨 버리고 그들 자신의 이적에 주의를 집중시킴으로 그것들이 예수님의 업적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주장한다.

(12) 강신술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도행전 8:9-10)

오늘날에는 강신술이 그 형태를  
변하여 지금까지의 불미한 점들을 감추고  
그리스도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강단과 인쇄물을  
통하여 그의 주장은 일반 사람들에게  
여러 해 동안 제시되어 왔다. 그러므로  
그것으로써 그 정체가 드러나 있다. 그  
가르침은 부인되거나 숨겨질 수가 없다.

최근에 새로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강신술은 이전 것에 비해 묵인할 여지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교활해진  
기만성으로 그 위험도는 실제로 훨씬 더  
높아졌다. 강신술이 이전에는 그리스도와  
성경을 부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그 둘을  
다 받아들이고 믿노라고 공언한다.  
그러나 성경은 거둬나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석되는  
한편, 그 엄숙하고 요긴한 성경의 진리는  
효력을 상실해 버렸다.

사랑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그것은 약한 감상주의로  
전락되어 선과 악을 거의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견책,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등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  
사람들은 십계명을 죽은 문자처럼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다. 귀를  
즐겁게 하고 매혹시키는 우화적

이야기들로 감각을 빼앗긴 나머지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부인하도록 이끌린다. 그리스도께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부인당하고 있다. 그러나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너무도 어둡게 하였기 때문에 그 기만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

(13) 기만으로 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하는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15)*

강신술의 기만적 능력과 장차 그 영향이 미칠 위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많은 사람은 단순히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강신술과 장난한다. 그들은 강신술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공포에 떨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금지된 땅에 들어가게 되면 큰 힘을 가진 파괴자는 그들의 의지를 꺾고 그들에게 능력을 행사한다. 그들이 일단 권유를 받아 그들의 마음을 사단의 지시에 굴복시키게 되면 그는 그들을 사로잡는다. 그리하면 그들의 힘으로 그 유혹적 미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열렬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능히 그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원해 낼 수 있다.

(14) 어떤 죄이든 용인하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사야 59:2)*

죄악적 품성의 특성에 빠져 있고, 알고 있는 죄를 고집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사단의 유혹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보호에서 자신을 분리시켜 놓으므로 악한 자가 기만할 때 아무런 방비 없이 쉽게 사로잡히게 된다. 그와 같이 그들 자신을 그 유혹자의 권능에 맡기는 자들은 그들의 길이 어디에서 끝날 것인지 거의 깨닫지 못한다. 그들을 넘어뜨리게 되면, 그 유혹자는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파멸시키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할 것이다.

(15) 많은 이들이 “강한 현혹”을 믿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데살로니가후서 2:10-11)*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사 8:19, 20)리라.

만일 사람들이 사람의 본질과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하여 성경이 것처럼 분명하게 말한 진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강신술의 주장과 그 이적에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을 수반하는 사단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에 부합되는 자유를 택하여 그들이 좋아하는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빛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걷지 않고, 사단이 그들의 주위에 올무를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그의 포로가 된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살후 2:10, 11)심이다.

(16)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진실의 편에 설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게 되는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38-39)

이 강신술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사단과 그의 사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들은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더불어 싸워왔다.  
사단은 하늘 사자들의 능력으로  
격퇴하지 않으면 한 치의 땅도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구주께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그를 대항하셨던 것처럼 능히 그를  
대항할 수 있다. 사단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와 같이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만을  
지지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훈을  
왜곡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위험한 시대에 설 자들은 성경의  
증언을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

(17) 죽은 자를 사칭하는 악력을 맞이할  
때, 우리를 기만으로부터 보호해 줄  
진실은 무엇인가?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전도서 9:5)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이단설을 주장하는 악마의 영들과 대결하게 될 것이다. 이 영들은 가장 부드러운 우리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이적들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죽은자는 아무것도 모르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악마의 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18)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시험의 때”에 우리는 어떤 약속을 붙들 수 있는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 3:10)*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계 3:10)가 우리 앞에 박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지 아니한 모든 자들은 기만당하여 패배하게 될 것이다. 사단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의 속임수를 더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사람들이 그의 유혹에 자원하여 넘어질 때에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진리의 지식을 열심으로 탐구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자 애쓰고, 이와 같이 함으로 싸움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안전한 방어를 발견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계 3:10)리라고 언약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사단에게 정복당하도록 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즉시 천사를 보내 주실 것이다.

(19) 우리 스스로 진실을 찾고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적인 신념을 맹목적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되는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4:6)*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고자하는 무서운 기만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사 28:15). 여기에 묘사된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는 완고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죄인에게 형벌이 없으며 사람이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모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별히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한 자라는 말은 환난의 날에 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늘이 제공한 진리를 버리고 그 대신에 사단이 제공한 거짓 피난처, 곧 강신술의 속임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지적하기 위하여 사용한 말이다.

(20) 모든 강신술의 기반이 되는, 사단이 에덴동산에서 한 거짓말은 무엇인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4)**

사단은 오랫동안 온 세상을 기만하는 그의 마지막 운동을 위하여 준비하여 왔다. 그는 에덴동산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창 3:4, 5)리라고 하와에게 한 말로써 그의 사업의 기초를 놓았다. 그는 강신술의 발전을 통하여 그의 기만의 절정을 향한 길을 한 걸음씩 준비해 왔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아직까지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아 있는 마지막 시기에 그것을 실현할 것이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보매 개구리같은 세 더러운 영이 ...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계 16:13, 14).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그

기만의 대열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기만에 굳게  
사로잡혀 있다가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그때에야 깨어날 것이다.

(21) 대 쟁투가 끝날 때 “거짓의  
피난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이사야  
28:17)

나는 내 공부를 통해, 세상 마지막 날에  
악의 왕이 죽은 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리라는 사실을 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영혼의 불멸과 죽음이후에 의식이 있다는  
사단의 두 기만을 밝혀 주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내가 속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을 안다. 나는 내가 구하고자 하면  
진실을 얻을 것이며, 사단의 기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약속을 붙들겠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세상  
마지막날에 일어날 흉흉한 일들에 대해

알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리라는 약속을 해주심에 감사하다. 그분의 권능으로 나는 영생을 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 7 장 절박한 최후의 위기

(1)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어떤 것이나 마찬가지로인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10)*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되어 왔다. 사단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인류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 오는 목적이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버리게 하거나 그 일부분을 버리게 함으로써 성취되든지 간에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똑같다. 율법의 한 조목을 범하는 자는 온 율법에 대한 경멸을 나타낸다. 그의 감화와

행동은 범죄의 편에 있으며 그는 결국 율법을 “모두 범한 자”(약 2:10)가 된다.

(2)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격하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7)*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와의 계명간의 싸움, 성경에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에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가하고 있다.

(3)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담겨있는  
율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이 싸움에서 진리와 의를 대적하기  
위하여 연합할 기관들은 오늘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것처럼 고난과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별로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생애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자는 극히 적다.

#### (4) 불신의 근원은 무엇인가?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예레미야 8:9)*

불신은 단순히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보급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둥이 되는 교리들을 부인하게  
되었다. 영감으로 기록된 위대한 창조의  
진리, 인류의 타락, 속죄,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은 소위 그리스도교계의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사실상 거부당하고 있다.

자신의 지혜와 자주성을 자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자기들의 약점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들은  
성경에서 흠을 찾아내고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이론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이 그들의 우수한 학식과 재능에 대한  
증거인 것처럼 생각한다.

많은 목사들은 그들의 교인들에게,  
많은 교수들과 교사들은 그들의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었거나 폐기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글자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조소와 모멸을 당해야 할 것처럼 생각한다.

(5) 진실을 거부하면 어떤 위험을 맞이하게 되는가?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요한복음 18:37)*

진리를 거절함으로 사람들은 그 진리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함으로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게 된다. 거짓 교리와 이론의 우상을 만드는 것은 마치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나타냄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짓된 품성을 가지신 분으로 믿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좌정해 계실 마음의 자리에 철학적 우상을 앉혀두고 있다. 한편 살아 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창조의 업적으로 당신을 계시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분을 경배한다. 많은 사람들은 천연계의 하나님은 부인하면서 천연계를 신과 같이 숭배한다. 비록 그 형식은 다를지라도 옛날 엘리야 당시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던 것과 똑같은 우상 숭배가 오늘날의 그리스도교계에도 존재한다.

소위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신, 철학자와 시인과 정치가와 문필가들의 신, 교양 있는 상류 계급의 신, 많은 대학과 심지어 어떤 신학교의 신들은 페니키아의 태양신 바알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

(6) 하나님의 율법은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시편 119:160)*

오늘날 신속히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현대적 교리, 곧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는 교리는 그리스도교계에서 받아들이는 가장 큰 오류로써 그것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욱 대담하게 공격하는 것이 없고 그것보다 이성(理性)의 명령을 더욱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없으며 그 결과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없다. 모든 나라에는 법률이 있어 그것을 존중하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요구한다. 어떤 정부도 법률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천지의 창조주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릴 율법을 가지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유명한 목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규에 대하여 그것이 백성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이유로

국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공공연하게 가르쳤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성직자의 직분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국가의 법률을 무시하여도 큰 범죄가 되는데 모든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법을 유린하는 죄는 더욱 중하지 않겠는가?

## (7) 부정직이란 무엇인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1서 3:4)*

국가로서도 그 법률을 없애 버리고 국민을 제각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용납할 수 없는데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폐지하시고 죄인을 정죄하고 순종하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표준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해 버리는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 결과는 이미 입증되었다. 무신론이 지배권을 장악했던 당시의 프랑스에서 일어난 장면들은 무서운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한에서 벗어나면 가장 잔인한 폭군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 그 당시의 세상에 증명되었다. 의의 표준이 제거될 때 악의 왕이 그의 권력을 세상에 확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이 거부되면 죄가 사악하게 보이지 않고 의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정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지배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게

된다. 그들의 위험한 가르침을 통하여 본성적으로 지배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심중에 불순종의 정신이 부식되어 무질서하고 방종한 사회 상태를 초래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조소하는 한편 사단의 속임수는 열광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의 정욕대로 행동하여 이교도들에게 심판을 초래한 그 죄악을 자행하고 있다.

(8) 하나님의 율법을 뒤로 제칠 때의 결과에 대해 성경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7)*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경하게 여기도록 가르치는 자들은 불순종을 거두기 위하여 불순종의 씨를 심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과해진 제재가 완전히 제거되면 미구에 인간의 법률도 무시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정직한 행위와 탐심과 거짓말과 속임수를 금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세속적 번영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유린하려 한다. 그러나 그 율법을 버린 결과로 그들이 예기하지 못한 일이 생길 것이다.

율법이 효력을 잃어버리면 누가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인가? 재산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폭력으로 이웃의 소유를 약탈하게 될 것이므로 강한 자가 제일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생명 그 자체도 존중히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결혼 서약도 더 이상 가정을 보호해 주는 거룩한 방호벽이 되지 못할 것이다. 힘있는 자는 원하기만 하면 그 이웃의 아내를 폭력으로 빼앗게 될 것이다. 다섯째 계명은 넷째 계명처럼 무시될 것이다.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그들의 타락한 마음의 욕망을 이룰 수 있다면 그들은 그런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문명 세계는 절도와 암살자의 소굴이 되고 평화와 안식과 행복은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9) 하나님의 율법을 지치지 않으면 어떤 축복을 잃게 되는가?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잠언 3:1-2)*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의무에서 해방되었다는 교리는 이미 사람들의 도덕 관념을 약화시키고 이 세상에 죄악의 물결이 들어올 수문을 열어 놓았다. 불법과 방탕과 타락은 견잡을 수 없는 조수처럼 우리를 휩쓸고 있다. 사단은 가정에서 활동하고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공언하는 곳까지 그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질투, 시기, 위선, 이간, 경쟁, 불화, 신성한 의무에 대한 배반, 육욕의 방종 등이 있다. 사회 생활의 기초와 뼈대가 되어야 할

종교적 원칙의 전체적 체계와 교리는  
마치 흔들거리는 덩어리처럼 바야흐로  
부서져 없어지려 한다.

(10) 사람을 지배하는 이들을 부정직이  
조종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좇는데서 돌이켜  
포학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발하니 (이사야 59:13)*

법정은 부패되고 위정자들은 이득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육욕적 쾌락을 따라  
움직인다. 부절제가 많은 사람들의 재능을  
흐려 버렸기 때문에 사단은 그들을 거의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 법률가들은  
그릇된 길로 빠지고 뇌물로 매수당하고  
기만당한다. 음주와 술주정, 정욕적인  
질투, 온갖 종류의 부정직이 그 법을  
취급하는 자들 사이에서 자행된다.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사 59:14).

11)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저희 마음은 살쥔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119:70)*

로마교의 최상권 시대에 편만했던  
영적 암흑과 죄악은 로마교가 성경을  
금지함으로 생긴 필연적 결과였다.

그러나 종교 자유 아래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이 시대에 불신이 편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일과 그 결과로 생기는 타락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이제는 사단이 성경을 빼앗음으로 세상을 더 이상 그의 지배 아래 둘 수 없으므로 그는 동일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을 쓴다. 성경을 믿는 믿음을 파괴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목적을 성취하는 길이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신조를 소개함으로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치 성경의 교훈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범죄하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한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의 종교 단체들은 성경에 명백히 나타나 있는 인기없는 진리를 듣기를 거절하고 그 진리를 대적하여 싸우는 중에 그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채택했으며 회의론의 씨를 널리 뿌려온 입장을 취해 오고 있다.

(12) 하나님의 율법의 안정성에 대해 어떤 성스러운 약속이 주어졌는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마태복음 5:17)*

(13)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12)

(14) 많은 이들이 경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8-11)

또한 넷째 계명의 요구가 사람들에게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제칠일 안식일을 준수할 것이 부과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그리하여 많은 인기 있는 교사들은 그들이 이행하고 싶지 아니한 의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율법도 안식일도 모두 내어 버린다.

안식일 개혁 운동이 확대됨에 따라서  
넷째 계명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일은 거의  
세계적인 일이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불신에 대하여,  
강신술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심의  
거룩한 율법을 멸시하는 일에 대하여  
문을 열어 놓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계에 있는 죄악에 대한  
무서운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다.

(15) 성경은 악의 세력이 무엇을  
바꾸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 7:25)*

(16) 진실을 대체하는 미묘한 거짓에 대해  
우리는 어떤 경고를 받았는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8)*

그러나 바로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급속히 퍼져가는 타락적 풍조가 소위  
“그리스도인 안식일”(일요일을 가리킴)을  
모독하는데서 기인된다는 것과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으로 사회의 도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참된 안식일의 교리가 가장 널리 전파된 미국에서 특별히 강조된다. 미국에서는 도덕적 개혁 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중요한 운동 중 하나인 금주 운동이 흔히 일요일 휴업 운동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일요일 휴업 운동자들은 그들 사회의 가장 큰 복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자처한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마치 금주와 개혁 운동의 원수처럼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오류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어떤 운동이, 본질적으로 선량한 어떤 다른 운동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를 좋은 것으로 만들어 준다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다. 우리가 독소를 건전한 음식물에 혼합시킴으로 그 정체를 가장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독성 자체를 변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독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만큼 위험은 더욱 심하다.

거짓 것과 혼합시켜 그것을 참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책이다. 일요일 휴업 운동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개혁 사업과 성경과 일치되는 원칙들을 강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과 연합할 수 없다. 사람의 계몽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제외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17) 부분적의 불복종에 대한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5)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요한계시록 3:14-16)

오늘날의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불신자들과의 한계를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과 연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들을 하나의 단체로  
연합시켜 강신술의 대열에 끌어  
넣음으로써 그의 사업을 강화시키고자  
결심하고 있다.

이적이 참 교회의 분명한 표라고  
자랑하는 법왕교도들은 이적을 행하는  
이 능력에 쉽게 기만당할 것이며  
진리의 방패를 버린 개신교도들 역시  
미혹당할 것이다. 법왕 교도들과  
개신교도들과 세속인들은 한결같이  
경건의 능은 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이 연합을 온  
세계를 교화시키는 큰 운동이요,  
오랫동안 고대했던 복천년을 도래케  
하는 운동이라고 볼 것이다.

(18)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한 인류는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이사야 24:4-5)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 들이기  
위하여 천재 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그는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욥에게 고통을 주도록  
허락을 받자 그는 얼마나 신속하게  
양무리와 가축들, 종들과 가옥들과  
자녀들을 휩쓸어 버리고 순식간에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였는가. 피조물들을  
보호하여 파괴자의 손에서 지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계가 여호와와 율법을  
무시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 일, 곧 당신의 율법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자들에게서  
당신의 보호의 손을 거두시고 당신의  
축복을 땅에서 철회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자들을  
지배한다. 그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잘되고 번영하게

하며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괴롭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게 한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 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어지게 한다.  
그는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쏘아  
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사 24:4, 5).

(19) 기만당한 이들이 사단의 계획에  
따라 행동할 때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요한복음 16:2)*

그 때에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자극한 부류에 속한 자들은 범죄자들에게 언제나 무언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이다.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 버리는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막아 버리는 자들이라고 선포될 것이다.

그리하여 옛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받은 그 비난이 반복되고 똑같은 동기가 조성될 것이다.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네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앓음이라”(왕상 18:17, 18). 거짓된 무고로 말미암아 분노한 사람들은 반역한 이스라엘이 엘리야에게 취했던 것과 똑같은 태도를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취할 것이다.

(20) 마지막 날에 사단이 그의 목적을 위해 많은 이들을 속이기 위해 사용할 기만의 원천은 무엇인가?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요한계시록 16:1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24)

강신술을 통하여 나타난 이적을 행하는 능력은 사람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결심한 자들을 대적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영들과 교통하는 자들은 일요일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국가의 법률을 하나님의 율법과 똑같이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큰 죄악을 한탄하고 도덕적 타락의 상태가 일요일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증언을 지지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큰 분노가 격발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마지막 싸움을 할 때 사단이 사용하는 방침은 그가 하늘에서 대쟁투를 시작할 때 사용한 것과 똑같다. 그는 하나님의 정부를 굳게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밀히 그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왔다.

(21) 유혹과 조종이란 방법을 사용해, 사단은 우리에게 임박한 위기에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8)*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의 의지와 양심을 결코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단의 상투적 수단은 자기가 설복할 수 없는 자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무자비하게 압박하는 일이다. 위협과 폭력을 통하여 그는 양심을 지배하고 자기 자신이 승배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종교적세력과 세속적 권세를 통하여 활동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법률을 강요하도록 사람들을 충동한다.

(22) 사단과 그를 따르는 이들을 중오하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2:17)*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제지를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은 완고와 고집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단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인하는 목사들은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주장할 것이다. 의회와 법정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짓 증언으로 정죄당할 것이다. 그들의 말에 대하여 거짓을 조작하고 그들의 동기는 가장 나쁘게 해석될 것이다.

(23)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들이 그들의 양심을 어기도록 지도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요한계시록 13:17)*

개신교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분명한 성경상 논증을 부인할 때 그들은 그들이 성경으로 믿음을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고자 열망할 것이다. 비록 그들 자신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교계에서 하고 있는 일을 양심적으로 거부하고 법왕권의 안식일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쫓박하도록 이끌게 될 길을 오늘날 따라가고 있다.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존중하게 하고자 매수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그들은  
신적 권위의 부족을 압제적 법령으로  
보충할 것이다. 정치적 부패는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소멸시키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까지도 그 위정자와  
입법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그처럼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양심의  
자유가 더 이상 존중되지 않을 것이다.

절박한 싸움에서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에 나타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계 12:17).

*나는 성경에서 분명히 묘사하고 있는  
“이제까지 없었던” 최후의 위기가  
세기말에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사단이 에덴동산에서 죄를 붙여넣은  
이후부터,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과 그분의 정부를 공격하고자 하는  
것임을 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요한계시록 12:17은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스러운 율법을 어기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변형시키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이  
성스러운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사단과  
인간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을  
안다. 다니엘 7:25.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주의해야 함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어기는 것은 모두를 어기는 것과 같음을  
안다. 야고보서 2:10.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충성된 추종자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께 충성된 자가  
되기로 결정했다. 요한계시록 14:12.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

---

---

---

---

---

---

---

---

---

---



## 8 장

### 믿음의 기준이 되는 성경

(1) 사단의 기만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4)*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사야 8:20)*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거짓 교사의 영향과 암흑의 영들의 기만적 능력을 대항하는 그들의 방어책으로 삼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사단은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단의 속임수를 폭로해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될 때마다 악의 왕은 일어나서 더욱 맹렬한 활동을 한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마지막 싸움에 혼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 큰 기만이 미구에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도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으로 밖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모든 말과 모든 이적이 시험을 받아야 할 것이다.

(2)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간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10)*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은 반대와 조롱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견딜 수 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을 견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되도록 행동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르러 올 것이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박두해 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3)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예언을 제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4)*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신명기 29:29)*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돌아가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 그리고 천사들도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에 새겨주고자 힘썼다. 그러나 제자들은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시적 해방만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희망의 중심이 되어

있는 주님께서 굴욕적인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었던 말씀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졌다. 그러므로 시련의 때가 이르자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음이 발견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그분께서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들의 희망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림으로 그들이 환난의 때에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4) 우리가 구원받는 때가 다가왔음을 알 수 있는 마지막 날의 세가지 경고는 무엇인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요한계시록 14:6-10)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선포하는 것으로 나타내시리  
만큼 그렇게 중대한 경고를 사람들에게  
주실 때 그분께서는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 기별에 유의하기를 바라신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계 14:9-11  
참조)하는 자에게 무서운 심판이 선고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알기 위하여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귀를  
돌려 진리를 듣지 않고 지어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5) 바울은 교리적인 진실을 좇지 않고  
사욕을 추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좃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디모데후서 4:3-4)*

그 때가 분명히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진리가, 죄악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망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들이 좋아하는 속임수를 제공해 준다.

(6)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교리적인 진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사야 8:2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 회의에서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 신앙에 관하여 그 찬부를 결정할 때는 위에 열거한 것들의 전부나 그 하나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하는 분명한 말씀에 일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7) 우리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사도행전 17:11)

사단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주의를 끌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를 깨닫기 위하여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감독이나 목사나 신학 교수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바라보도록 이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8) 성경에 대한 이해를 지도자에게 받은 유대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3)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실 때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사장들과 관들까지라도 그분을 믿었다. 그러나 대제사와 나라의

지도적 인물들은 주님의 가르치심을  
책잡고 부인하기로 결심하였다. 비록  
그들이 주님께 대하여 죄를 찾아내고자  
노력하였으나 헛된 수고만 하였고 주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편견 속에 넣어 두었고 그들은  
그분의 제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분께서  
메시아 되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를  
거부하였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그들을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온  
사람들이었으며 백성들은 그들의 권세에  
아무 이의 없이 굴복해 왔었다. 사람들은  
“우리의 법관들과 학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일  
그분이 그리스도이면 이 경건한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겠는가?”라고 말하였다. 그와  
같은 지도자들의 영향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주를 거절하게 되었다.

그 제사장들과 법관들에게 작용한  
그 정신은 지금도 매우 경건한 것으로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하여 여전히  
나타나 있다. 그들은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연구하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속한 사람의 수가 많은 것,  
재산이 풍부한 것, 인기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진 믿음을 가진 소수의  
가난하고 인기없는 자들이라 하여  
떨시한다.

(9) 기만을 막는 유일한 원천은 무엇인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15)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한 부당한 권위의 행사는  
유대인들이 흠어진 후에도 계속될 것을  
미리 아셨다. 주님께서는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세속적 권세를 존중하는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보셨는데, 그 일은 각 시대를  
통하여 교회에 참으로 무서운 저주가 되어  
왔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무서운 책망과 사람들에게 그 눈먼  
지도자들을 좇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경고는 미래의 세대에 대한 경계로  
기록되어 있다.

(10) 성경에 따르면, 누가 우리 사이에서  
거짓 교리를 전파하게 되는가?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후서 2:1)

성경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충분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 주도록 성직자에게 맡기고자  
하는 자들이 많다. 오늘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배운 것 이외에는 자기들의 신앙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노라고 공언하고 있다. 그들은 구주의 가르침은 거의 유의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면서 목사들의 말은 맹목적으로 믿는다.

그러면 목사들은 과오가 없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들이 빛을 가진 자들이란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그들의 지도에 맡길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은 세속의 길을 끊어버릴 도덕적 용기가 부족하므로 학자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고 그들 스스로 연구하기를 싫어하므로 속절없이 오류의 쇄사슬에 매여 있게 된다. 그들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진리를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수반되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빛에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지도자의 반대에 맹종한다. 비록 이성과 양심이 각성되어 있을지라도 그 기만당한 사람들은 감히 목사들과 다르게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개인적 판단과 영원한 유익은 다른 사람의 불신과 교만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하게 된다.

(11) 구원을 위한 진실을 구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12)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소유하고서도 그릇된 견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생애만 올바르면 무엇을 믿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애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우리의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 빛과 진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을 특권을 이용하기를 게을리하면 우리는 사실상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우리는 빛보다 어두움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12) 성경에 대한 무지가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6:25)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온갖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해서 과오와 죄를 범했다고 핑계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갈 때 여러 갈림길이 있는 곳에 이르자 거기에는 각각 어디로 가는 길인지 표시해 놓은 안내판이 서 있었다. 만일 그 사람이 그 안내판을 무시하고 그의 생각에 옳게 보이는 길을 택한다면 그가 아무리 진실할지라도 그는 필경 잘못된 길에 들어서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의 교훈을 잘 알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바를 우리 스스로 알게 하신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말씀하셨다. 젊은이와 늙은이를 막론하고 무식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서 면제되거나 놓여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과 율법의 원칙과 그 요구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의도를 가진 것만으로 넉넉지 못하다.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목사가 그에게 옳다고 말해 주는 것으로 넉넉지 못하다. 그의 영혼의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그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자기의 확신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목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임을 아무리 확신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 그는 하늘가는 여로의 모든 노정(路程)이 표시된 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일이나 추측으로 해서 안 된다.

(13)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지시하고 있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사야 28:10)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서 빛 가운데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여 그의 본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모든 이성을 가진 자의 첫째요 최고의 의무이다.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사상을 검토해 보고 성경의 절과 절들을 비교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스스로 자기의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14) 하나님의 의지를 찾고자 우리가 성경을 볼때 우리는 어떤 약속을 붙들 수 있을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17)*

성경 연구와 기도의 정신 성경에 가장 분명히 계시된 진리들이 위대한 지혜를 가진 것으로 자처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의심과 흑암속에 묻혀 버렸는데 그들은 성경에는 그 사용된 언어에 나타나지 아니한 신비하고 은밀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가르친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막 12:24)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표상이나 상징으로 사용된 것 외에는 그 언어의 분명한 뜻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17)고 약속하셨다. 만일 사람들이 읽는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을 잘못 인도하고 혼란케 하는 거짓 교사들이 없었을 것 같으면 천사들을 기쁘게 할 일이 성취되어 오늘날 오류에서 방황하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우리 안으로 인도되었을 것이다.

15)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12-13)*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정신력을 다 사용하고 하나님의 오묘를 이해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할 수 있는데 까지 우리의 이해력을 써야 한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온순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배우는 자의 진정한 정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경상 어려운 문제들은 철학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과학의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직하는 것과 동일한 자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경건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정신으로 나가서 위대하신 영원 자존자(永遠 自存者)에게서 지식을

얻고자 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악한 천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함으로 진리의 감동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16) 성경의 지혜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31-32)*

*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와 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시편 19:7)*

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오묘라고 선고해 버리거나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지나쳐 버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교훈으로 충만해 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실천하기를 원치 않는 진리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감아 버리기 때문이다.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 연구에 사용되는 지성의 능력에 의존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전심 전력하는 태도, 곧 의를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

(17) 영적인 진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14)

성경은 기도 없이 연구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를 것처럼 중요한 것들을 이해할 필요를 쉽게 느끼게 하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곡해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실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리고 그 말씀의 경고로 경계를 받고 그 약속으로 새로움과 활기를 얻게 하는 것이 천사들의 직무이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기원(祈願)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해야 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시 119:18). 이따금 유혹을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쉽게 기억할 수 없고 성경을 무기로 삼아 사단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신령한 사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위에 둘러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사 59:19)이다.

(18)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는 영적인 진실을 어떻게 상기시킬 수 있는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26)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미리 쌓아 두어야 위태한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교훈들을 우리의  
기억에 떠오르게 해주신다.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 119:11)고  
말하였다.

(19)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비극적인 결말은  
무엇인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28)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히브리서  
3:12)

영원한 구원의 가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회의론(懷疑論)의 침입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바로  
진리의 기둥들이 공격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의 불신에 속한 풍자(諷刺)와

궤변(詭辯), 교활하고 치명적인 교훈의 공격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사단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그의 시험을 적용한다. 그는 교육받은 자들에게는 과학적 반대 이론과 철학적 이론으로 대결하는 한편 무식한 자들에게는 희롱과 조롱으로 성경을 불신케 하거나 경멸하도록 공격하고자 계획을 세웠다.

심지어 경험이 별로 없는 젊은이들도 그리스도교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 의혹을 품게 된다. 이와 같은 청년기의 불신은 그것이 비록 미약할지라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신앙을 조소하고 은혜의 성령을 멸시하게 되었다(히 10:29 참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었던 전도 유망한 많은 사람들의 생애가 더러운 불신의 기운으로 시들어 버렸다. 인간 이성의 자랑스런 결정력을 의지한 나머지 그들이 하나님의 오묘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도움이 없어도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 있다.

(20)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었다면, 우리는 심판의 때에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가?

내가 그 삼분지 일을 불 가운데 던져 은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랴 13:9)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7-8)

시련의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겨울 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는 변함없이 남아 있지만 다른  
나무들은 잎이 떨어져 그 가지가  
벌거숭이가 된다. 이와 같이 지금은  
마음이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구별이 분명히 지어질 때가 이미 절박해  
있다. 반대여 일어나라. 완고와 억압이여  
다시 기세를 떨쳐 보라, 박해의 불길이여  
일어나라. 그리하면 반신 반의의  
위선적인 자들은 흔들리고 믿음을 버릴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과 같이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번영의 때보다 더욱  
강하고 더욱 밝아질 것이다.

나는 이 땅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사단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하나님의  
성스러운 말씀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방해할 것임을 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시험받게 될 것이며, 이를 견딜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많은 이들이 사욕을 좇고 그들의 죄악된, 속세를 사랑하는 마음과 반되되는 성경의 진실을 거부하는 마지막 날이 왔음을 안다. 그들은 사단의 기만을 기꺼히 받아 들인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성경을 통해 마지막 날에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거짓된 선생들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이 저지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하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매일 성경 공부를 해나갈 것이며, 다른 이들의 해석에 의존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시험의 때에 기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를 통해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굳건히 서있을 수 있다s.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 9 장 최후의 경고

(1) 요한계시록 14:8의 천사는 마지막 날에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는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4:8)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18:1-2)

(2) 요한이 이 경고를 요한계시록 18에서 다시 언급했을때 하나님을

충성으로 따르는 이들에게 어떤 간청을 하였는가 ?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8:4)*

이 성경절은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 준다(계 14:8 참조).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 준다. 여기에는 종교계의 두려운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어둡고 더욱 완고해져서 그들은 마침내 대담한 불신으로 무장하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하여 십계명 중 한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고 마침내 그들은 그 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백성에게 과해지는 멸시를 통하여 무시당하신다.

강신술의 교훈이 교회에 용납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던 제재가 사라지면 신앙의 고백은 가장 비열한 죄악을 숨기기 위한 구실이 될 것이다. 강신술의 이적을 믿는 신앙은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 주게 될 것이므로 악한 천사들의 감화를 교회 안에서 느끼게 될 것이다.

(3) 바빌론의 “죄”는 어느 수준에까지 이르렀는가?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요한계시록 18:5)*

바벨론의 죄는 차고 넘쳐 있으며 그의 멸망의 시기는 절박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충성된 자들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계 18:5, 4)도록 불려냄을 받아야 한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4) 거짓된 교리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추종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가진 악의 세력은 어떤 불이익을 주는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요한계시록 13:17)*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13:15)

세상에서 일어날 사태는 참으로  
무섭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항하는 싸움에  
가담하고 있는 세상의 세력들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계 13:16) 거짓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교회의 습관을  
따르도록 명령할 것이다. 거기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모두 법률상  
형벌을 받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선고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창조주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자들이 진노를 받을 것을 경고해준다.

(5) 짐승을 경배하기로 결정한 이들에게  
셋째 천사는 어떤 처벌을 내리는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요한계시록 14:9-10)

이와 같이 자기 앞에 분명히 문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한  
제도를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 대신에 순종하기로 택한 그 세력에 충성하는 표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한 하늘의 경고는 다음과 같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계 14:9, 10).

그러나 진리가 마음과 양심속에 분명히 알려지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 다만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는 그들 앞에 진정한 빛으로 결코 제시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모든 동기를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투쟁의 계쟁점(係爭點)에 관하여 기만당하도록 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 법령은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강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현명한 결정을 하리만큼 충분한 빛을 갖게 될 것이다.

(6) 성경의 따르면, 안식일에 관한 넷째 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에스겔 20:20)*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에스겔 20:12)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옛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칠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출애굽기  
31:16-17)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를 전파한 사람들이 흔히 세상을  
쓸데없이 놀라게 하는 사람들로 단순히  
간주되어 왔다. 종교적 제한이 미국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아무 근거도

없고 불합리한 것으로 단정되어 왔다.  
그리고 종교 자유의 옹호자였던 이 나라가  
그 외의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거론되면 오랫동안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건이 가까워 옴을 알게 되고 따라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7) 하나님은 누구를 “이스라엘의  
자녀들”로 생각하시는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9:6-8)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9:25-27)

(8) 마지막 날에, 사육을 추구하는  
대다수의 사람은 영적인 지도를  
누구에게 구하게 되는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좃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좃으리라. (디모데후서 4:3-4)

(9)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전하는  
메세지는 어떻게 전달되는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2)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다 같이 책망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듣기를 원하고,  
순수하고 솔직한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많은 개혁자들은 그들의 사업을  
착수할 때 교회와 국가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 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자  
결심하였다. 그들은 순결한 그리스도인  
생애의 모범을 통하여 사람들을 성경의  
교훈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희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나타나 그로 하여금 악한 왕과 반역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들은  
성경의 솔직한 말씀, 곧 그들이  
제시하기를 주저해 왔던 교훈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들은 진리와,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험에 대하여  
열렬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였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 경고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10) 요한계시록 14에 있는 세 천사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14-16)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3:18-19)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 4:20)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교육 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권함을 받게 될 것이다.

(11) 바벨론의 거짓 교리가 드러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진정한 교리를 진심으로 따르는 이들은 무엇을 구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31-32)*

바벨론의 죄들은 공개될 것이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침입, 법왕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 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이 그의 오류와 죄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온 진리를 거절함으로 타락한 교회라는 증언을 듣고 놀라게 된다.

사람들이 그들의 이전 지도자들에게 가서 사실이 그러냐고 열렬한 마음으로 질문하면 그 목사들은 지어낸 말을

들려주고 평안한 일을 예언하며, 그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각성된 양심을 진정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인간의 권위에 만족하고자 하지 않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라는 분명한 말씀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일반 지도자들은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권위를 의심받았을 때 격노한 것처럼 그 기별을 사단에게 속한 것이라고 배척하고 죄를 좋아하는 무리를 선동하여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할 것이다.

(12) 바빌론의 거짓된 교리 대신 하나님의 계명으로 따르기를 결정한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어떤 예언을 주고 있는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2:17)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마가복음 13:9-11)

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유린된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 돌아서면 사단은 분노하게 된다.  
그 기별에 따르는 능력을 보고 그 기별을  
반대하는 자들은 발광할 것이다.

성직자들은 그 빛이 그들의 교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거의  
초인간적 노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논쟁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교회는 국가의 강한 세력에  
호소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  
로마교도와 신교도들은 연합하게 된다.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더욱  
대담하고 결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법률의 힘이 가해질 것이다. 그들은  
과료와 투옥으로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버리게 하는 유혹의 수단으로 훌륭한  
지위가 주어지고 어떤 자들은 보수와  
특권이 제공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단호한 대답은 일찍이 루터가 그들과  
같은 환경에서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말이 될 것이다. 법정에  
소환된 사람들은 진리를 강력하게  
변호할 것이며, 그 말을 듣는 자들 중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진리를  
알려 줄 수 없었던 무수한 사람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13) 몇몇이 진실을 따르려고 결정했기 때문에, 심지어 가족 사이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형제가 형제를, 아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가복음 13:12)*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반역으로 취급받을  
것이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진  
부모들은 그 믿는 자녀들을 혹독하고  
가혹하게 취급할 것이며 주인과  
여주인은 계명을 지키는 하인을 박해할  
것이다. 애정은 끊어지고 자녀들은  
상속권을 잃고 가정에서 쫓겨날 것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딤후 3:12)고 한 바울의 말이  
문자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존중하지 않게 될 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추방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처럼 취급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을  
제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는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그 마음이 매우  
잔인해질 수 있다.

(14) 진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과 함께 무엇이 수반되어야 우리가 그것의 가장 큰 적수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1서 2:4-5)*

폭풍우가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 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재능 있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은 그 능력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안식일 준수자들이 법정에 소환되어 그들의 신앙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 그 배교자들은 그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비난하는 사단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된다. 그들은 거짓 보고와 암시를 통하여 그들을 반대하도록 통치자들을 선동할 것이다.

(15) 베드로와 요한처럼, 진실을 선포할 때 박해를 받는 이들의 결정은 무엇인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행전 4:19-20)

이와 같은 박해의 시기에 주님의 종들의 믿음은 시련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성실하게 경고해 왔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의지해 왔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말하도록 강권했다. 그들은 거룩한 열성으로 고취되고, 그들에게 강한 자극을 주는 거룩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되 그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다.

그들은 현실적 이해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명성이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반대와 비난의 폭풍우가 그들을 엄습하면 어떤 자들은 “만일 우리가 말한 결과가 이렇게 될 줄 미리 알았으면 우리는 침묵을 지켰을 것이다”라고 놀라서 부르짖을 것이다. 그들은 어려움에 둘러싸인다. 사단은 무서운 유혹으로 그들을 공격한다. 그들이 착수한 일은 그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성취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멸망의 위협을 받는다. 그들을 활기차게 해준 열성은 사라진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설 수 없다. 그 때에 그들은 속절없는 그들의 상태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피하여 힘을 구한다. 그들은 그들이 증거한 말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경고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음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넣어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16) 이 위협의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서 힘을 얻을 수 있는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यो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28-31)

반대가 더욱 격렬해짐에 따라  
하나님의 종들은 다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은 그들이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길이 옳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준다.  
그러므로 비록 시련이 계속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강해진다.  
싸움은 더욱 급박해지고 격렬해진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용기는 사태가  
어려워짐에 따라 더욱 강해진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간증한다. “우리는 세상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나누어 어떤 부분은 요긴하고 다른

부분은 요긴하지 않다고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간여할 수 없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권세를 이미 정복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정복된 세상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17) 우리가 기대 없이 예수를 섬길 때,  
우리는 어떤 처우를 기대할 수 있는가?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9)*

사단이 존재하고 그리스도교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 가지  
형태의 박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의  
원리이다. 암흑의 군대와 대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의 손에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의 종의 감화로  
빠앗길 때 놀라서 그를 공격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의 모범으로 견책을 받은  
악인들은 악한 천사들과 연합하여  
매혹적인 시험으로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때에는 압제적 권력을 써서  
양심을 강요하고자 할 것이다.

(18) 이 환난의 때에 지상의 지도자들을  
조종하는 것은 누구인가?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1)

그러나 예수님께서서 인간의  
중보자로 하늘 성소에 계시는 동안  
성령의 제어하시는 능력이 통치자들과  
백성들에게 미치게 된다. 성령의  
능력은 여전히 나라의 법률들을 어느  
정도 통제한다. 만일 이 법률들이  
아니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통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대리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국가의 지도적  
인물들 가운데 당신의 대리자들을 가지고  
계신다. 원수는 자기의 종들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방해할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들은 거룩한 천사들의  
감화를 받아 단호한 논증으로 그런 제의에  
반대한다. 이와 같이 불과 소수의  
사람들이 강력한 악의 세력을 제지할  
것이다. 진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반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제지될 것이다. 마지막 경고가  
주어질 때 주님께서 오늘날 사용하고  
계시는 지도자들의 주의가 그 기별에  
집중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환난의 때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설 것이다.

(19) 인간이 마지막날의 경고 메시지를  
받아드릴 수 있게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는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2:28)*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아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호 6:3).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 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욥 2:23).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마쳐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기대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행 3:19) 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행 3:20)라.

(20) 표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알림에 따라, 사단은  
하나님의 영의 힘을 부정하고 많은  
이들을 속이기 위해, 그를 따르는 악의  
무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는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요한계시록 13:13)*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사단도 또한  
거짓 기사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까지 할 것이다(계 13:13  
참조). 이리하여 세상의 거민들은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게 될  
것이다.

(21)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거로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17-21)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선교인들에 의하여 전달된 인쇄물들은 감화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순종하는 일에 장애를 받아 왔다. 이제는 밝은 광선이 각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들은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줄을 끊어 버리게 된다. 이제는 혈연 관계, 교회 관계가 그들을 붙들어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귀중하다.

여러 기관들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결속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편에 서게 된다.

요한계시록 14를 통해 우리가 기만으로  
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경고를 내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주셔서,  
진실을 받아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대 쟁투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에 관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힘과, 그분의 계명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드린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이 진실을 배우는 것을 통해 내 책임은 이  
생명을 주는 메시지를 다른이들과 나누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

---

---

---

---

---

---



## 10 장 환난의 때

(1)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이 끝났음을 어떻게 알리실것인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1)*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쳐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행  
3:19)르는 “늦은비”(호 6:3)를  
받았으므로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마쳐진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계 7:2)을  
받았다.

그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계  
16:17)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계 22:11)고 엄숙히  
선언하시자 온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는다.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효는 찼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는 바야흐로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어지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게 된다.

(2) 억제가 되거됨과 첫번째 부활 사이에  
일어날 재앙은 무엇인가?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 때에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다니엘 12:1)*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인다.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악인들을 누르고 있던 억제는 제거되고 사단이 마침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났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유린하였다. 악인들은 그 은혜 시대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고 계속적으로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거두워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 마귀에게서 방어되지 못한다. 사단은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환난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3)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이 찍힐 때까지, 인간 감정의 거센 바람을 막아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7:1)*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감정의 거센 바람을 막아 주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폐허를 나타낼 것이다.

단 한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고 그 땅을 통곡의 소리로 가득해지게 했다. 다윗이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한 천사가 그 죄에 대한 벌로 무서운 멸망을 초래하였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거룩한 천사들에

의하여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파괴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악한 천사들에 의해서도 발휘될 것이다. 파괴력은 이제 준비되어 있다. 각 곳에 폐허 상태를 가져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다.

(4) 악인의 마음에 분노와 핍박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의 두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12)*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그리고 그들은 천연계의 두려운 재난과, 지상을 비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인간의 투쟁과 유혈 사태의 장본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마지막 경고에 따르는 능력은 악인들을 격노케 해왔다. 그들의 분노는 기별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일어나고 사단은 증오와 박해의 정신을 극도로 격발시킬 것이다.

(5) 그리스도가 계시던 때와 동일하게, 스스로를 영적이라고 자부하는 대부분의 이들은 어떤 종교 의식을 하겠는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5:8-9)*

하나님의 임재가 마침내 유대 민족에게서 떠나갔을 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사단의 지배 아래 가장 무섭고 흉악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생각했다. 성전에서의 봉사는 계속되었고, 희생 제물은 더럽혀진 그제단 위에 드려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흘리고 그분의 종들과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백성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게 해달라는 기원이 매일 상달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소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결정이 선고되고 세상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 후에도 땅 위에 사는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간 사람들에게 의하여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악의 왕이 그의 무서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충동할 그 극악 무도한 열성이 하나님께 대한 열성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6)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하면 어떤 일을 하겠는가?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요한복음 16:2)*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13:15)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교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덕지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교회의 제도와 국가의 법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이 그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모든  
국가들이 혼란과 무법 상태에 빠지는  
것보다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더욱  
낫다고 역설할 것이다. 1800년 전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똑같은 이론을 제기했다. 교활한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요 11:50)고 말하였다.

이 이론은 결정적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마침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성별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종의 법령이  
반포될 것이다. 그들은 가장 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선고를 받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유럽의 로마교도들과 미국의  
타락한 개신교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7)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살당하는 일을 어떤 끔찍한 사건에  
비교하고 있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넌을 얻으리로다  
(예레미야 30:7)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가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묘사한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찜이뇨  
슬프다 그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넌을 얻으리로다”(렘  
30:5-7). 야곱이 심한 고통을 당한 밤, 곧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자  
기도로 씨름하던 그 밤(창 32:24-  
30참조)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경험을 나타내 준다.

(8) 용은 누구인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찢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9)

(9)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킨 이들을  
용은 어떻게 대하는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2:17)

에서를 충동하여 야곱을 향하여  
군대를 진군시킨 것과 똑같이 사단은  
환난의 때에 악한 자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할 것이다.  
야곱을 비난했던 것과 똑같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일에 진력할  
것이다. 그는 세상을 그의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적은 무리는 그의 최상권을 거부하고 있다.  
만일 그가 그들을 세상에서 제거해 버릴  
수만 있으면 그의 승리는 완성될 것이다.  
사단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그들의 죄가 용서된  
것도 짐작한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문제가 하늘 성소에서 결정된 것은 모른다.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제거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죄는 용서해 주시면서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단은 그들이 자기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어 멸망시킬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

(11) 믿음과 면함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 3:10)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22)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열광하는 원수들에게 에워싸일지라도  
그들이 겪는 고민은 진리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그들은 아직껏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지나 않았는가, 혹은 그들의  
어떤 결점 때문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계 3:10)라고  
하신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키지 못하지나  
않을까 하고 두려워한다. 만일 그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보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고문이나 죽음 앞에서도  
위축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무가치함이 입증되고 그들 자신의  
품성의 결함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많은 죄를

이미 회개한 사실을 가리키면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사 27:5)고 하신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켜달라고 애원한다. 그들은 그들의 기도가 즉시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비록 극심한 불안과 공포와 고통으로 괴로움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간구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

(12)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고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 28:9)*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8)*

만일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상속권을 빼앗은 죄를 사전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심으로 그의 생명을 자비롭게 보호해 주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과 공포로 괴로워할 동안 만일 아직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절망이 그들의 믿음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애원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있는 동안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의  
죄는 이미 심판정에서 도말되었다. 그들은  
그 죄들을 다시 생각해 낼 수 없다.

(13) 작은 일에도 충성된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주시는가?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21)*

사단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상 생활의 사소한  
일에 나타나는 불성실을 간과해 버리실  
것이라고 믿게끔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서는 야곱에 대한 태도로써  
당신은 절대로 죄악을 시인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죄를 핑계하거나 숨김으로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채  
하늘의 기록이 남겨둔 모든 자는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안목에는 그들의  
행위가 더욱 가증하게 보이고 그들의 큰  
원수의 승리는 더욱 확실해진다. 하나님의  
날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는 자들은  
환난의 때에나 그 이후의 어떤 기간에 그  
준비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자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다.

(14) 진정한 회개의 과실은 무엇인가?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시편 38:18)

그 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밍게 보리라.  
(에스겔 36:31)

아무런 준비 없이 최후의 쟁투를  
맞이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절망끝에  
무서운 고민의 말로 그들의 죄를 자복할  
것이다. 그 때에 악한 자들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기뻐 날뛸 것이다. 그런  
고백들은 마치 에서와 유다의 고백과 같은  
성질의 것들이다. 그런 자복을 하는  
자들은 죄 자체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한다. 그들은  
진정으로 뉘우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형벌이 무서워서  
그들의 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옛날  
바로와 같이 그들은 형벌이 제거되면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돌아갈 것이다.

(15)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시련의 불을 통과할 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7)

야곱의 역사는 또한 속임을 당하고  
시험을 받아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라도

진정한 회개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께서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준다. 사단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고자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급한 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 주실 것이다. 사단의 공격은  
격렬하고 단호하며 그의 속임수는 무섭다.  
그러나 여호와와 의 눈은 당신의 백성을  
주목하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그들의 고난은  
크고, 풀무의 불꽃은 바야흐로 그들을  
태워 버릴 것처럼 보일 것이다.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단련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시련의 기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들이 가장  
순조롭고 번영하던 때의 주신 것과 똑같이  
강하고 부드럽다. 그러나 그들을  
풀무불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불타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16) 어떤 종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16)*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와 지연(遲延)과 주림에

견딜 수 있는 믿음, 곧 격렬하게 시련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할 믿음이 필요하다. 그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 야곱은 끈기 있고 확고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승리는 줄기찬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 주는 하나의 실증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자아를 기꺼이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꾸준하고 열렬하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온 심령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물결이 간구하는 자들 위에 밀려올 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어찌 그리 적은가!

(17) 지금과 앞으로 올 혼란의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붙들 수 있는 생명줄은 무엇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7)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11)**

오늘날 믿음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기만적 권세와 양심을 억압하는 법령에 굴복될 위험이 가장 크다. 비록 그들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지라도 그들은 환난의 때에 더욱 심한 난관과 고통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등한히 한 믿음의 교훈을 무서운 절망 가운데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8) 생명줄과 같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17)**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약속을 실증함으로써 하나님과 친숙해져야 한다. 천사들은 열렬하고 진실한 모든 기도를 기록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통을 등한히 하기보다 차라리 이기적 만족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극심한 빈궁과 가장 큰 극기는 그분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부귀와 명예와 안일과 우정보다 더 낫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 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재산과 가옥과 비옥한 토지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실제도 모른다.

(19) 우리의 영적인 생명줄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 친구, 혹은 우리의 종교 지도자에 의존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12)*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때가 곧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경험 즉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도 게을리하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당하는 환난이 가벼운 것이 상례이지만 우리 앞에 있는 위기는 그렇지 않다.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여도 그 시련의 크기를 여실하게 표현할 수 없다. 그 환난의 때에 각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겔 14:20).

(20)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인함을 합치면, 우리는 어떤 품성을 얻을 수 있는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4)*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와  
분리되어야 한다. 우리의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 자신을 당신께  
연합시키도록 초청하시되 우리의  
연합함을 당신의 능력에, 우리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에, 우리의 무가치함을 당신의  
공로에 연합시키기를 간청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험들은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 주는  
학교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앞에  
더욱 안이하고 즐거워 보이는 길, 곧  
우리가 택하기를 좋아할 그런 길이 아니라  
생애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길을 제시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품성을 그  
거룩하신 모본을 따라 이루는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리자들과 협력하는 일이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다. 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지연시키는 자들은 누구나 그들의 영혼을  
가장 무서운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

(21) 많은 이들을 속이기 위해 사단과  
악의 무리가 사용하는 세가지 전략은  
무엇인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데살로니가후서 2:9)*

미구에 하늘에는 이적을 행하는  
마귀의 능력을 알려 주는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이 나타날 것이다.  
마귀의 영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속임수로 그들을  
엮어매어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투쟁에 사단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것이다. 그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다 같이 속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할  
것이며 구주께 속한 칭호와 예배를  
요구할 것이다. 그들은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성경의 증거와  
반대되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았노라고  
공언할 것이다.

## (22) 기만은 어떻게 출현하는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24)*

큰 기만적 연극의 주역으로서 사단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의 성취로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노라고 공언해 왔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사단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 있고 광휘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그를 두르고  
있는 영광은 사람이 일찍이 목격한 일이

없는 찬란한 광경이다(계 1:13-15 참조).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부르짖는 승리의 함성이  
공중에 울려 퍼진다. 사람들이 그 앞에  
부복하여 그에게 경배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손을 들어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당신의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름답다. 우아하고 동정어린 음조로  
그는 일찍이 구주께서 말씀하신  
은혜로운 하늘 진리 중 어떤 것들을  
알려준다. 그는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으로 가장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축복한 그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한다. 그는 제칠일을  
거룩히 지키기로 고집하는 자들은 빛과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보낸 그의  
사자들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강력하고 거의 압도적인  
기만이다. 마치 마술쟁이 시몬에게  
속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무리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권능이라”(행 8:10)고  
말함으로써 그 마술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23) 하나님의 백성이 속지 않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사야 8:20)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만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다. 그의  
축복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곧 성경이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지리라고 한 바로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선언된다.

(24) 진정한 그리스도는 어떻게  
돌아오시는가?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30-31)

그리고 더욱이 사단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모조하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다. 구주께서는 이 점에 속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재림의 광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히 예언하셨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변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러하리라”(마 24:24-27). 이러한 재림은 위조할 수 없다. 온 우주가 그 사건을 알고 온 세계가 그 일을 목격할 것이다.

(25) 많은 이들이 속임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10)*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계를 사로잡는 그 강력한 미혹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그들은 그 기만자의 변장을 알아내게 될 것이다.

(26) 우리에게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세가지 계략은 무엇인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요한1서 2:16)*

그 시련의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시험의 체질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정적 증거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그들은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하여 성경,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인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그날에 설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방해할 것이다. 그는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세상 재물에 얽히도록 일을  
주선하고 그들이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게  
함으로 이 세상 걱정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놀리게 하여 마치 도적과 같이  
시련의 날이 그들에게 이르게 할 것이다.

(27) 이 큰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 충성된  
백성들은 어디를 안식처로 삼을 수  
있는가?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33:16)*

그리스도교국의 여러 위정자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서 정부의  
보호를 제거해 버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 준다는 법령을  
반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시와  
촌락을 떠나 가장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하여 함께 무리를 지어 거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은 산악들로  
이루어진 요새에서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피에몽 골짜기에 숨어 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땅의 높은 곳을 성소로  
삼고 “견고한 바위”(사 33:16)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28) 많은 이들이 믿음 때문에 갇히게  
됨에 따라, 그들은 어떤 약속을 붙들 수  
있는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49:15-16)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30)

그러나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 높은 자와 낮은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백색인종과 유색 인종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극히 부당하고  
잔인한 속박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들은 괴로운 날을 보내고,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중 더러는 어둡고 불결한  
옥에 갇히어 기아로 거의 죽을 지경을  
당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어 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돕고자  
즐거이 손을 뻗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련의 때의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어버리실까? 그분께서는  
홍수 전 세상을 심판하실 때 충성된  
노아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평원의 도시들을 태워  
버리실 때 롯을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요셉을 잊으셨던가?  
그분께서는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의  
운명과 같이 만들겠다고 엘리야를  
위협하는 맹세를 했을 때 그를  
잊어버리셨던가? 그분께서는 풀무불에  
던져진 훌륭한 세 청년을 잊으시거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잊으셨던가?

비록 원수들이 그들을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감옥의 벽이 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차단시킬 수는 없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시험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 세속적인 모든  
권세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천사들은  
적막한 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빛과 평화를 줄 것이다. 그 감옥은  
마치 궁궐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처럼 그  
음산한 담벽이 하늘 빛으로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29) 이 구절에서 악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판결을 내리시리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 (이사야 28:21)*

하나님의 형벌이 당신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사람들이

범죄하는데 대담해지게 한다. 그러나 오래지체된다고 해서 분명하고 두려운 그 형벌이 결코 감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드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사 28:21). 우리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형벌하는, 일을 하시는 것은 비당한 일이다.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겔 33:11).

여호와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출 34:6)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출 34:7)으신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은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출 34:6, 7; 나 1:3).

의 가운데서 행하시는 무서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짓밟힌 율법의 권위를 옹호하실 것이다.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내릴 심한 형벌의 정도는 주님께서 공의를 집행하시 기까지 오래 참으신 것으로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분께서 헤아려 보시는 죄의 분량이 차기까지 형벌하지 않고 버려두시는 그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30) 불복종의 인이 찍힌 이들이 경험할 세가지 끔찍한 재앙은 무엇인가?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요한계시록 16:2)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요한계시록 16:3)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요한계시록  
16:4)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요한계시록 16:8)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요한계시록 16:10)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요한계시록 16:12)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움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요한계시록 16:18)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성소에서 마치실 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들에게 이미 경고한,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내릴 것이다(계 14:9, 10 참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려 하셨을 때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구원 직전에 이 세상에 내릴 더욱 무섭고 큰 규모의 형벌과 성질상 유사한 것이었다.

이러한 두려운 재앙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옹호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거룩하신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계 16:2-6).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형을 언도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그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아벨시대 이후로 모든 성도들의 피를 흘린 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과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고자 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재앙들은 전세계적인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지상의 거민들은 완전히 전멸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알려진 것들 중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에는 자비가 섞여 있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죄인이 범한 죄의 분량대로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진다.

(31) 죄인들이 굶주림에 시달릴 때,  
충실한 이들의 필요는 어떻게  
채워지는가?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피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33:15-16)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희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기근의 때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다. 악한 자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갈 동안 천사들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줄 것이다. 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있다.

(32) 야곱의 때와 같이 모든 희망이  
사라질때, 의로운 이들은 무엇을 간청해야  
하는가?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26)

그러나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보다 앞서 간  
순교자들처럼 곧 그들의 피로써 그들의  
증거를 인쳐야 할 것같이 보일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가고 그들이  
원수들의 수중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인지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무서운  
고뇌의 시기이다. 그들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다.

악한 자들은 기뻐 날뛰며 조롱한다.  
“이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서 건져내지 않으시느냐?” 그러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조롱하며 외치던  
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마 27:42)고 하던 말을  
기억한다.

야곱과 같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을 계속한다. 그들의 얼굴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 나타난다.  
모든 사람의 얼굴은 창백해진다.  
그러나 그들은 열렬한 간구를 그치지  
않는다.

(33)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충실하게  
따르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누구를  
명하셨는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11)*

사람들이 만일 하늘의 사물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능력 있는 천사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온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은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해  
내라는 사령관의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쓴  
잔을 마시고 피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그들에게 것처럼 큰 고통의 요소가 되는  
구원의 지연은 그들의 탄원에 대한 가장  
좋은 응답이다. 그들이 주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진심으로 기다리고자 애를 쓰고  
있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신앙 경험에서  
그처럼 활용해 보지 못하였던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때는 단축될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눅 18:7,  
8). 마지막은 사람들이 예기하는 것보다  
속히 올 것이다. 곡식은 거두어져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기 위하여

묶여지고 가라지는 멸망의 불에 던져지기 위하여 단으로 묶이게 될 것이다.

(34) 아버지의 명령으로, 어떤 예언의 약속이 이뤄지는가?

*천 인이 네 곁에서, 만 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시편 91:7)*

그들의 임무에 충실한 하늘의 파수병들은 계속하여 깨어 있다. 비록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을지라도 그들의 원수들은 경우에 따라 그 법령의 실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 결정된 날짜보다 미리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 충성된 각 사람을 둘러 진치고 있는 강한 수호자들의 경계망을 깨뜨릴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도시와 촌락들에서 피해 가다가 공격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을 해하고자 높이 들려진 검(劍)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무력하게 꺾여져 힘없이 떨어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사(戰士)의 모양을 한 천사들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각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지상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자 할 때 그들이 당해야 하는 위기를 주목해 보셨다. 그들은 마치 사로잡혀 정배당한 자들처럼 주림과 학대로 죽음의 공포에 떨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를 갈라놓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사로잡힘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말 3:17)라.

만일 이 때에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들이 피를 흘릴지라도 그 피는 하나님의 추수를 위하여 종자로 뿌려진 순교자들의 피와 같지 아니할 것이다. 이 때 그들의 충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은 자비의 물결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도록 그것을 물리쳐 버렸기 때문이다. 만일 의인들이 그들의 원수에게 희생 제물이 되도록 버려진다면 그것은 암흑의 왕의 승리가 될 것이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 27:5)신다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백성아 같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간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사 26:20, 21)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재림을 꾸준히 기다려온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구원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한다”고 말씀하실때 그분과 같은 편에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사단은 사자와 같이 잡아삼킬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음을 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받아드릴 수  
있는 지혜를 위해 기도해, 마지막 때에  
사단이 발휘할 기만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앞으로 올 “환난의 때”에 대해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심에 감사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총으로 내  
성품과 믿음을 강화시켜주셔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시련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사랑과 믿음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것을 맡긴다. 기적적인 구원 혹은  
순교를 통해, 그분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 그분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기도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 11 장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날 것이다.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가까워 오면 사람들은 그 미운 종교 단체를 근절하고자 공모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룻밤 사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반대와 책망의 소리를 완전히 침묵시켜버리고자 결정할 것이다.

(1) 믿음을 지킨 이이들에겐 어떤 것이 약속되어 있는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  
3:10)

하나님의 백성들은 옥중에서, 혹은  
산림과 산중의 적막한 곳에 숨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탄원한다. 그러는 동안  
각처에는 무장한 사람들의 단체들이 악한  
천사의 무리들에게 충동되어 살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 일어나실 때는 바로 위기  
일발의 순간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사 3:29, 30)라.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합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게 달려들려 할 때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는다.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  
주는 것처럼 보인다.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진다. 조롱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라진다. 그들은 살기  
등등한 분노의 동기를 잊어버린다.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 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한다.

(2) 믿음을 지킨 이들의 입술로 부터 어떤 기쁜 말이 흘러나오게 되는가?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사야 25:9)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를  
쳐다보라”는 분명하고 음악적인 소리를  
듣는다. 그들이 눈을 하늘로 돌리자  
그들은 약속의 무지개를 보게 된다.  
하늘을 덮고 있는 어둡고 험악한 구름이  
흩어질 때 그들은 스데반처럼 하늘을  
응시하게 된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당신의 보좌에 앉아계신  
광경을 보게 된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모습에서 그분의 겹비의 표를 찾아낸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주신 자도 나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 … 기를 원하옵나이다”(요 17:24)고  
간구하시는 음성이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듣는다.

다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음악적인  
승리의 음성을 듣는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한 자들이여 나오라. 그들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천사들과  
함께 다닐 것이다.” 그 때 믿음을 굳게  
지켜온 사람들의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에서 승리의 함성이 터져 나온다.

(3) 하나님의 입술로 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게 되는가?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요한계시록 16:17)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히 빛나고,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잇달아 일어난다. 의인들은 그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엄숙한  
환희로 바라보지만 악한자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본다. 천연계의  
만물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시냇물은 흐르기를 멈춘다. 검고  
짙은 구름이 솟아 올라 서로 충돌한다.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거기서 “되었다”(계 16:17)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4)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음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요한계시록  
16:18)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영광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산들은 마치  
바람에 불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거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난다.

바다에서는 사나운 물결이 서로 부딪친다. 마치 파괴 행위를 하는 악마의 소리같은 태풍의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하며 그 표면은 파괴된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산맥들은 가라앉고, 사람들이 거하는 섬들은 자취없이 사라진다. 죄악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 버린 항구들은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간다.

큰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계 16:19, 21)는다. 한 덩어리가 백근썸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된다. 지상의 오만한 도시들은 낮아진다. 세상의 큰 인물들이 그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허비하여 건축한 호화로운 건물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무너져 내린다. 감옥의 벽들은 무너지고 믿음 때문에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된다.

(5)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되는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7)*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단 12:2)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계 1:7)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6) 악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요한계시록 6:16)*

질은 구름은 여전히 하늘을 덮고 있다. 그러나 태양은 때때로 구름을 뚫고 마치 원한에 찬 여호와의 눈처럼 나타난다. 무서운 섬광이 하늘에서 흘러나와 불꽃으로 된 보(裸)처럼 지구를 둘러싼다. 무서운 우레 소리를 뚫고 신비하고 두려운 음성으로 악인들의 운명이 선고된다. 그 말이 모든 사람에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

조금 전까지도 것처럼 무모하고 교만하고 도전적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잔인하게 함으로써 의기 양양하던 자들은 이제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떨며 무서워한다. 그들이

통곡하는 소리는 사방에서 나는 소리들을 제압하고 들려온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능 앞에서 떠난다. 그 때에 사람들은 자비를 탄원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부복한다.

(7) 의를 지킨 이로 부터 어떤 승리의 노래가 나오게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홍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셀라) (시편 46:1-3)*

주위의 암흑에 비하여 4배나 밝은 별빛이 구름 사이에서 비친다. 그것은 충성된 자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을 말해주지마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쓰라림과 진노를 알려 준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게 되어 여호와의 은밀한 장막에 숨은 것과 같다. 그들은 벌써 시험을 받고 세상과 진리를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입증하였다.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충성을 굳게 지킨 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그들은 악마로 변한 사람들의 어둡고 무서운 포박에서 갑자기 구원을 받았다. 조금 전까지 창백하고 불안하고 말라빠져 있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경이와 믿음과

사랑으로 빛난다.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8) 천국에서는 무엇이 선포되게 되는가?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셀라) (시편 50:6)*

이 거룩한 신뢰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구름은 흩어지고 별빛이 찬란한 하늘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좌우편에 있는 어둡고 험악한 하늘에 비하여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 하늘 도성의 영광이 그 열린 문에서 흘러나온다. 그 때에 공중에는 접쳐진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난다. 선지자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시 50:6). 시내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애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거룩한 율법, 곧 하나님의 의는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난다.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사람의 기억력은 일깨워지고, 각 사람의 마음에서 미신과 이단의 암흑은 사라진다.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볼 수 있게 제시된다.

(9)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어떤 진실로 인해 공포로 가득차게 되는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시편 119:160)*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유린한 자들의 공포와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개선할 기회가 있는 동안 그들의 품성을 율법에 비추어 보고 그들의 결점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까지 율법을 범하도록 가르쳤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도록 강요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들이 멸시해 온 그 율법으로 정죄를 받는다. 그들은 아무런 변명할 것이 없음을 너무도 분명히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이 경배하고 섬길 대상을 이미 택하였다.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말 3:18).

(10) 이 사실을 알고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3:18-19)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던 자들은  
목사들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진리와 의무에 대하여  
새로운 견해를 가진다.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이 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거짓 안식일의 참 성질과, 그들이  
건축해온 모래로 된 기초를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온 사실을 발견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해 왔다. 성직에 있는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하며 그들의  
불성실의 실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마지막 심판날에 가서야  
비로소 알려질 것이다. 우리는 오직  
천국에 가서야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임을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종아 나를  
떠나가라는 선고를 받는 자의 운명은  
두려운 것이 될 것이다.

(11) 예수님께서서는 어디에서 오시게 되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6:64)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분은 이제 수치와  
저주의 쓴 잔을 마시기 위하여 “간고를  
많이 겪”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산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승리자로 오신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  
그를 따르더라”(계 19:11, 14). 거룩한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길에  
수행한다. 하늘은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진 것 같다.

(12)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데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취었도다. (하박국 3:3-4)*

그 광경은 사람의 붓으로 묘사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 찬란한 모습을 가히 상상할 수 없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합 3:3, 4)도다. 그 살아 있는 구름이 점점 가까이 오에 따라 각 사람의 눈은 생명의 왕을 보게 된다. 이제 그 거룩한 머리는 가시관으로 상해 있지 않고 찬란한 면류관이 씌어져 있다. 그분의 얼굴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계 19:16).

(13)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위대한 사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 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 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쩔이뇨 슬프다 그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뉘를 얻으리로다. (예레미야  
30:6-7)

그분 앞에서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렘 30:6)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실망의 공포가 덮인다.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치며 ...  
모든 낮이 빛을 잃”(나 2:10)는다.  
의인들은 떨면서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부르짖는다. 천사들의 노래는 그치고  
무서운 침묵의 시간이 흐른다. 그 후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의인들의  
얼굴은 빛나고 각 사람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충만해진다. 천사들은  
땅으로 접근해옴에 따라 더욱 높은  
음조를 내며 다시 노래를 부른다.

(14)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이들의  
책임에 관한 어떤 예언이 이루어지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6:64)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분을 조롱한 자들이 있다.  
대제사장이 맹세하면서 대답을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 엄숙하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마 26:64)고 선언하신 고난의 주님의 말씀이 감동적인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찌른다. 이제 그들은 영광 중에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본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말씀을 조롱한 자들도 이제는 말이 없다. 거기에는 왕이라는 주님의 칭호를 조롱함으로 군인들에게 명령하여 주님께 왕으로 관을 씌우게 한 교만한 헤롯도 있다. 불경건한 손으로 주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주님의 거룩한 이마에 가시관을 씌우고 저항하지 않는 손에 가짜 홀을 들리고, 참람된 조롱으로 그분 앞에서 절을 한 바로 그 사람들도 있다. 생명의 왕을 때리고 침을 뱉던 자들이 이제는 꿔뚫어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피하고, 주님께서 임하시므로 나타나는 저항할 수 없는 영광에서 숨고자 애를 쓴다.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자들과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군인도 두려움과 후회로 그 상처의 흔적을 바라본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갈바리의 사건을 놀라울 정도로 환하게 회상한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악마적 기쁨에 사로잡혀 부르짖던 일을 공포감에 사로잡힌 채 기억한다.

진리를 거절한 모든 자들의 생애에는 양심이 각성되고, 위선적 생활에 대한 괴로운 추억이 되살아나서 심령이 헛된 후회로 괴로움을 당하는 순간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잠 1:27)

이르는 날에 하는 후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죽이려던 자들은 그 사람들 위에 있는 영광을 본다. 그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들은 성도들이 기쁜 소리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사 25:9)고 부르짖는 음성을 듣는다.

(15) 그리스도께서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킬 때 천국은 어떤 음성으로 가득차게 되는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55)*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 소리가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킨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 고 외치신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 때에 온 세상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부활한 큰 무리로 소음(騷音)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사망의 감옥에서 나와 불멸의 영광을 입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고 외친다. 그리고 산 의인들과 부활한 성도들은

음성을 합하여 오랫동안 승리의 즐거운 함성을 올릴 것이다.

(16) 성도들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52-53)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부활한  
무리 가운데 선 아담은 키가 크고  
위엄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조금 키가 작다. 아담과 그  
후세의 백성들을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 한 가지점으로도  
인류가 크게 퇴화(退化)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활력과 원기를 소유하고 부활한다. 사람은

태초에 품성뿐만 아니라 용모와  
자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고 거의 지워 버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런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한 때 죄로  
더러워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던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 모든 흠과 결함은 무덤속에

버려진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의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난다”(말 4:2 흠정역 영어 성경).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저주받은 죄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백성들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정신과 육체에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아,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그것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고대하고, 열렬한 기대로 생각해 오던 것이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었다.

(17) 이 변화 이후 선택받은 자들이 즉시 가게 되는 곳은 어디인가?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17)*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였다.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천사들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은다. 어린아이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어머니들의 팔에 안긴다. 사망으로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만나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되며  
그들은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간다.

### (18) 우리의 의로우신 심판관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 위에 무엇을  
엿어 주시게 되는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4)*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른 자들에게 승리의  
휘장을 주시고 왕족으로서의 신분의 표를  
주신다. 그 광휘 찬란한 행렬은 그들의 왕  
주위에 둥그렇게 둘러선다. 주님은 모든  
성도와 천사들보다 더욱 위엄이 있고 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분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온화한 사랑으로 넘친다.  
구원받은 셀 수 없이 큰 무리들은 모두  
주님을 주목하고 일찍이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던 주님의 영광을 쳐다본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승리자들의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 각 사람에게 관이 주어지는데,  
거기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모든 사람의 손에는 승리의 종려가지와  
빛나는 거문고가 쥐어진다. 그리하여  
지휘하는 천사가 음을 맞추자 모든 손은  
훌륭하게 거문고를 켜게 되고, 아름답고  
풍부한 음조가 흘러나오게 된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혀 모두 감사의 찬미를 부른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계 1:5, 6).

(19)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이들에게 어떤 행복한 초대를 하시게 되는가?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34)*

속량받은 무리들 앞에는 거룩한 성이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진주문을 넓게 여시고 진리를 지킨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낙원, 곧 아담이 순결했던 시절의 본향을 본다. 그때 그들은 사람의 귀로 일찍이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 더욱 훌륭한 음성을 듣는다. “너희 싸움은 끝났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구주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가 이제 성취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 ... 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속량한 자들을 “힘이 없이 즐거움으로”(유 24) 아버지에게 보여 주시면서 말씀하신다. “여기에 내가 있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아, 얼마나 놀라운 속죄의 사랑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량받은 자들을 쳐다보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형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과 죄의 흔적과 암영(暗影)이 제거되어 인류가 다시 하나님과 조화된 것을 보실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쁜 순간이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께 충성한 자들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환영하신다. 구주의 즐거움은 당신의 고통과 굴욕으로 구원한 영혼들을 영광의 나라에서 보는 것이다. 또한 구속받은 자들도 그들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한 자들을 그 축복받은 무리 중에서 보게 될 때,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크고 흰 보좌 주위에 모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도한 자들을 보게 되고, 그 인도를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또한 다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모두 안식의 하늘에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되어, 그들은 주님의 발 아래 그들의 면류관을 던지고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

(20) 그들을 구원자에게 특별한 노래를 바치는 영광을 얻게 되는 이들은 누구인가?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 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요한계시록 14:3)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땅에서 구속받은  
십 사만 사 천명은 하나님의 거문고를  
손에 들고 어린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십  
사만 사천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십 사만  
사천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  
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  
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계 15:2, 3, 14:1-5) 이다.

(21) 이들과 다른 구원자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13-14)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요한계시록 14:4)

또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이 기근과 질병으로  
황폐해지고, 태양이 심한 열로  
사람들을 태우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 스스로도 고통과 기갈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계  
14:5, 7:14-17).

(22) 이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한  
증언을 전 우주에 나누게 만드는 율법은  
무엇인가?

값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누가복음  
7:42-43)

각 시대를 통하여 구주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시련의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 왔다. 그들은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풀무에서 정결함을  
받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반대와  
증오와 중상을 견디었다. 그들은 괴로운  
투쟁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고, 극기하고,  
실망의 쓴맛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괴로운 경험을 통하여 죄의  
사악함, 그 능력, 그 해독, 그 참상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 무한한  
희생으로 죄에서 치료받게 되고 그들이  
겸손해진 것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은  
타락한 일이 결코 없는 다른 세계의  
거민들이 맛볼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충만해진다. 그들은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욱 많이 사랑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였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다.

(23) 성도들은 어떤 족쇄로 부터 자유로워  
지게 되는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25:8)

하나님의 후사들은 다락방,  
오막살이, 감옥, 단두대, 산, 사막, 지하  
동굴, 해저 동굴 등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들은 땅에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  
를 받은 자들이다. 수 백만명의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적 요구를 강경히  
거절함으로 누명을 쓰고 무덤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인간 법정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그는 심판장”(시  
50:6)이 되신다. 이제 세상의 판결이  
뒤집혀진다. “여호와께서 ...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사  
25:8).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리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사 62:12, 61:3)게 하신다.  
그들은 더 이상 허약한 자, 고통받는 자,  
흠어진 자, 압박받는 자들이 아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땅 위에서 가장  
영광스런 사람이 일찍이 입어본 어떤  
의복보다도 더욱 귀한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선다. 그들은 지상의 왕들이

지금껏 써 본 어떤 왕관보다 더욱 영광스런 면류관을 쓴다. 고통과 애곡의 날은 영원히 끝났다. 영광의 왕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슬픔의 원인을 제거하셨다.

그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명랑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들은 모두 소리를 합하여 천지가 흔들릴 만큼 노래를 부른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그러자 온 하늘의 거민들은 다음과 같은 찬송으로 화답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계 7:10, 12).

(24) 성경은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리우셨음이니라.  
(디모데전서 3:16)*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놀라운 속죄 문제를 깨닫기 시작할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이해력으로 치욕과 영광, 생명과 죽음, 십자가에서 만난 공의와

자비를 매우 열렬하게 숙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지라도 우리는 그 의미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구속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 깊이와  
높이는 다만 어렵קות하게 이해될 뿐이다.  
구속의 경륜은 비록 구속받은 자들이  
주께서 그들을 보시는 대로 보고, 아시는  
대로 알게 될 때도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그러나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새로운  
진리가 경이와 희열에 넘치는 마음속에  
전개될 것이다. 비록 땅 위의 슬픔과  
고통과 시련이 그치고 그 원인이  
제거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불된 대가를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25)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구속받은 자들의 연구와 찬양이 되는 것은  
누구인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18-19)*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의 연구와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들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광대한 우주의 무수한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분, 그룹과  
영광의 스랍들이 즐겨 경배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낮추시고  
죄의 치욕과 슬픔을 지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숨겨진 채 마침내 잃어버린  
세상의 죄 때문에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심장이 터지고 생명이 떠나간  
사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모든 운명의  
결정자께서 인류를 위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은 영원히 우주의 경이와  
존경을 자아낼 것이다. 구원을 받은 모든  
민족들이 그들의 구주를 쳐다보고 그분의  
얼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또한 그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속하는 그분의  
보좌를 보고, 그분의 나라가 끝이 없을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환희에 사로잡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를 그 귀하신  
보혈로 하나님께 구속하시고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십자가의 오묘는 모든 다른 오묘들을  
설명해 준다. 우리를 두려움과 경이감으로  
충만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속성은  
갈바리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통하여  
아름답고 매력 있게 나타난다. 성결과  
공의와 권능이 자비와 온유와 부모와 같은  
사랑에 혼합되어 나타난다. 우리는 높고,  
또한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의 위엄을  
볼 때, 은혜롭게 나타난 그분의 품성을  
보고, “우리 아버지”라는 사랑스런 그  
칭호의 진정한 의미를 이전 어느 때보다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길 외에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희생의 결과로 이 세상이 거룩하고, 행복하고, 죽지 아니할 구원받은 백성들로 채워지는 기쁨이 생겼다. 구주께서 암흑의 권세로 더불어 싸우신 결과는 구속받은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영혼의 가치가 참으로 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불된 대가를 만족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도 당신의 위대한 희생의 결과를 보시고 만족히 여기신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천국 구름 사에이에서 나와 그분의 백성들을 이 땅의 악과 환난의 시대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날을 기다린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시는 초대를 기꺼이 받아드릴 날을 기다린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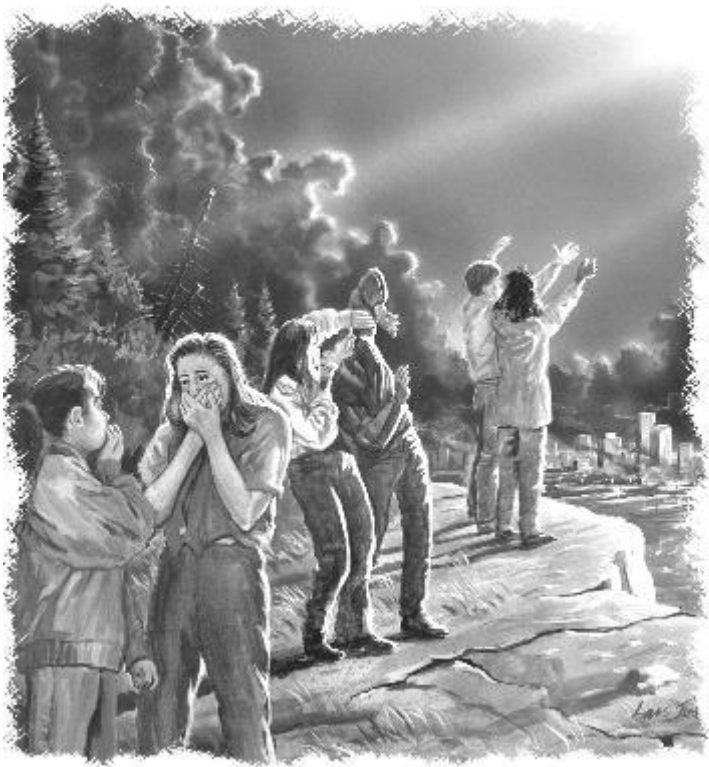
---

---

---

---

---



## 12 장 지상의 황폐

(1)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벨론의 거짓 교리를 따르는 이들에게 하늘은 어떤 자비의 메시지를 보내는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8:4)

(2) 바벨론과 그 가르침을 계속 따르는 이들에겐 어떤 판결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요한계시록 18:8)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날에  
바벨론이 당할 형벌이 이와 같다.  
바벨론은 그 죄의 분량을 다 채웠다. 그의  
때가 이르렀고, 멸망의 시기는  
무르익어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힘에서 돌이키실  
때 인생의 큰 싸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은 무서운 각성을 할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 그들은  
사단의 속임수에 눈이 멀었으며, 그들은  
죄악의 길을 정당화했다.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대하여 그들의 우월성을  
자랑했다. 그러나 그들의 부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써 얻은 것이었다.

(3) 부유한 이가 고의적으로 위반한  
기본적인 율법은 무엇인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마태복음 25:43-45)

그들은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공의를 행하고 공화를 베풀기를  
등한히 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동료 인간들의 존경을 얻고자 노력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을 위대하게 해주었던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궁핍해지고 아무런 방비없이 버려진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우상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 떤다. 그들은 세상의 부와 향락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팔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게 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그들의 일생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의 향락은 이제 쓴 것으로 바뀌어지고 그들의 재물은 썩어 버렸다. 일생 동안에 얻은 것이 잠깐 동안에 사라진다. 부한 자들은 그들의 거대한 저택이 파괴되고 금과 은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통곡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과 함께 멸망하여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그들의 통곡은 침묵으로 바뀌어진다.

(4) 악한 이가 진정으로 회개 할때 그의 인생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14)*

악한 자들은 매우 통분해 한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의무를 등한히 하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실적인 결과를 한탄하는 것이며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 일을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5) 성도들에겐 어떤 약속이 이뤄지게 되는가?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시편 91:3-4)

그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망시키고자 희망했던 자들이 질병과 폭풍과 지진에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세상은 보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사르는 불이 되시는 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6) 진실을 부정하고 그들을 따르는 이들을 파멸로 이끈 영적 지도자들에겐 어떤 판결이 선고되는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흠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흠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23:1-2)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진리를  
저버린 목사는 그의 교훈의 성격과 영향을  
이제 분별하게 된다. 그가 강단에 섰을 때,  
거리로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생애의  
장면에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전지(全知)하신 분의 눈이 언제나 그를  
떠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심령의  
모든 상태, 기록된 모든 문자, 표현한 모든  
말, 사람들을 거짓된 피난처에 쉬게 한  
모든 행동 등은 이미 씨를 뿌렸다. 이제  
그의 주위에 있는 불행하고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을 통하여 그는 수확을 바라본다.

(7) 이 부정한 지도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시편  
119:160)*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시편 119:142)*

목사들과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지  
못한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공평하고  
의로운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해 온 것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훈계를 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죄악과 불화와 증오와 불법의 샘이 열려  
마침내 이 세상은 넓은 전쟁터와 부패의  
시궁창이 되어 버렸다. 진리를 거절하고  
오류를 고수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이  
사실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불순종하고

불충한 자들이 영원히 잃어버린 영생을 찾고자 하는 갈망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세상에서 재능과 능변 때문에 숭배를 받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것들의 진상을 깨닫는다.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상실한 것을 깨닫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금까지 모멸해 온 충성된 성도들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8) 그들을 배신한 이들에게 잃어버린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스가랴14:13)*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껏 속아온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피차간에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 불충한 목사들은 순탄한 일들만 예언해 왔다. 그들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했다. 이제 그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기만적 활동을 고백한다. 그때 무리들은 분노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부르짖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짓 목사들에게 달려든다.

한 때 그들을 가장 존경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펴붓는다. 한 때 그들에게 월계관을  
씌우던 손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떨하는 데 사용된다. 도처에 투쟁과  
유혈의 참극이 벌어진다.

(9) 하나님의 용인이 끝난 뒤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은 누구에게까지 전개되는가?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25:31)*

6천년 동안 대쟁투는 전개되어 왔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늘의 사자들은 인류를  
경고하고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악한자의 세력을 대항하여 싸워왔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결정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에서  
사단과 완전히 연합했다. 하나님께서  
짓밟힌 율법의 권위를 옹호하실 때가 왔다.  
이제 싸움은 사단과 더불어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 악인을  
칼에 붙이심”이라.

(10) 그리스도가 구름 사이로 오는 것을  
본 악한 이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8)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6:16-17)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서 사라진다.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데려가시므로  
이 세상에는 거민들이 없어진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엎으시고 그  
거민을 흘으시리”라.

(11) 악한 자들이 파멸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이사야 24:5-6)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사 24:1, 3, 5, 6)리라.

(13)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사단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 (요한계시록 20:2-3)*

이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또한 대속죄일의 마지막 엄숙한 봉사로 예표되었다. 지성소의 봉사가 마쳐지고,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성소에서 옮겨지면, 아사셀 염소가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끌려나왔다. 그때 대제사장은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와 머리에 두”(레 16:21)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속받은 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사단에게 놓여질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혹하여 범하게 한 모든 죄의 책임을 사단이 져야 할 것으로 선고될 것이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사단도 쓸쓸한 지구, 곧 거민이 없고 황량한 광야로 추방당할 것이다.

(14) 일천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활동에 어떤 제약을 걸어 두셨는가?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요한계시록 20:3)*

이 곳이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일천년간 거할 곳이다. 사단은 지구에 갇혀서 다른 세계에 접근하여 결코 타락한 적이 없는 자들을 유혹하고 괴롭힐 수 없게 될 것이다. 그가 결박당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그가 세력을 행사할 대상자는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다. 여러 세기 동안 오로지 그의 기쁨이 되어 온 기만과 파괴 행위에서 그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육천년간 사단의 반역 행위는 “땅을 진동”시켰다. 그는 “세계를 황무케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는 육천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사단은 그들을 영원히 가두어 두고자 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박을 깨뜨리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 주셨다.

이제 악인들까지도 사단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악한 천사들과 함께 남아있으면서 죄악이 가져온 저주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 네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사 14:18-20)느니라.

일천년간 사단은 그 황폐된 땅에서 방황하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반역한 결과를 바라본다. 그 기간에 당하는 사단의 고통은 참으로 크다. 타락한 이후로 그는 끊임없는 활동때문에 반성할 여유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의 세력을 빼앗기고 처음에 하늘 정부를 반역한 이래 그가 담당해 온 역할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자행한 모든 죄악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고, 그가 범하도록 유혹한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는 무서운 장래를 내다보면서 두려워 떤다.

(15) 의인들은 일천년동안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요한계시록 20:4)*

악인의 심판은 첫째와 둘째 부활 사이에 있는 일천년간에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은 이 심판이 재림뒤에 있을 사건임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고전 4:5)라. 다니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단 7:22)다고 말한다.

이때에 의인들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 바울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 6:2)고 예언한 말은 이 때를 지적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율법전(律法典) 곧 성경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여 육신의 행위에 따라 모든 사건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를 따라 악한 자가 받아야 할 형벌이 정해져서 사망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 아래 기록된다.

(16) 이 판결에는 누가 포함되는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고린도전서 6:2-3)*

또한 사단과 악한 천사들 역시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는다. 바울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 6:3)고 말한다. 그리고 유다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유 6)다고 주장한다.

(17) 일천년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요한계시록 20:5)*

일천년이 끝나면 둘째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 때에 악인들은 사망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기록된 판결대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의인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마친 후,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계 20:5)고 말한다. 이사야는 악인들에게 관하여,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음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사 24:22)고 주장한다.

*성경은 내게 이 대쟁투를 끝낼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밝혀 주었다. 나는 쟁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이들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사단이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알며, 이 수단들이 실패할 경우, 다른 박해가 이어지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거짓 교리에 빠진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랑과 자비에, 그리고 기만을 막을 수 있는 진실을 드러내 주심에 감사하다. 나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기만당하지 아니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판결을 따르게  
된다면 이 땅의 최후가 올 것임을 안다.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분께  
충성을 바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약속해주신 그분께 감사드린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 13 장 대쟁투의 종막

그리스도께서는 일천년 끝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신다. 그분은 구속받은 무리들과 수행하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놀라운 위엄으로 내려오실 때 그분께서는 죽은 악인들에게,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신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일어난다. 첫째 부활 때 일어났던 자들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의인들은 죽지 않을 젊음과 아름다움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악인들은 사망과 질병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1) 진실의 권능으로 인해 악인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흘러나오게 되는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3:35)

그 큰 무리에 속한 모든 사람의 눈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주목하게 된다. 악인들은 목소리를 합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고 부르짖는다.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다. 진리의 힘이 본의 아니게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한다. 그들은 무덤에 내려갈 때와 똑같이 그리스도께 대한 적의(適意)와 반역 정신을 가지고 일어난다. 그들은 과거의 생애에 있었던 오점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시기를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일생 동안의 생활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 못했다. 두 번째의 은혜의 시기가 그들에게 주어질지라도 그것은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요구를 기피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오게 되는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2)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곳이며, 천사들이 재림의 약속을

되풀이한 장소, 곧 감람산 위에 내려오신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 “,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슥 14:5, 4, 9)라. 화려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성은 영접할 준비가 된 성결한 곳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함께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신다.

(3) 일천년이 끝나고 악인이 부활하게 되면 사단은 어떤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가?

*천 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요한계시록 20:7-8)*

이제 사단은 최상권을 위한 마지막 큰 싸움을 준비한다. 그의 세력을 빼앗기고 기만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악의 왕은 비참해지고, 기가 꺾여 있었다. 그러나 악인들이 부활하여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의 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자 그의 희망은 되살아난다. 그는 대쟁투에 항복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한다. 그는 잃어버린 자들의 모든 군대를 그의

군기 아래 모으고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그 악인들은 사단의 포로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써 반역의 두목의 지배를 받아왔다. 그들은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의 명령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초기의 간계(奸計)를 써서 자기 자신이 사단임을 부인한다. 그는 자기가 이 세계의 정당한 소유주인데 그의 상속권을 부당하게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의 미혹당한 부하들에게 자신을 구주로 나타내고 자기의 능력으로 그들을 무덤에서 부활시켜 바야흐로 그들을 가장 잔인한 횡포에서 구해 내려 한다고 그들에게 보증해 준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게 되자 사단은 그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하여 기사를 행한다. 그는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고 자기의 정신과 힘을 모든 자들에게 준다. 그는 그들을 지휘하여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성을 빼앗고자 계획한다. 악마같은 광희(狂喜)로 그는 사망에서 부활한 무수히 많은 무리를 가리키면서 자신을 그들의 지도자라고 주장하고 그가 그 성을 탈환하여 자기의 보좌와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4) 잃어버린 자들의 무리를 성경은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가?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요한계시록 20:8)*

그 큰 군중 가운데는 홍수 전에 존재했던 장수(長壽)한 족속들, 거대한 체격과 위대한 지능을 가지고서도 그 몸을 타락한 천사들의 지배에 맡겨, 그 모든 기능과 지능을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바친 자들이 있다. 그들은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의 천재적 재능을 우상시하게 하였으나, 그들의 잔인성과 사악한 발명이 세상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피조물의 면전에서 쓸어 버리셨다. 거기에는 여러 나라를 정복한 왕과 장군들이 있고, 싸움터에서 결코 패배해 본 일이 없는 용사들이 있고, 접근해 올 때 여러 나라들이 전율할 수밖에 없었던 거만하고 야망적인 전사(戰士)들이 있다. 그들은 사망을 통하여서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올 때 그들의 생각은 죽을 때와 똑같은 정복욕에 의하여 행동한다.

사단은 그의 부하들과 의논하고, 그다음에는 왕들과 정복자들과 강력한 사람들과 상의한다. 그들은 자기들 편에 속한 자들의 수효와 세력을 보고, 그들에 비하여 성 안에 있는 군대의 수가 적으므로 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의 부와 영광을 빼앗기 위하여 계획을 세운다. 전원이 즉시 전투 준비를 개시한다. 숙련된 기술자들은 무기를 제작한다. 무훈이 혁혁한 군대의 지휘관들은 호전적인 무리들을 중대와 사단으로 나누어 배치한다.

(5) 사단의 명령 아래 대군은 무엇을 하려고 시도하는가?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요한계시록 20:9)*

드디어 진군 명령이 내린다. 셀 수 없이 많은 대군이 행진을 시작한다. 그것은 일찍이 어떤 정복자도 소집한 일이 없는 대군, 이 지상에 전쟁이 있어 온 이래 각 시대의 모든 군대를 모두 합할지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큰 군대이다. 가장 강한 전사인 사단이 그 군대를 진두 지휘하고, 악한 천사들이 그 마지막 전투에 힘을 합한다. 왕들과 전사들이 그를 좇고, 여러 군단으로 이루어진 큰 무리가 각 지휘관들의 명령 아래 그를 따른다. 그들은 군대식으로 질서 정연하게 우툴두툴한 지상을 행진하여 하나님의성으로 나아간다. 새 예루살렘의 문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닫혀진다. 그러자 사단의 군대는 그 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준비한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하나님의 성을 충만케 하고,  
그 빛이 성문 밖으로 흘러나와 온 세상을  
그 빛으로 넘치게 한다.

(6) 하나님의 보좌 앞은 누구의 인파로  
가득 차게 되는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14)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 때 사단의  
사업에 열렬했으나 지금은 마치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와 같은 처지에서  
깊고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구주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는 거짓과  
불신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한 사람들과, 그리스도교계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 사람들과,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을 위하여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외에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계 7:9) 있다.  
그들은 전쟁을 마치고 승리를 얻었다.  
그들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상급을  
받았다. 그들의 손에 있는 종려가지는  
승리를 표상하고, 흰옷은 지금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를  
상징한다.

(7) 구원받은 이들의 입술에선 어떤 존경의 말이 흘러나오게 되는가?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요한계시록 7:10)*

구속받은 자들이 일제히 다음과 같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소리는 하늘 공간에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계 7:10).

천사들과 스랍들도 소리를 합하여 찬송한다. 구속받은 자들은 사단의 세력과 악의를 보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 외에는 어떤 능력도 그들을 승리자가 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깨닫는다. 그 빛나는 무리들 가운데는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과 선행으로 승리한 것처럼 구원을 자기 공로에 돌리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오직 모든 찬미의 내용과 모든 찬양의 주제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다는 것이다.

(8) 어떤 위대한 사건으로 인해 죽은 악인들이 부활하게 되는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요한계시록 20:12-13)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판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계 20:11, 12)라.

(9) 위대한 판결로 인해 무엇이 드러나게 되는가?

이는 우리가 다 받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10)

기록책들이 펼쳐지자마자 예수님의 눈은 악인들을 주목하신다. 그때 그들은 그들이 지금껏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의 발이 어디에서부터 순결과 성결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그들의 교만과 반역이 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는지 깨닫게 된다.  
그들을 죄에 빠지게 한 매혹적인 시험을  
받은 것, 축복을 무시한 것,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욕한 것, 경고를 거절한 것,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비의  
물결을 물리쳐 버린 것,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나타난다.

(10) 이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실중,  
어떤 것들이 심판의 날에 악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사실인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3, 5)*

보좌 위에 십자가가 나타난다. 그리고  
아담의 유혹과 타락, 그 후에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장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구주의  
비천한 탄생, 그분의 단순하고 양순한  
초기 생애, 요단강에서의 침례,  
광야에서의 금식과 시험, 하늘의 가장  
귀중한 축복들을 사람들에게 알려 준  
그분의 공생애, 사랑과 자비의 봉사로  
피곤해진 낮과, 한적한 산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던 밤들,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질투와 증오와 악의에서 나온 음모, 온 세상의 죄짐에 눌렸던 두렵고 신비한 겿세마네의 고민, 살기 등등한 폭도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배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예루살렘 거리를 난폭하게 끌려 다니신 저항없는 죄인, 의기 양양하게 그분을 안나스앞에 세운 것, 대제사장의 집에서 송사받고,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또한 비겁하고 잔인한 헤롯 앞에서 조소와 모욕과 고문을 당하시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모든 장면들이 생생하게 묘사된다.

이제는 크게 동요하는 무리들 앞에서 마지막 광경, 인내의 수난자가 갈바리로 가는 길을 따라가고, 하늘의 왕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교만한 제사장들과 조롱하는 폭도들이 죽어가는 그분의 고민을 조롱하고, 초자연적 흑암이 나타나고, 땅이 흔들려 바위가 깨어지며 무덤이 열리므로 세상의 구주께서 생명을 버리시는 순간을 알려 주는 광경들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전에 있었던 그대로의 무서운 광경들이 나타난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그의 백성들은 그들이 한일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을 힘이 없다. 각 일을 담당했던 자는 그가 한 역할을 회상한다.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기 위하여 무구(無垢)한 아이들을 살해한 헤롯, 가책받는 심령을 달래기 위하여 침례 요한의 피를 흘린 야비한 헤로디아, 지조없는 빌라도, 조롱하던 군인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고 외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광적인 무리, 그들 모두가 그들의 죄가

얼마나 가증함을 보게 된다. 구원받은  
무리들이 그들의 면류관을 구주의 발 앞에  
던지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부르짖을 때, 악한 자들은  
구주의 얼굴에 나타난 거룩한 위엄과  
찬란하게 빛나는 햇빛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헛된 노력이 되고 만다.

(11) 악인이 최후에 맞이하는 운명은  
무엇인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요한계시록 20:15)*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8)*

모든 악인들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  
반역이라는 죄목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의 소송에  
대하여 탄원할 것이 전혀 없고, 핑계할  
것도 없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선고가 내려진다.

죄의 값은 고상한 자립과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노예와 파멸과 사망임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입증된다. 악인들은  
그들의 반역의 생애를 통하여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깨닫는다. 영원한  
영광의 심히중한 것이 일찍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부러워할  
만한 것이 되어 있는가? 잃어버린 자들은  
부르짖는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진하여 그것들을 멀리하고자 했다. 아, 얼마나 이상한 것에 열중했던가! 우리는 평안과 행복과 영광을 불행과 수치와 절망과 바꾸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로써 “우리는 이 예수로 왕 삼는 것을 원치않노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12) 구원받은 이들은 어떤 찬송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요한계시록 15:3)*

악인들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을 주목한다. 그들은 주님의 손에 그들이 멸시하고 범한 하나님의 율법의 돌비가 쥐어져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 경이와 환희와 찬송의 소리를 높이는 것을 본다. 그 음조의 물결이 성밖에 있는 무리들에게 퍼져나갈 때 모든 사람은 한 음성으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계 15:3)고 외치면서 엎드려 생명의 왕께 경배한다.

(13) 사단의 어떤 성품이 전 우주에 날날이 드러나게 되는가?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하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 내었고 화광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어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에스겔 28:15-17)

그 큰 모반자의 목적은 언제나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반역의 책임이 하나님의  
정부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였다. 그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의 탁월한 지력을 모두 기울여  
왔다. 그는 신중하고 조직적으로 일을  
하여 그 큰 무리들이 것처럼 오랫동안  
계속해 온 대쟁투에 대한 그의 주장을  
수락하도록 이끄는 데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 왔다. 수천년 동안 이 반역의  
괴수는 오류를 진리라고 속여 왔다.

그러나 이제 그 반역이 마침내 실패로  
 끝나고 사단의 경력과 품성이 드러날 때가  
왔다. 큰 기만자 사단은 그리스도를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  
거룩한 성을 탈취하기 위한 마지막 큰  
싸움에서 그의 정체는 완전히 폭로되였다.  
그와 연합해 온 자들은 마침내 그의  
사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충성된  
천사들도 하나님 정부에 대한 사단의  
음모의 전모를 보게 된다. 사단은 온  
우주의 증오의 대상이 된다.

(14) 모든 피조물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10-11)

사단은 그의 고의적인 반역이 그로  
하여금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음을 안다. 그는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왔다. 하늘의  
순결과 평화와 조화는 그에게 극심한  
고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한 그의 비난은 이제 잠잠해졌다.  
그가 여호와께 돌리려고 노력해 온 비난이  
자기에게로 남김없이 돌아온다. 이제  
사단은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의  
공의로움을 고백한다.

(15) 하나님의 정부와 성품에 대한 어떤  
진실이 전우주에 명확히 드러나게 되는가?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시편 97:2)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진리와 오류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제 분명해졌다.  
반역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결과가 모든 지적 존재자의 눈앞에  
분명해졌다.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사단의 법칙이 실천된 결과가 무엇임이 온  
우주에 공개되었다. 사단 자신의 사업이

그를 정죄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는 완전히 옹호되었다. 대쟁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신 처사가 오로지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유익을 위하여 하신 일임이 드러난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시 145:10).

죄의 역사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의 행복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충성된 자와 반역한 자들을 막론하고 온 우주는 대쟁투에 속한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고 선언한다.

(16) 사단의 성품과 진정한 동기가 드러났을 때, 그에게 속은 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임이여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에스겔 28:19)*

비록 사단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최상권에 대하여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반역의 정신이 강한 급류와 같이 다시 밀려온다. 사단은 분노로 충만해져 대쟁투에 항복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하늘 왕에 대한 마지막 결사적 쟁투가 전개된다. 그는 부하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분노에 사로잡혀  
그들을 충돌시켜 즉시 일대 결전을 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그가 반역하도록 유혹한  
무수한 무리 가운데 이제 그의 최상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의 권세는  
끝났다.

악인들은 사단이고 취하는 바와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으로 충만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가 절망적이라는  
것과 그들이 여호와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들의 그 분노는  
사단과, 기만에 있어서 그의 대리 역할을  
해왔던 자들을 향하여 폭발된다. 그들은  
악마와 같은 분노로 사단과 그  
대리자들에게 달려든다.

(17)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최종적인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선고를  
내리시게 되는가?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므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고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임이여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에스겔  
28:18, 19)*

(18)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에겐  
어떤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요한계시록 20:15)*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묻은 복장이 불에 쫓같이 사라지리니”,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케 하셨”(사 9:5,  
 34:2)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시 11:6).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땅이  
 깨어진다. 땅의 깊은 곳에 감추었던  
 무기들이 터져 나온다. 땅의 깨어진 모든  
 틈에서 맹렬한 화염이 터져 나온다. 모든  
 바위가 불이 된다. 풀무불처럼 불타는  
 날이 마침내 왔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들이 타  
 버린다(말 4:1; 벧후 3:10 참조). 땅의  
 표면은 마치 용해된 하나의 덩어리, 곧  
 하나의 거대한 끓는 큰 불못처럼 된다. 이  
 때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형벌과 멸망의  
 때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사  
 34:8) 이다.

(19)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시며, 궁극적인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2:6)*

악인들은 땅에서 그들의 보응을  
 받는다(잠 11:31 참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말  
 4:1) 사를 것이다. 어떤 자들은 한 순간에

멸망당하지만 어떤 자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위대로” 형벌을 받는다. 의인들의 죄는 사단에게 옮겨진다. 그는 자기 자신의 반역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하게 했던 모든 죄 때문에서도 고통을 받는다. 사단의 형벌은 그에게 속은 자들이 받는 형벌보다 훨씬 더 크다. 그의 기만으로 타락한 자들이 모두 멸망당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죽지 않고 계속하여 고통을 받는다.

(20) 정화의 불이 사그라든 이후 사단과 모든 악한 이들은 무엇만 남게 되는가?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므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에스겔 28:18)*

정결케 하는 그 불로써 악인들은 뿌리와 가지, 곧 뿌리가 되는 사단과 가지가 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마침내 완전히 멸망당한다. 율법의 형벌이 완전히 집행되고,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면 하늘과 땅은 여호와와의 의를 바라보고 찬송하게 된다.

21) 성경은 악인의 최후의 운명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시편  
104:35)

(22) 죄의 종말을 경험하게 된 이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피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나훔 1:9)

사단의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육천년 동안 그는 제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케 하고 온 우주를 슬프게  
하였다. 모든 피조물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해 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사단의 존재와  
유혹에서 영원히 벗어난다.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니 우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사 14:7). 찬송과 승리의  
합성이 충성된 온 우주에서 터져 나온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계 19:6)고 노래한다.

(23) 무엇이 없어지고 새 것으로  
교체되는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1)

땅이 멸망의 불에 싸여 있는 동안  
의인들은 거룩한 성 안에서 안전하게 있다.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태우는 불이 되지만 당신의 백성에게는 해와 방패가 되신다(계 20:6; 시 84:11 참조).

(24)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짊어지실 유일한 죄의 기념물은 무엇인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20:25)*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선지자 하박국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광선이 그 옆구리(영어 성경 - 방주)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취었도다”(합 3:4)고 말한다.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붉은 피를 흘린 그 옆구리는 구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권능이 그 속에 감”추인 곳이다.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구원하기에 능하셨던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한 자들에게 공의를 행하는 일에도 강하셨다. 그분의 굴욕의 표는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이다. 갈바리에서 상한 흔적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주님께 대한 찬양을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능력을 말해 줄 것이다.

(25)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2)*

장래의 유업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일을 염려하여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해주는 바로 그 진리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보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늘 집에 관하여 전혀  
무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고전 2:9)던  
것들이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26) 본향은 무엇에 비할 수 있는가?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히브리서 11:14)*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12)

성경은 구원얻은 자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부른다(히 11:14-16 참조).  
그 곳에서 하늘의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 무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 흘러 다함이 없는 강은  
수정같이 맑고, 그 가에 있는 나무들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된 길 위에 그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들을 뺀고 있다.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한다.

(27) 새로운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때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요한계시록 21:11)

(28) 우리가 살 곳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사야 32:18)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 하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질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그 때에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사 35:1, 55:13, 11:6, 9)다.

(29) 구원받은 이들이 새로운 땅에서 기쁨으로 행할 놀라운 행위들은 무엇인가?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사야 65:21)*

(30) 없어질 죄의 증거 네가지는 무엇인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4)*

하늘의 분위기 속에는 고통이 존재할 수 없다. 그 곳에는 눈물이 없고, 장례 행렬이 없고, 슬픔의 흔적이 없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계 21:4; 사 33:24).

31) 하나님의 성을 비추는 빛의 원천은 무엇인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5)*

하나님의 성에는 “밤이 없”다. 아무도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피곤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낄 것이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눈이 부실 정도는 아닌 찬란한 빛이 태양 광선을 대신할 것이다. 그러나 그 광도(光度)는 오늘날의 정오의 밝음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영광이 거룩한 성을 끊임없이 비추어 준다. 구속받은 자들은 태양이 없을지라도 언제나 낮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32) 우리는 어떤 성스러운 존재를 옛 땅에서의 장막 없이 볼 수 있는가?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계시록 21:22)*

하나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는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고전 13:12)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속에 비친 것처럼 천연계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일을 통하여 바라본다. 그러나 그 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거기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아심같이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심령 속에 심어 주신 사랑과 동정은 거기서 가장 진실하고 부드럽게 활용될 것이다. 거룩한 자들과 나누는 순결한 교제, 축복받은 천사들과 그 옷을 어린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한 각 시대의 충성된 자들과의 조화로운 생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함께 결합시키는 거룩한 유대 관계, 이것들은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을 이루는 요소들이다.

거기서 죽지 않을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창조력의 경이, 속죄애(贖罪愛)의 오묘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상한다. 하나님을 등한히 하도록 유혹하던 잔인하고 기만적인 원수는 더 이상 없다.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달된다. 지식을 얻는데 두뇌가 피로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 가장 큰 기도(企圖)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33) 구원받은 이들은 영원동안 어떤 간증을 하게 되는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12)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 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피곤을 모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땅 위의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의 주민들의 지혜와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된다. 그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숨씨를 명상함으로 얻은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같이 나눈다. 그들은 흐려지지 않은 시력으로 창조의 영광, 곧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만물 위에는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고, 모든 것에는 창조주의 능력이 표현되어 있다.

(34)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대쟁투의 결과를 보고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되는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요한계시록 5:13)

그리고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속죄의 풍성한 부와 사단과의 대쟁투에 있어서의 놀라운 결과를 제시해 주실 때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금거문고를 탄다. 그리하여 천천만만의 무리는 음성을 합하여 찬양의 대합창을 한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鼓動)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原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성경을 통해 생명을 주는 대쟁투에 대한 지식을 주셔서 감사하다. 나는 이 쟁투의 마지막 전선은 내 마음이며 쟁투의 궁극적인 문제는 내 충성심에 달려있음을 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어떻게 대쟁투가 시작되었고, 어떤 율법이 연관되어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며,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안다. 나는 이제 사단의 기만을 알고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있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계시록에 설명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 보다 더욱 풍요롭고 영광스러울 영원의 때를 손꼽아 기다리겠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나는 “주님, 내 삶을 겸허히 바칩니다. 당신의 은총을 통해 저를 당신과 닮은 모습으로 바꿔주십시오. 제가 이 생명을 주는 지식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당신의 성스러운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주십시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중요한 다짐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되시는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진정으로 기도한다.

동그라미:      그렇다      결정하지 못했다

---

---

---

---

---

---

## 부록

### 위협당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오늘날 로마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호감으로 개신교의 인정을 받고 있다. 천주교가 우세하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법왕 교도들이 세력을 얻기 위하여 융화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개혁교회들과 법왕의 교권 제도를 분리시키는 그 교리들에 관하여 점차적으로 무관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결국 개신교도들이 지금껏 생각해 왔던 것만큼은 중요한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과 우리 편에서 조금만 양보하면 로마교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세력을 더해가고 있다. 일찍이 개신교도들은 매우 고귀한 값을 지불하고 얻은 양심의 자유를 높이 평가한 때가 있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법왕교를 거부하도록 가르쳤고 로마교와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충성한 일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표현되고 있는 의견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법왕권을 옹호하는 자들은 그 교회가 중상을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개신교계에서도 그 말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무지와 암흑의 세기 동안에 그 교회의 지배의 특징이 되었던 포학과 모순으로 오늘날의 그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 두려운 잔인성을 그 시대의 미개함에 돌리고 근대 문화의 영향이 그 교회의 생각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한다.

그 사람들은 그 거만한 세력이 8백년 동안 주장해 온 법왕 무류설을 잊어버렸는가? 그 주장은 철회되기는 커녕 도리어 19세기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더욱 확고해졌다. 로마교는 “교회는 결코 오류가 없었고, 성경 말씀에 따르면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과거에 지배되어 온 원칙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법왕 교회는 그 무류설을 결코 철회하지 아니할 것이다. 법왕 교회의 교리를 부인한 자들에게 자행한 온갖 박해를 그 교회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동일한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겠는가? 현재 세속적 정부들에 의하여 과해져 있는 억제가 제거되고 로마교가 이전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면 그의 박해와 학정이 급속히 부활될 것이다.

어떤 유명한 저자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법왕권의 태도와 그 정책의 성공으로 특별히 북미 합중국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북미 합중국에서 갖는 것을 종교적 편협이나 유치한 태도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그런 사람들은 로마 천주교의 특성과 태도에서 우리의 자유로운 제도에 적대적인 것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로마 천주교의 성장에서 불길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먼저 우리 정부와 천주교의 근본 원칙의 몇 가지를 비교해보자.

북미 합중국의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보다 더 귀중하고 근본적인 것은 없다. 그런데 법왕 피우스 9세는 1854년 8월 15일자의 동문 통달(同文通達)에서 ‘양심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불합리하고 그릇된 교리나 헛소리는 가장 유해한 오류로서 한 국가에 있어서 어떤 다른 것보다 가장 두려운 해를 끼치는 것이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 법왕은 1864년 12월 8일부의 동문 통달에서 ‘양심과 예배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와 또한 ‘교회가 폭력을 쓰지 말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자들’에게 저주하였다.

미국에 있어서의 로마교의 평화적 태도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관대한 태도를 취한다. 오 커너 감독은 말한다. ‘종교 자유는 반대가 천주교계에 해를 끼침 없이 수행될 수 있을 때까지만 허용된다.’ ... 세인트 루이스 대감독은 한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단과 불신은 죄악이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처럼 국민 모두가 천주교도이며, 또한 천주교가 그 국가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교 국에 있어서는 이단과 불신은 다른 범죄와 같이 처벌될 것이다. ...’ 천주교회의 모든 추기경과 대주교와 주교들이 법왕에게 하는 충성의 맹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들어 있다. ‘나는 이단자들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그리고 주(법왕)와 그 후계자를 반역하는

자를 극력 반대하고 박해하겠나이다.”\* 로마교의 내에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교회에 속한 무수한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빛을 따라 최선껏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용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단지 형식과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과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혼미하고 만족을 줄 수 없는 신앙의 교육을 받은 그들을 긍휼이 많은 자비의 눈으로 주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르고 있는 짙은 암흑을 꿰뚫을 수 있는 빛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진리를 그들에게도 계시해 주실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들의 입장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도 로마교의 제도는 과거의 역사에서처럼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조화되지 아니한다. 개신교회들은 큰 암흑속에 묻혀 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였을 것이다. 로마교회는 그의 계획과 경영 방식이 매우 원대하다. 그는 그의 세력을 넓히고 전세계를 지배할 세력을 다시 얻고, 박해를 부활시켜서 개신교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없애 버리기 위한 치열하고 결정적인 투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온갖 계책을 다 써서 그의 영향력과 권세를 증가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오늘날 도처에서 로마교는 세력을 얻고 있다. 개신교 국가들에서 로마교의 교회당과 교인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라.

미국에서 개신교도들의 광범위한 후원을 받고 있는 로마교의 대학들과 신학교들의 인기를 생각해 보라. 영국에서의 의식주의(儀式主義)의 성장과 로마교의 대열에 가담하기 위한 빈번한 탈회 행위를 보라. 이런 일들은 복음의 순수한 원칙을 존중하는 모든 사람들의 깊은 우려를 일깨워야 한다.

개신교는 로마교에 손을 내밀어 후원해 오고 있다. 그들은 로마교들도 놀라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타협하고 양보하였다. 사람들은 로마교의 진상과 그가 최상권을 잡게 될 때 생길 위험들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감고 있다.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이 원수의 진격을 저항하기 위하여 각성할 필요가 있다.

많은 개신교도들은 로마교가 매력적이지 아니며 그 예배 역시 어리석고 무의미한 의식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그들은 오해하고 있다. 비록 로마교가 기만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을지라도 그것은 조잡하고 졸렬한 모양으로 가장되어 있지 않다. 로마교의 예배 의식은 가장 인상 깊은 의식이다. 그 화려한 장식과 엄숙한 의식은 사람들의 감각을 매혹하고 이성과 양심의 소리를 침묵시킨다. 그 눈은 황홀해진다. 웅장한 교회당, 당당한 행렬, 황금빛 제단, 보석으로 장식한 신단, 정선된 그림들, 정교한 조각들은 사람들의 미적 감각에 호소한다. 귀도 또한 황홀해진다. 그 음악은 비할 데 없이 훌륭하다. 은은하면서도 풍성한 오르간 소리, 웅장한 성전의 높은 천장과 둥근

기둥으로 구분된 복도를 통하여 울려오는  
무수한 음성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경이감과  
숭경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외형상으로 장엄하고  
화려한 모습과 의식은 죄에 빠진 영혼들의  
갈망을 우롱(愚弄)하는데 불과하고 그  
내부의 부패를 증거한다. 그리스도교는  
그러한 것에 매력을 갖게 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에서 비쳐오는 빛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교는 순결하고 아름답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참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외관상 장식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성결의 미와 겸손하고 안정된 정신이다.  
외관상 아름다움이 반드시 순결하고  
고상한 사상의 지표는 아니다. 고상한  
예술 지각과 우아하고 세련된 취미가  
세속적이며 육욕적인 사람의 심중에도  
흔히 있다. 그들은 흔히 사단에게  
이용되어 사람들에게 심령의 필요를  
잊어버리게 하고 미래의 생애와 영생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무한한 구원자에게서  
돌아서서 이 세상만을 위하여 살도록  
만든다.

외관을 치장하는 종교는 거둢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매력적이다. 천주교  
예배의 화려한 모습과 의식에는  
매혹적이며 황홀케 하는 일종의 힘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기만당하여  
로마교를 바로 하늘가는 문인 것처럼  
쳐다보게 된다. 오직 진리의 기초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만이 로마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께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종교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종교이다.

교회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주장은 로마교도들에게 마음대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의식(儀式), 곧 그것이 없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의식 또한 죄를 범하도록 허용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다. 타락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심중의 은밀한 사상과 생각을 고백하는 자는 자신의 인간성을 저하시키고 심령 속에 있는 온갖 고상한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사제(司祭), 실수와 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도 흔히 음주와 방종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자기 생애에 있는 죄를 고백함으로 그의 품성의 표준은 저하되고 그로 말미암아 더럽혀진다. 그는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과 같은 분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제가 하나님의 대표자의 위치에 서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그 비열 한 고백은 이 세상을 더럽혀서 마지막 멸망을 받게 하는 많은 죄악을 흘려 내보내는 보이지 않는 원천이다. 그러나 방종을 좋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펴놓는 것보다 자기와 동일한 인간에게 고백하는 일이 더욱 좋게 여겨진다. 또한 인간성에서 볼 때 고행을 하는 것이 죄를 버리는 것보다 마음에 드는 일이며 육체를 베옷과 췌기풀로 괴롭게 하고 쇠사슬로 제어하는 편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보다 더욱 쉽다. 육신의 마음으로는, 무거운 멍에를 메는 것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것보다 더욱 낫다.

로마교와 초기의 유대교 로마교회와 그리스도 초립 당시의 유대교와는 현저한 유사점이 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원칙들을 비밀리에 유린하면서 표면상으로는 그 조문들을 엄격히 지켰다. 그리고 까다로운 요구와 유전을 첨가시켜 그것을 준수하는 일이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들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존중하노라고 공언했던 것처럼 로마교도들은 십자가를 존중하노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을 높이면서도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는 그것이 대표하는 그분을 부인한다.

로마교도들은 십자가를 교회에, 강단에 그리고 그들의 의복에 붙인다. 어디에서나 십자가의 휘장을 보게 된다. 외관상으로는 어디서나 그것이 존경과 높임을 받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들은 무의미한 유전과 거짓된 해석과 엄격한 규칙들의 무더기 아래 묻혀 버린다. 완고한 유대인들에 관한 구주의 말씀은 오히려 로마 천주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더욱 정확히 적용된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마 23:4)한다. 양심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스림으로 받는 진노를 두려워하고 있는 한편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

사치와 쾌락을 즐기는 생활을 하고 있다.

성상(聖傷)과 유물 예배, 성자(聖者)들에게 드리는 기도, 법왕 숭배등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게서 떠나가게 하려는 사단의 간계이다. 사단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직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의 분에게서 그들의 주의를 이탈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단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말씀하신 분을 대신할 어떤 대상에게로 그들을 이끌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과 죄의 성질과 대쟁투에 걸려 있는 진정한 문제를 잘못 되게 나타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의 꾀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의무 관념을 박약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만든다. 동시에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분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 사단은 그의 품성 속에 본래부터 있는 잔인성을 창조주께 돌리고 그것을 종교 제도에 구현시키고, 예배의 형식에 나타내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자 사단은 그들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일에 자신의 대리자로 삼는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관념이 곡해됨으로써 이교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형태 하에서 무섭고도 잔인한 일들이  
자행되어 왔다.

잔인 무도한 박해 로마 천주교는  
이교와 그리스도교의 형태를 혼합하고  
또한 이교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며, 그에 못지 않은 잔인하고  
역겨운 수단들을 사용해 왔다. 로마교의  
전성 시대에는 그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고문하는 기구들이  
사용되었다.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화형주가 있었다. 심판  
때까지는 결코 알려지지 않을 어떤 규모의  
대량 학살들이 감행되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주인이 되는 사단의  
지배 아래 그들의 희생물이 된 자들에게  
최대의 고문을 하면서도 그 생명을  
종식시키지 않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많은 경우에 사람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극악무도한 고문을  
반복하였으므로 고통받는 자의 신체가  
투쟁을 포기하였으며 그는 죽음을 즐거운  
해방으로 환영하였다.

이런 것이 로마교에 반배하는 자들의  
운명이었다. 로마교는 그 신봉자들에게도  
채찍질과 굶주림의 고통과 인간이 고안해  
낼 수 있는 온갖 육체적 고통과  
낙담시키는 방법으로 징계를 과하였다.  
하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회개한 자들은  
자연의 법칙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지상  
생애를 복되고 즐겁게 해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줄을 끊어  
버리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선천적 애정을  
억제해 버리고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게  
대한 동정의 생각과 감정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로 생각하여  
그것들을 억누르기 위한 헛된 노력에  
그들의 생애를 허비한 무수한 희생자들이  
교회의 묘지에 누워 있다.  
과거 여러 백년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교국의 중심부와 그 전역에서  
사단이 나타낸 잔학성을 알고자하면  
로마교의 역사를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이 거대한 기만의 조직을 통하여 악의  
왕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인류를  
불행하게 하는 그의 목적을 수행한다.  
사단이 자신을 변장하는 일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의 사업을 수행하는  
일에 참으로 성공적임을 알 때 우리는  
그가 성경에 대하여 것처럼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더욱 잘 깨달을 수  
있다. 성경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도 사람들에게 지워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회개하고 상한 심령과 겸손하고 순종하는  
정신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 가운데  
남녀들이 하늘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려면  
수도원에 묻혀야 한다는 아무런 모본도  
주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랑과 동정심을  
억제해야 한다고 결코 가르치지 않으셨다.  
구주의 마음은 사랑으로 넘쳐 있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면 질수록  
그의 감수성은 더욱 예민해지고 죄에 대한  
지각은 더욱 밝아지며 고통하는 자들에  
대한 동정심은 더욱 깊어진다. 법왕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품성을 우리 구주의 품성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하늘의 왕으로 존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감옥이나 고문대에 넘겨 주신 일이 있었는가? 그분께서 당신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등한히 여김을 받으시자 사도 요한은 의분을 참지 못하여 질문하였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하기를 원하시나이까”(눅 9:54). 예수님께서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당신의 제자를 보시며 그의 과격한 정신을 책망하셨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눅 9:56 난외 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정신은 그분의 대표자라고 공언하는 사람의 정신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오늘날 로마교는 그의 무서운 잔학성의 기록을 변명으로 덮어 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세상을 대한다.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차림으로 나서지만 실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지나간 시대에 존재했던 법왕교의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가장 암흑한 시대에 고안된 교리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실천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무도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오늘날 개신교도들이 존경하고자 하는 법왕교는 종교 개혁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였고 그 당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그의 죄를 폭로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걸고 항쟁한 그 동일한 로마교이다. 그는 왕들과 군주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속한

권한을 가졌노라고 공언하던 동일한 교만과 뻔뻔스런 주장을 오늘날도 가지고 있다. 그의 정신은 인류의 자유를 억압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죽인 당시와 똑같이 오늘날도 잔인하고 포악하다.

법왕교는 성경의 예언이 마지막 시대에 배도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말한 바로 그대로의 단체이다(살후 2:3, 4).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가장 편리한 길을 취하는 것이 그의 정책의 하나이다. 그는 여러 가지 가변적인 모양 아래 변함없는 뱀의 독을 감추고 있다. “우리는 이단자나 이단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고 법왕교는 주장한다. 성도의 피로 기록된 천여 년의 기록을 가진 이 세력이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가?

천주교가 개신교와 옛날처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오늘날 개신교 국가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유가 없는 말이 아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법왕교에서 일어난 변화가 아니다. 개신교가 종교 개혁 시대 이래 크게 타락하였기 때문에 천주교는 오늘날의 개신교와 매우 비슷해진 것이 사실이다. 개신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노력해 옴으로써 거짓된 사랑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 버렸다. 그들은 모든 악을 선으로 믿는 것이 옳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필연적인 결과로서 그들은 마침내 모든 선을 악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어진 믿음을 옹호하는 위치에 서는 대신에 이른바 로마교에 대하여 무자비한

견해를 가졌던 것을 사과하고 그들이 완고하였던 점에 대하여 용서를 빌게 되었다.

많은 부류의 사람들, 로마교에 대하여 아무런 호감도 갖지 않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 세력과 영향력에 대하여 별반 위협을 느끼지 아니한다. 많은 사람들은 중세기 동안에 퍼져있던 지적·도덕적 흑암이 로마교의 교리와 미신과 압박을 조장하게 되었으므로 현 시대의 지성적 발달과 일반적인 지식의 보급과 종교 문제에 대한 자유 사상의 진보 등이 편협과 압제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계몽된 시대에 그런 상태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자체가 조롱을 받고 있다. 지적·도덕적·종교적 큰 빛이 이 시대를 비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펼쳐져 있으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빛이 크면 클수록 그 빛을 곡해하고 거절하는 자들의 흑암은 더욱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로마교가 인심을 얻는 비결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개신교도들은 법왕교의 정체를 알고 그를 싫어하며 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부하므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해주도록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깨닫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한 가지로 무지하다. 그들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양심을 진정시켜야 하므로 가장 신령적이지 아닌 것, 가장 굴욕적이지 아닌 것을 찾아 구한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방법이다. 법왕교는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잘 맞도록 되어 있다. 법왕교는 거의  
전세계를 망라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곧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과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적합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 법왕교가 세력을 얻는 비결이 있다.

지적 어두움이 심했던 시대가  
법왕교의 성공에 유리했던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지적 빛이 밝은  
시대도 꼭 마찬가지로 그의 성공에  
유리하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지나간  
시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져 자기들의 발 앞에 펼쳐 있는  
그물을 보지 못하고 걸려들었다. 이  
시대에 “소위 과학”이라는 인간의  
그릇된 이론에 눈이 부시어 옳무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눈이 가리워진  
것처럼 그리로 걸어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능을  
창조주로부터 받은 선물로 생각하고  
진리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만과  
야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  
자신의 이론을 더욱 높이기 때문에  
총명이 무지보다 더욱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리하여 성경에 대한 믿음을  
암암리에 손상시키는 오늘날의 거짓  
과학은 암흑 시대에 있어서 지식을

억제함으로써 로마교의 발전의 길을 열어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형태로 법왕교를 받아들이게 하는 일에 성공적인 길임이 입증될 것이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교회의 제도와 관습에 있어서 국가의 지지를 받으려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바, 그것은 개신교가 로마교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일이다. 그뿐 아니라 개신교도들은 로마교가 유럽에서 잃어버린 최상권을 개신교 미국에서 회복하도록 문을 열어 주고 있다. 그리고 이 운동에 더욱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일요일 준수, 곧 로마교가 만들어서 그의 권위의 표라고 주장하는 관습의 강요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사실이다. 오늘날 개신교회들에 침투되어 그들로 하여금 일찍이 로마교가 그들 앞에서 한 그대로 일요일을 존중하는 동일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로마교의 정신, 곧 세속적 관습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유전을 존중하는 정신이다. 미구에 전개될 투쟁에 있어서 어떤 기관들이 이용될 것인지 이해하려면 로마교가 그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과거에 어떤 수단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된다. 법왕교와 개신교가 연합하여 그들의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알고자 하면 로마교가 안식일과 안식일 옹호자들에 대하여 나타냈던 정신을 알아보아야 한다.

왕의 칙령과 총회들과 세속적 권력에 의하여 지지를 받은 교회의 의식들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교의 축제일이

그리스도교계에서 존경받는 위치를 차지하게 만든 계단들이었다.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최초의 법령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말미암아 제정되었다(서기 321년). 이 칙령은 도시인에게는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휴식할 것을 요구하면서 농촌 사람들에게는 농사일을 계속하도록 허락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이교도의 법규이었으나 황제가 형식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후 시행하였다.

왕의 칙령이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입증되자 평소에 군주들의 은총을 받고자 희망했던 콘스탄티누스의 특별한 친우이며 추종자인 감독 유세비우스가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하였다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그 새로운 교리를 증명하는 성경상 증거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유세비우스 자신이 부지중에 그것이 허위임을 시인하고 그것을 변경한 참 장본인들이 누구임을 지적한다. “안식일에 해야 할 일체의 의무를 우리는 주의 날로 옮겼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아무 근거도 없는 일요일에 대한 논증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안식일을 유린하는데 대답해지게 했다. 그리하여 세상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인기 있는 축제일을 받아들였다.

법왕교가 굳게 확립되자 일요일을 존중하는 일은 계속되었다. 얼마 동안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경작에 종사하고 여전히 제칠일을 안식일로 여겼다. 그러나 꾸준히 변화가

이루어졌다. 법정의 신성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들은 어떠한 민사소송의 판결도 일요일에 할 수 없도록 금지되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계급의 여하를 불문하고 세속적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며, 그것을 범할 때는 자유인이면 벌금을, 종이면 태형에 처하게 되었다. 그 후에 그것을 범하는 부자는 재산의 절반을 몰수당할 것이며 그 일을 여전히 고집하는 자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칙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하류 계급의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추방될 것이었다.

로마교와 일요일 강제 준수의 역사 기적도 또한 이용되었다.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 중 어떤 농부가 일요일에 밭을 갈려고 쇠조각으로 쟁기를 소제하였는데 그 쇠조각이 손에 철썩 달라붙어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하여 그는 2년간이나 그 쇠조각을 붙이고 다니면서 “심한 통증과 부끄러움”\* 을 당하였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 후에 법왕은 일요일을 범하는 자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도록 교구 담임 신부에게 명령하였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종의 큰 재난이 그들과 그들의 이웃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게 하였다. 일요일에 일을 하다가 벼락을 맞은 자들이 있으므로 이날은 안식일임이 틀림없다는 주장이 어떤 교회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그때부터 개신교도들도 그 주장을 널리 적용했다. 주교들은 “하나님께서 이날을 등한히 하는 것을 참으로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들은 사제들과 목사들, 왕들과 군중들, 그리고 모든 충성된 백성들에게 “이날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리스도교의 명예를 위하여 그들의 최대의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 이날을 더욱 경건히 준수하도록”\* 호소하였다.

회의의 결의로서 충분치 못함이 입증되자 세상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에 일요일에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법령을 반포하도록 간청을 받았다. 그리하여 로마에서 개최된 종교 회의에서 이전에 결정된 모든 결의가 더 한층 큰 영향력과 권위가 있는 것으로 재보증되었다. 이것들은 종교적 법률이 되어 거의 모든 그리스도교 국에서 그 나라의 집권자들에 의하여 강요되었다.\* 그러나 일요일 준수를 성경의 권위로 보증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큰 곤란이 아닐 수 없었다. 사람들은 태양의 날을 숭배하기 위하여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한 여호와의 분명한 선언을 무시해버릴 권리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있는가 질문하였다. 성경에서 얻어야 할 증거의 결핍을 보충하기 위하여 다른 방편이 필요하였다. 12세기 말엽에 영국의 교회들을 방문한 열렬한 한 일요일 옹호자는 충성된 진리의 증인들에게 거절을 당하였다. 그는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효과가 없으므로 일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가르침을 강요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였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의 그 결함이 보충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으로 주장하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일요일을 준수해야 한다는 명령과 이를 순종하지 않는 자를

위협하는 무서운 협박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소위 그 귀중한 문서, 사실은 그것이 지지하는 그 제도와 마찬가지로 비루한 위조물에 불과한 그 문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데 예루살렘의 골고다에 있는 성 시므온의 제단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로마의 법왕궁이 그 출처였다. 교회의 세력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사기와 위조도 각 시대에 걸쳐 법왕권 제도에 의해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돼 왔다.

일요일 옹호자의 조작 그 두루마리는 토요일 제 9시, 곧 오후 3시부터 월요일 해 뜰 때까지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다. 그리고 그 권위는 많은 이적들이 입증해 줄 것이라고 하였다. 지정된 시간 외에 일하므로 마비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도 퍼졌다. 한 제분업자가 곡식을 갈려고 하자 가루가 나오는 대신에 피가 쏟아져 나오고 물은 힘 있게 흘러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차(水車)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떡을 찌려고 떡반죽을 가마에 넣었던 한 부인은 떡을 꺼내 보니 가마는 매우 더워 있어도 떡은 생반죽 그대로였다. 또 다른 부인은 떡 반죽을 했으나 오후 3시가 되었으므로 월요일까지 두어두기로 했는데 이튿날 본즉 벌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훌륭한 떡으로 구워져 있었다. 어떤 사람은 토요일 오후 3시가 지나서 떡을 구워 그 이튿날 아침에 베어 보니 거기서 피가 나왔다. 이와 같이 터무니없고 미신적인 이야기로 일요일의 옹호자들은 그날의 신성성을 옹호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스코틀랜드에서도 영국에서처럼 고대의

안식일의 일부분과 일요일을  
연결시킴으로써 일요일을 크게 존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룩하게 지켜야 할  
시간은 달랐다. 스코틀랜드 왕이 내린  
칙령에는 “토요일 정오 12시부터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 고 되었고 그  
시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어떤 사람도  
세속적 일에 종사하지 말 것이라고 하였다.  
일요일 신성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왕교도  
자신들은 안식일의 거룩한 권위와 그것을  
대신하여 생긴 일요일 제도가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공연하게  
고백하였다. 16세기에 있는 법왕교  
회의는 아래와 같이 분명히 언명하였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칠일이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날이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지켜오던 날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안식일을 주의  
날로 변경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함부로 변경한 자들은 그들이 한 일이  
어떤 일인가를 모르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그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있었다.

일요일 강요에 대한 개신교의 태도  
로마교회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을 써왔는가에 대한 한  
현저한 실례는 왈덴스인들에게 가한  
잔악하고 장기간에 걸친 박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안식일  
준수자들이 더러 있었다. 그 밖의 다른  
사람들도 넷째 계명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유사한 방법으로 고난을 받았다.

에디오피아와 아비시니아 교회들의 역사는 특별히 중요하다. 암흑 시대의 어둠속에서 중앙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띄지 않고 세상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는데 그들은 여러 세기 동안 그들의 신앙을 자유롭게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로마는 그들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고 미구에 아비시니아의 황제는 법왕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승인하는 미혹에 빠지게 되었다. 이어서 다른 것들도 양보하게 되었다. 가장 엄한 형벌 아래 안식일 준수를 금지하는 법령이 반포되었다.\* 그리고 법왕의 학정은 너무도 쓰라린 멍에가 되었기 때문에 아비시니아 사람들은 그들의 목에서 그 멍에를 벗어 버리기로 결심하였다. 무서운 투쟁 끝에 로마 교도들은 그들의 영토 밖으로 추방되고 옛날의 신앙이 회복되었다. 교회들은 그들의 자유를 향유함과 동시에 그들은 로마교의 기만과 광신과 전제적 세력에 대하여 배운 교훈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들은 외로운 그들의 영토에서 다른 그리스도교국에 알려지지 않고 지내는 것을 만족히 여겼다.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법왕교가 완전히 배교하기 전에 그 교회가 지켰던 것처럼 안식일을 준수하였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제칠일을 지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관습을 따라 일요일에 노동을 하지 않았다. 로마교가 최상권을 잡게 되자 그는 그 자신이 정한 날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안식일을 유린하였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거의 일천년 동안

숨어서 이 배교에 동참하지 않았다.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자 그들은 참 안식일을 버리고 거짓 안식일을 높이도록 강요당하였다. 그러나 독립을 회복하자마자 그들은 넷째 계명을 준수하게 되었다(부록 34 참조).

이와 같은 과거의 기록들은 참 안식일과 그 옹호자들에 대한 로마교의 적의와 그가 창안한 제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이 어떠한을 분명히 드러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교와 개신교가 일요일을 존중하기 위하여 연합하게 될 때 이런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미국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은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묘사된 세력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표범과 비슷한 짐승으로 표상된 법왕권을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두 뿔 가진 짐승은 또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할 것이며, 더욱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계 13:11-16) 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새끼 양 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은 북미 합중국임이 이미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이 예언은 로마교가 그의 최상권에 대한 특별한 인정의 표로 주장하는 일요일 준수를 미국이 강요하게 될 때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만이 법왕권에게 이러한 경의를 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 때 로마의 지배권을 인정한 모든 나라에 있었던 그의 영향력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예언은 그

세력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알려 준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계  
13:3)리라고 한다. 치명적 상처를 받은  
타격은 1798년에 발생한 법왕권의 몰락을  
가리킨다. 그 일이 있은 후 선지자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 “불법한 자”(살후 2:8)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바로 세상  
종말까지 기만하는 사업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법왕권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계 13:8)고 한다. 신대륙과  
구대륙 모두에서 법왕권은 오로지  
로마교회의 권위로 세워진 일요일 제도의  
존중을 통하여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9세기 중엽부터 미국의 예언서  
연구자들은 이 증언을 세상에 발표해왔다.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속에서 그  
예언이 급속히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개신교 지도자들 역시 일요일 준수에 관한  
신성한 권위를 똑같이 주장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하기 위하여 이적을  
날조할 수밖에 없었던 로마교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성경상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주장이 반복될 것인데 이미 그 일의  
착수를 서두르고 있다.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기 위한 운동은 신속히 기초를 놓고 있다.

로마교는 약삭빠르고 교활한 점에 있어서 실로 놀라우며 장차 올 일을 안다. 그 교는 개신교회들이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이므로써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또한 그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바로 그 방법으로 개신교회들이 그 안식일을 강요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진리의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이 자칭 무류 권력자(無謬權力者)의 도움을 구하여 그 교회가 제정한 제도를 존중하고자 할 것이다. 로마교가 이 사업에 있어서 개신교의 도움을 얼마나 쉽게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교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로마교의 지도자들보다 더 잘 알 자들이 누구겠는가?

전세계에 걸쳐 그 모든 가지들을 뺀고 있는 로마교는 하나의 큰 조직체를 이루어 법왕청의 지배 아래 그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지구상 각 나라에 있는 여러 백만명의 교도들은 법왕에게 충성을 하도록 훈련되어 있다. 국적과 정부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들은 교회의 권위를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 높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들은 비록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맹세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로마교에 순종할 것을 서약하고 로마교의 이익과 배치되는 모든 서약은 취소하게 된다.

로마교가 국정에 개입하기 위하여 능숙하고 꾸준한 노력을 해온 사실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으며, 그리고 일단 발판을 얻게 되면 군주들과 국민을 멸망에 빠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밀고 나간다. 1204년에 법왕 인노센트 3세는 스페인의 아라곤왕 베드로 2세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선서를 시켰다. “나, 아라곤왕 베드로 2세는 내 주 인노센트 법왕과 그의 천주교 후계자들과 로마 교회에 언제나 충성하고 순종하며 또한 그의 명령대로 우리 나라를 유지하고 천주교의 신앙을 옹호하며 이단적 타락의 무리를 박해할 것을 공언하며 서약합니다.”\* 이 말은 로마 법왕의 권세에 관하여 주장한 다음의 말과 일치된다. “법왕으로서 황제들을 폐위시키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이 불의한 통치자들에게 충성하지 못하도록 해방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결코 변경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로마교의 자랑을 기억해야 한다. 그레고리우스 7세와 인노센트 3세가 가졌던 원칙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로마 천주교의 원칙들이다. 그러므로 만일 로마교가 권력을 가지게만 되면 지나간 세기에 못지 않게 그 세력을 행사할 것이다. 개신교도들은 일요일을 준수하는 사이에서 로마교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별로 알지 못한다. 그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열중하고 있는 동안 로마교는 그의 세력을 다시 구축하고 그의 잃어버린 최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관철시키고 있다. 일단 이 원칙이 미국에서 확립되어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거나 지배하게 되고 국법이 종교

행위를 세속적 법률로 강요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교회와 국가의 권세가 양심을  
지배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의 로마교의  
승리는 확실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박한 위험을 경고해  
왔다. 만일 여기에 유의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개신교계는 마침내 로마교의  
진상을 알게 될지라도 그때에는 이미 너무  
늦어서 그 올무를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 교회는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있다. 그의 교리는 입법 기관과 교회들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 교회는 오늘날 높고 거대한  
건축물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 건축물들의  
은밀한 장소에서 그의 이전의 핍박이  
반복될 것이다. 때가 되면 그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극히 조용히 그의 힘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유리한  
입장에 서는 일인데 그것은 이미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 우리는 미구에 로마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